

국제회의 한영 통역사의
리얼 단짠 에세이

언어만 옮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서

통역사의 일

박소은

채문서

저자 소개



박소운

좋아하는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

통역 현장을 발로 뛰며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통하도록 전해주는 일을 한 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했고 WHO(세계보건기구), UNICEF, UNESCO, 외교부, 삼성전자, KOTRA 등의 통번역 업무를 해왔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6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기자로 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 졸업 후 통역사로 꾸준히 활동하며 2019년에는 경향신문 칼럼 '통역으로 통하는 세상'을 연재했다. 앞으로도 말과 글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세상과 소통할 생각이다.

산뜻한 소통이란 경청과 존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통역사와 개인 사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 언어적 소통과 비(非)언어적 소통 사이, 말과 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회의 한영 통역사의
리얼 단짠 에세이

언어만 옮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서
통역사의 일

박소운

*채륜서

프롤로그

통역을 시작할 때, 처음 입을 떼는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첫 건반을 두드리듯, 팽팽하게 긴장감이 당겨지는 그 순간.

통역을 마친 후 화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갈 짐을 꾸리는 순간 또한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다 태우고 난 듯 후련함이 느껴지지요.

통역 일의 모든 순간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만큼 직업에서 오는 싫다는 감정도 강렬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불쾌하고, 다 싫어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일과 사랑에 빠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어서겠죠. 그렇게 명징明澄한 아침이 또다시 밝아옵니다. 다시금 어깨를 펴고 균형을 잡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모든 것에서 그렇게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열심히, 그러나 절박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글을 쓰면서 내내 ‘통쾌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엮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신문사 기자로, 한영 통역사로,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만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제 이야기를 말과 글로 풀어낸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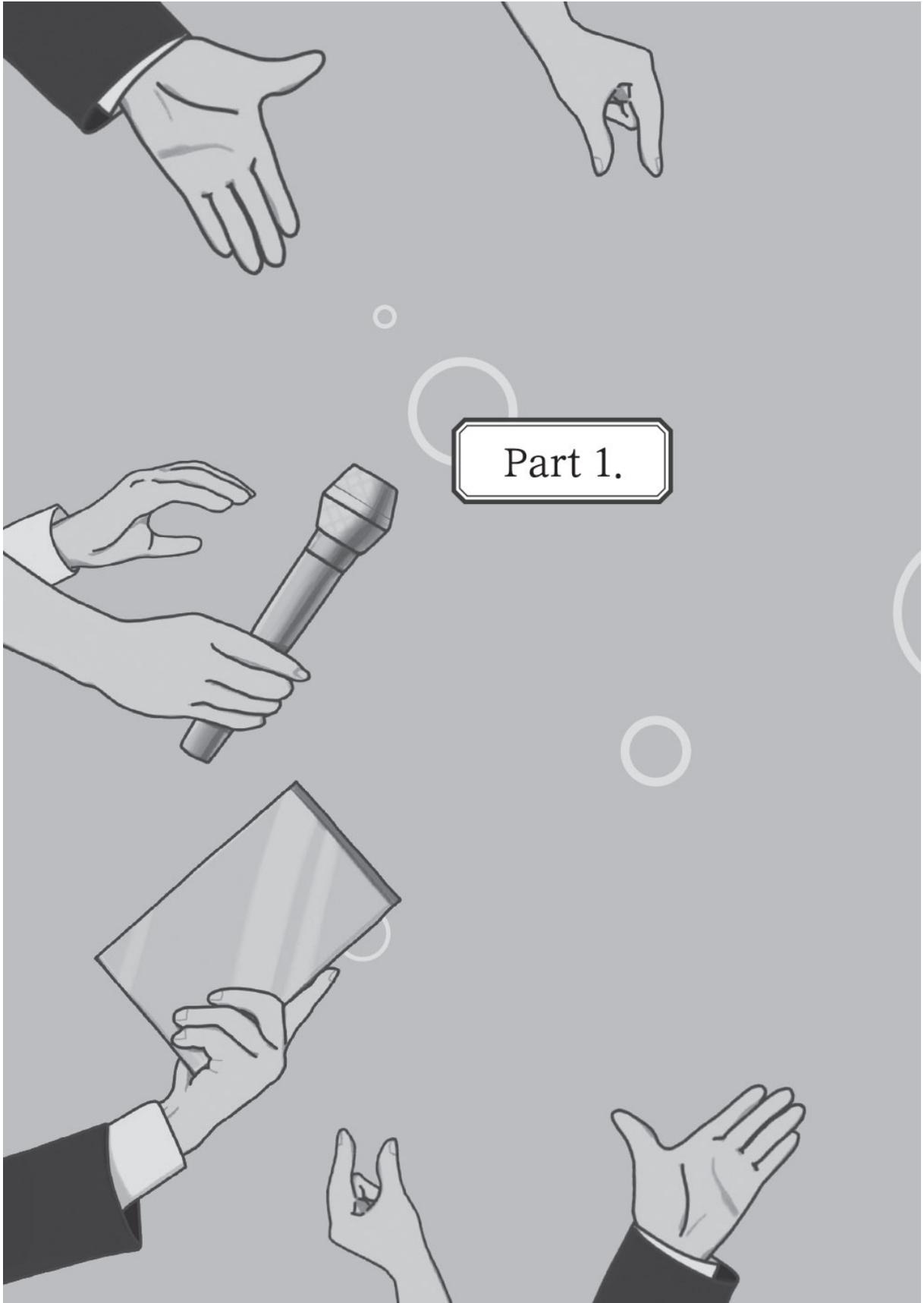
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과 글에서 나 자신을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골몰해왔습니다.

일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글을 쓰고 있는데 막상 통역하러 가서는 좌절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분 좋게 통역하고 돌아와선 컴퓨터를 켜고 일하며 괴로웠던 경험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역할이고 책임 아닐까,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버티며 의미를 채워가는 것.’

어렵지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통역사의 경험담이지만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일을 하며 괴로웠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글로 푼다는 게 창피하고 힘들었지만 누군가의 으리으리한 성공담, 영웅담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험난한 사회생활을 열심히 버텨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용기를 냈습니다.

부디 이 책이 하루하루 일과 연애하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 하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 투명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뜨거운 ‘열일러’들에게 약간이라도 공감을 얻길,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Part 1.



행복과 좌절을
모두 안겨주는
통역 현장에서

‘할 말’과 ‘못 할 말’ 사이, 통역사의 외줄타기

“왜 아무도 안 웃는 거죠, 지금?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강연을 맡은 연사가 발표를 시작하며 대뜸 앞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에게 ‘허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시냐. 덕분에 강연장이 딱 찬 것 같다.’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농담을 던졌다.

찰나의 순간, 많은 갈등을 했고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넘긴 바람에 항의가 나온 것이었다. 통역이 제때 안 나와서 행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일.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얼른 전달해버렸다.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헤드폰을 통해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통역을 해버리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했다. 차라리 “지금 발표자가 농담을 하고 있으니 웃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이 나았을까? 그랬다면 있는 그대로 통역한 건 아니지만 발표자가 의도한 청중의 웃음을 억지로나마 유도하면서도 청중이 불쾌해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동, 중남미, 서남아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 관료 및 학자로 이루어진 청중석은 통역을 듣고도 고요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사실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 전하는 나와 파트너 통역사의 목소리만 이해될 뿐이다. 그 이유로, 이날의 발표자는 유독 반말을 했다. 어차피 영어는 한국어만큼 확고한 존댓말이 있는 언어도 아니고, 누구도

발표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에서 나는 혹시라도 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전달될까 봐 신경을 써서 표현을 정제했다. “오늘 그래서 다들 잠들은 잘 주무셨고?”하면 “지난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에 가깝게 통역하는 식이었다. 답답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로 기억될까. 동시통역부스 안에서 바짝 입이 마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날 청중이 이른바 ‘제3세계’ ‘여성’들이 아니었더라도 발표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며칠 동안 생각이 났다.

할 말, 못 할 말이 있다. 이 ‘못 할 말’을 통역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렵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전문 지식이 있고 없고 보다는 이게 더 힘들고 무섭다. 미처 모르고 범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무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흔한 속담의 의미가, 통역 일을 하며 나날이 묵직하게 와닿는다. 같은 정보를 전달해도 내 의도에 맞게 전달하기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하더라도 그게 제3자의 입을 통해 다른 나라말로 바뀌어 상대방에게 닿을 땐 더 어렵다.

일본 관련한 문서의 번역 일이 들어와 작업을 하던 중, 배경지식을 좀 더 알고 싶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마사코 일왕비 항목을 찾았다. 그런데 왕비로 즉위한 후 외교관 출신 경력을 활용해 해외 일정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녀에 대해 소개한 문장에서 ‘통역사 수준의 외국어 실력’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다.

그간 주로 ‘통역사가 필요 없는 외국어 실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접해왔기 때문이다. 어차피 둘 다 같은 말이다. 통역사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갖췄다면 통역사가 당연히 필요 없을 것이고, 통역사가 필요 없는 외국어 실력이 곧 통역사 수준인 것 아닌가. 하지만 통역사를 멀뚱하게 세워놓는 게 실력 과시의 한 방법인 양 묘사하는 것에 질려 있던 차에, ‘통역사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작성자의 마음 씩씩이에 감동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출신 국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질문들. 어색함을 피해보겠다며 기껏 찾은 대화 거리가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소재들. 가벼운 농담쯤으로 여기기엔 중간에서 아찔한 순간들이 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면 대략 이렇다.

‘한국에서 오셨으니 개를 대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를 안 먹어서 어찌나, 이거.’

‘한국에서는 정말 죽은 조상한테 음식 대접을 하나요? 그러면 망자의 혼이 와서 먹고요? 하하하.’

꼭 문화적인 차이에서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다. 통역사가 늘 기분 좋은 자리에만 배석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힘겨운 줄다리기 협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몇 시간째. 슬금슬금 양쪽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던 차에, 급기야 한국 쪽 대표가 책상에 서류를 던지고 털썩 주저앉으며 내게 말했다.

“저 사람들에게 영어로 욕이나 실컷 해주십시오!”

이 말을 시작으로 성난 한국어가 붓물 터지듯 들려온다. 통역사가 ‘미드’의 한 장면처럼 영어로 속사포처럼 욕을 싸대야 하는 순간일까? 의뢰인이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욕하는 것도 아닌데 듣기에 괴롭다. 그러나 양방향으로 오가는 험악한 대화의 중간에서 감정을 걸러주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것도, 통역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외국 측 사람들에게는 “유감이다”로 한껏 부드럽게 전달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과 어조를 통해,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회의 결과는 좋았다. 일주일쯤 지나 의뢰인에게서 ‘감정싸움으로 변질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사는 무색무취無色無臭’ 한없이 투명에 가까울수록 유능한 거라고 배운다. 발화자의 말을 누락해서 전달하거나, 없는 말을 보태 전달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나와서도 통역사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주로 입는다. 소통이 필요한 누군가의 입과 귀, 그 이상의 존재감은 원치 않는다.

흡사 닭장같이 작고 어둑한 동시통역부스(동시통역을 전달하기 위한 기기가 설치된 부스. 2인의 통역사가 짝을 이루어 들어가며 교대로 동시통역을 한다)에 들어가서 일한다. 위스퍼링 통역(별도의 통역 장비 없이 의뢰인 근처에서 속삭이듯 동시통역하는 것)의 경우 회의의 당사자가 앉은 큰 의자 뒤에 몸을 낮추어 숨는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기에. 일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러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통역사의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몇 년간 이 일을 해오며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달하는 것만 통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없는 말을 보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중요한 기본자세이지만, 감정이 심하게 격해지는 자리에서는

예외적으로 원 발화에 없었던 ‘죄송하지만’ ‘감사하지만’을 넣어 뜻을 완곡하게 전달할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력이 쌓일수록 그날 통역이 비극적인 내용이었거나 양자간에 고성이가 오가는 내용이었던더라도 객관적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회의가 끝난 후에는 통역 당시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는 요령이 좋아진다. 그날의 분위기에 오래도록 젖어 있다는 한들 더 좋은 통역을 하는 게 아님을 현장에서 뛰며 배웠기 때문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는 이의 뜻을 헤아려서 전달하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진심을 이어 줄 수 있으려니 하며 매번 통역을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거절하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우다

직업이라는 걸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한 이래,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어떤 요구 사항에도 어지간하면 응하는 편이다. 기자 시절에 배운 자세일지도 모른다.

한창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00년대 중반의 어느 날, 아직 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여름날이었고 체력이 바닥나지 않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학력위조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가볍게 귀가해서 꿀 같은 주말의 휴식을 즐길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분당 어디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프간에 해외 선교를 갔다가 납치당했다는데, 네가 한 번 찾아가 봐야겠다.” 나이가 어린 축인 여기자라고 일 안 하고 뻘다는 소리는 죽어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기자가 못하는 게 어딴나.

“……넵. 한 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내게 금요일 저녁과 이어지는 주말뿐 아니라 최소 몇 주를 앓아갔다. 매일 출근이 여행같이 길었다. 쌓여가는 피로에 비례해서 딱히 특종을 터뜨리거나 혁혁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지만, 거기에 사회부 기자가 가있는 게 무척 중요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내 임무라 생각했다.

기자 근성의 희미한 흔적이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애초 전형적인 첫째 딸 성격이라 ‘No’라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명하게 거절

의 뜻을 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성격 덕분에, 힘든 일 위주로 ‘구르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그래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일을 마다하면 무슨 수로 배우겠는가.

남들은 청력 보호 차원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일하는 공장의 생산 시설 시찰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통역하는 일도 있었고, ‘이 국제기구에서 우리 회사를 왜 방문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통역사 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통역 일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들에 모험심을 앞세워 무턱대고 도전하기엔 통역 건 하나하나가 통역사로서 나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일을 잘 마친 후 느끼는 후련함과 성취감, 하루나 이틀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한 고객들과의 동지애가 있기에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통역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통역 제안이 들어온 건을 어렵사리 고사했다. 거의 처음인 것 같았다. 예의 바르게, 화내지 않고, 그러나 담백하게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을 전한 건.

당시 내게 제안이 들어온 일은 기업 회의에 배석해 순차통역을 하는 일이었다. 다만, 나의 통역을 포함한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후에 자료집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전해 들었다.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출신 한영 통역사의 요율 기준에 따르면 한 시간, 그 후 여섯 시간까지로 통역료가 다르고 녹음을 하면 비용을 가산해서 받게 된다. 한 시간짜리 회의로 녹음까지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고객사 담당 직원이 “그런데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실제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진 회의가 얼마나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걸로 이해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전화가 왔다. “통역사님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해하셔서요. ‘샘플녹음’을 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약간 난감했지만 영문으로 작성한 회의 자료를 한국어로 바꿔 몇 분 분량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다. 자료를 앞에 놓고 한국어로 바꿔 내용이 통하도록 읽은 것이니 ‘실전’ 통역보다는 문장이 매끄러웠다. 실제 회의 통역에 들어가서도 이만큼 아무 망설임 없이 말이 나올 수는 없을 텐데 약간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샘플 녹음’을 받은 고객사에서 이메일이 날아왔다.

“한국어로 통역을 하실 때 알게 모르게 외래어나 영어 약어를 ‘굴리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린 자료를 번역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외래어의 발음을 딱히 ‘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고급적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추는 편이다. 사실 통역, 번역이 숫자로 똑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고객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친분이 있는 통역사 한 명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 기본이지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수십 장에 달하는 자료를 무료로 번역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채울 통역 일들이 아쉽던 시절이었지만 이걸 느낌이 왔다. 선불리 받을 답가선 고생만 하고 결과도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다.

“제가 이 통역 건을 수행하게 되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진작 이 일을 고사했어야 한다. 이미 회의 날짜도 제법 다가와 있었다. 한 시간짜리 통역이지만 시간을 초과해도 통역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말라는 무언의 요구,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니 녹음해서 보내달라는 말(음성과 전달력이 통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통역하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데!), 그리고 무료 번역을 해달라는 요청. 음성 샘플 녹음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통역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던 초년생 통역사였기에 처음부터 거절을 못했다.

고객사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했다. 나를 대신해 통역에 들어갈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 사항이 많은 일을 차마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 또한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하고 거절했다.

No라고 말하는 법을, 참 비싸게 배웠다. 이후 다음 일이 들어오기 전까지 의기소침해져있었다. 어디까지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드리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른바 ‘통역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저가 통역’ ‘무료 번역’일까. 괜히 뻗뻗하게 굴어서 일할 기회만 날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도 비로소 ‘화가 나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경험으로 친다. 서른 언저리까지의 나는, 왜 정당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발끈했을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통역사 일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를 현명하게 내는 것에 서툴렀던 게 아닐까. ‘말과 글로 먹고사는’ 직업만 했다고 늘 얘기하는데, 정작 내 속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착한 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약 십 년이 흐른 지금은 이런 일들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너무 모난 돌이면 어쩌나’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어 좋다.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통역사’는 아니겠지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나의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또 있다는 걸 잘 안다.

또 하나, 처음 프리랜서 통역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돈 얘기’를 내 입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매월 25일이 되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기분 좋게 함께 일했던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며 차츰 가볍게, 쭈뼛거리지 않고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거절하고 요구하는 기술을 여전히 다듬고 있다. 나도 모르게 탑재된 ‘넵’ 자동응답기능을 끄고,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훈련을 하면서도, ‘싫어요, 못해요.’ 빼지 않는 연습. ‘이런 말 하는 내가 비루해 보이진 않을까’ 끄끙대지 않고 돈 얘기를 입 밖으로 내는 연습. 프리랜서 생활하며 세상을 배운다.

통역으로 웃겨드립니다?

말의 맛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가끔씩 삐끗한다.

몇 년 전, IT 회의 통역을 가서 있었던 일이다.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 여부를 논하는 자리, 외국인 컨설턴트가 한국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반 유저에게도 데이터를 수정할 권한을 주는 솔루션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기존에는 관리자만이 데이터를 수정할 권한을 가졌지만 솔루션을 도입하면 각각 담당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어 훨씬 더 편리하다는 내용이었다. 맛을 살려 통역한다는 게 그만, 계속해서 “시스템 상에서 일개 사원도 데이터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해버린 것이었다. 외국인 컨설턴트가 강조를 위해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는 내내, 나도 계속해서 ‘일개 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솔루션 도입 전까지는 일일이 결재받고,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수정해야 했지만 시스템 고 라이브go-live 후에는 일개 사원들도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다. 내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게 뜨끈뜨끈 느껴졌다.

“제가 일반 유저들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자꾸 ‘일개 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

니다. ‘일개 통역사’가 감히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역사에게 무슨 발언권이 있던가, 다른 이의 말을 전할 뿐. 하지만 이 실수만큼은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재빨리 사과하자 엄숙하던 회의장에 박장대소 웃음이 퍼졌다. 다행히 몇 달간 계속 함께 일해서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던 터라, 재미있는 실수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분위기도 더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말의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면서 치명적인 오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냉전 시대인 1956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방세계의 대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당신들을 묻어버리겠다We will bury you.”라고 말한 것으로 통역되어 양 진영 간 긴장감이 고조되었었다고 한다.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제 러시아어 뉘앙스를 살펴보면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공산주의 체제는 건재할 것이다We will outlast you.”에 가깝다고 한다. 직역에 가깝게 풀어보자면 “당신들 저승 가실 때 땅 파는 것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도 될까? 통역 일을 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흔한 속담이 한층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분위기에 따라 눈치껏 짧게 전달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방문해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어색함을 깨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편안한 대화를 잠시 나

누는 짓을 하며 해당 국제기구에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는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유럽에서 온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좋은 표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고, 등등이 다 나왔고, 한국인 청중들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건 그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굳이 몇 분을 할애하며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늘어질 거라고 판단했다.

“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 면, 성, 실한 한국인!”

한국 측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자 국제기구 관계자도 미소 지었다. 온갖 통계 수치와 그래프가 난무하는 본 회의에 앞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양측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으니 이 정도 몇 부리기는 괜찮겠지 생각했다.

열심히 해야지,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너무 큰 걸 난 ‘마음에 기름기가 낀다’고 표현하곤 하는데, 욕심이 커져 긴장만 하게 되던 초년생 시절에는 쉽지 않았다.

한번은 통역 일은 아니고 어느 만찬 행사에서 한국어 영어 MC일을 하는 자리였다. 유난히 분위기가 엄숙했던 자리, 외국에서 온 사절단 대표가 건배사를 하고, 건배를 제의한 뒤 한국 측 대표와 건배하는 식순이었다.

외국 쪽 대표가 속사포 건배사를 했다.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행사 스태프가 다가가 이 외국인 대표에게 건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 행사 스태프

와 눈이 마주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저 멀리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역겹 같은 찰나가 지나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Mr. OO, please make a toast(건배해 주십시오).” 사회자는 식순에 따라 멘트만 읊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 날은 딱딱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어째 쉽지가 않았다. 며칠 동안 대본을 작성하고, 더 예쁜 표현을 넣어 손질하고, 내 입에 맞게 고쳐서 암기하며 열심히 준비한 자리였는데, 그야말로 마음에 기름이 잔뜩 켜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책잡히지 않겠다는 욕심의 기름.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고객, 청중에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가급적 보이지 않는 게 좋겠지만 항상 100퍼센트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행히 마음의 기름기를 서서히 걷어낼 수 있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한 고객, 발표자, 청중이 나의 사과를 허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라 여기고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해 주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번역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데 이럴 땐 통역과는 달리 ‘청중’이 없어서 혼자 웃는다. 전통 토목과 관련된 학술적인 성격의 글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토목 기술 용어가 영어에 1:1 대응으로 존재하지 않아 나름 비슷한 표현으로 라틴어 토목 표현도 찾고, 역자 주를 길게 넣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번역 작업을 마친 후 교정을 하는데, 텍스트에 등장하는 권위자의 성함 Bang Ryong(방룡)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Bangry ong(방그리 옹)으로 잘못 타이핑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다행이다 싶으면서 나 자신이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그 외에도 public(공공의)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이 그만 키보드의 'l'을 치지 않았는지 pubic(치골의)이라고 해놓은 걸 발견한 적도 있다.

실수가 아니어도 통역을 하며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때가 종종 있다. 회의 끄트머리에 연사가 통역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보람을 느끼면서도 쑥스럽다. 동시통역을 하면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순차통역, 특히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 칭찬을 말로 옮기면 뜻하지 않은 (일종의) 자화자찬이 되어버린다.

초년생 통역사 시절에는 너무 민망해서 빠르게 통역하고 넘어가곤 했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신 기관, 특히 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열심히 일한 한국인 직원 누구누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열정을 다해 통역하고 있는 통역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기관, 한국인 직원에 대한 감사만 옮기고 통역사에 대한 언급은 스프륵 넘어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에라, 통역해야지 뭐!’하고 그대로 옮겨버릴 수 있는 뽀뽀함을 갖추었다.

“끝으로 오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통역을 제공한 박소운 통역사에게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웃음)”

회의장의 미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뉘앙스와 발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원칙을 매일같이 되새긴다. 설전舌戰의 현장, 임전무퇴의 심정으로 통역 일에 임할 때가 많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웃음의 매개가 되는 즐거움이 크다. 통역사의 말재간으로 될 일은 아니고,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한 내게 전우애, 동지애를 나눠준 이들을 많이 만났던 덕이다.

코로나 시대의 통역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봄, 일터의 풍경이 달라졌다. 아니, 일 자체가 줄어들었다. 통역사는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 ‘성수기’를 맞는데, 원래대로라면 바삐 일해야 할 시기지만 국제회의 소식이 없이 잠잠하다. 마음 같아서는 신이 나서 통역 자료를 공부하고 싶고, 비좁은 동시통역 부스가 그림지만 침울하게 이 시기를 보내기보다는 이런 시기조차 의미를 찾으려 한다. 사실은 취미생활과 엄마 노릇의 시간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배웠던 거문고를 다시 꺼내고, 그림을 그렸다. 연설문을 찾아 낭독하는 유지·보수의 시간. 아이들 영어 동화책 읽어주며 나름의 연습으로 삼는다.

코로나-19는 통역 일을 없앴지만 한편으로는 들어오는 번역 의뢰들이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서들이라 아이러니했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통역 일이지만, 1918년 당시 창궐한 스페인 독감에 이어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에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통역 경험을 하게 되었다.

먼저, 순차통역 상황에서 마스크 쓴 참석자들을 통역해야 했다. 통역사를 배려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들은 한껏 목소리를 높여 발언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라 알아듣기 어렵다. 모국어인 한국어라 할지라도, 평소 소통을 하며 입모양에 생각보다 많이 의존했음을 깨달았다.

한국을 오가는 외국인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다수의 국제회의가 취소되었지만 꼭 해야 하는 회의는 원격 화상회의 형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아쉬운 대로 스카이프를 연결해서 하는 회의를 순차통역하는 건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줌Zoom 같은 화상회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다. 채널을 조정해 들을 언어를 바꿀 수 있기에 동시통역도 하게 되었다. 회의장 분위기를 살피거나 하는 등의 교감이 없어 더욱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수선한 회의장에 비해 좀 더 깨끗한 음질로 들어오는 소리를 통역하면 되니 편리한 점도 많다. 한편으로는 청중들 또한, 외부 소리와 섞여 리시버로 들어오는 나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내 목소리만 들을 테니 더 부담스럽고 긴장되기도 한다.

어차피 시스템을 통해 멀리 있는 청중들을 연결하는 회의, 통역사도 '재택 통역'을 할 기회가 생겼다. 집의 컴퓨터 앞에서 통역을 하게 되며, 마이크 일체형 헤드셋을 구입했다. 그나마 나는 번역 작업을 집에서 하는 편이어서 집에서 일하는 환경이 낯설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형태의 일에 적응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 회의 도중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앓을까 괜히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국제회의의 경우 통역사 두 명이 통역 부스에 2인 1조로 들어가서 파트를 나누어 동시통역을 하는데, 이걸 가상공간으로 옮겨 RSI(Remote Simultaneous Interpretation)로 하게 되니 청중, 발표자는 물론 파트너 통역사조차 나와 멀리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기했다.

동남아에서 열린 웨비나 행사에서 영한 통역사로는 한국의 나와 호주
의 파트너 통역사, 영중 통역사로는 중국 상하이와 영국의 통역사가 원격
으로 시스템에 들어와 통역을 하는 식이다. 동시통역 파트너를 보통 영어
로 'booth mate(부스 메이트)'라 하는데, 한 부스에 앉아있지 않은 부스 메
이트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 새로웠다.

원격 통역을 하게 되며, 장소와 방법만 바뀐 게 아니라 회의 시간대가
바뀌었다. 한영 통역사인 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와 연결한 화상회의를
하게 되니, 밤 시간대 통역 일이 많아졌다.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통역 에이전시에서도, 클라이언트 쪽도, 대
부분 '화상회의, 원격 통역해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는 평이 들려
온다. 나 또한 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 통역 자료 보고 준비할
시간을 벌였으니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통역 시장의 큰 흐름이 이런 원격, 화상,
재택 회의 통역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문 통역사들에게는 통역 효율이 정해져 있는데, 재택 통역 일의 경우
효율을 좀 낮춰주었으면 하는 고객사도 있다.

'구글'이 없던 시절에 번역을 대체 어떻게 했던 건지, '워크맨'도 귀하
던 시절엔 통역 공부를 어떻게 했던 건지 상상도 할 수 없듯, 통역 업계는
기술의 발전으로 또 한차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부한 말이지만 유연하게 적응해야 급변하는 통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한편으로는 새롭게 재편될 통역
업계가 너무도 궁금하다. 구글의 등장 전부터 번역 업을 해온 선배들이
구글의 등장으로 사라지지 않았듯, A4용지에 출력한 통역 자료를 무겁게

들고 다니던 선배들이 노트북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라지지 않았듯, 업의 본질에 집중해온 고수들은 건재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전하지가 못해 험난한 통역을 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을 연결한 화상회의로 딱 한 시간 진행되는 회의는 밤 10시 시작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다. 보안상의 이유였는지 통역 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 미국, 유럽,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을 연결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였는데 참석자 중 통역사를 따로 배정한 곳은 한국 단 한 곳뿐. 상황 상 연사의 말을 끊어가며 순차통역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회의이니 위스퍼링으로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아뵐싸. 클라이언트가 내게 제공해 준 노트북에서 소리가 출력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통역해야 하는 상황, 대형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소리로 통역하며 담당자에게 손짓 발짓으로 ‘지금 내 이어폰으로는 소리가 안 들려요’를 전했다. 고객사의 직원들이 노트북 네트워크를 손보는 동안, 아쉬운 대로 의존했던 스피커 소리마저 끊겼다.

“이거 네트워크 불안정 같은데요.”

몇 번이고 재연결을 시도하던 직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통역 자료를 미리 보내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회의였는데,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자 피가 마른다. 자세히 준비하고 공부해갈 수도 없는 회의여서, 온전히 들리는 것에 의존하고 집중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문맥을 놓치고 있구나.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끝에, 그는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회의 발표 슬라이드와 연사의 얼굴이 화면에 담긴 채. “이거라도 보고 통역해 주세요.”

발표 자료 슬라이드의 빼곡한 글씨를 휴대폰에 띄우니 당연히 읽을 수 없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소리를 위스퍼링하자니 내 목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귀는 한껏 휴대폰에 붙이고, 마치 통화하는 것 같은 포즈로 동시통역을 했다. 이날 최후의 수단, 휴대폰.

너무 긴 한 시간이었다. 먼 옛날 기자 생활을 할 땐 스마트폰도 보급되기 전이어서 길에서 급하게 기사를 전송해야 할 땐 회사로 전화를 걸어 기사를 불러주면 내근하는 동료가 타이핑을 해서 전달하고는 했다. 시위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그럴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통역사로 직업을 바꾸면서는 이렇게까지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안 되는 일은 처음이었던 듯하다.

힘든 통역 끝엔 늘 그렇듯 어쩐지 얼굴에 주름이 한껏 진해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객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회사 대표가 직접 쇼핑백에 넣어 KF 94 마스크 열 장을 주셨다. 오늘 통역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고생하셨다며.

칭찬이나 감사 인사에 너무 우쭐하지 말자. 늘 그렇게 생각한다. 과분한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받으면 그건 내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사를 해주는 클라이언트가 좋은 사람이어서다. 반대로 비판, 즉 컴플레인을 받게 되어도, 이걸 마냥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고객의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칭찬도 비판도 적당히 털어내고 들으려고 한다. 경험상 칭찬에 우쭐하는 사람일수록 비판에 쉽게 무너졌다. 그러나 ‘마스크가 돈 보다 귀하다는’ 이 시국,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았던 회의를 있는 힘껏 통역한 끝에 받은 선물에 감동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통역사라는 틀을 놓고 볼 때 코로나-19 사태의 숨은 영웅들은 수어^{手語} 통역사 분들이 아닐까. 수어는 손으로만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고 표정, 눈썹의 움직임, 입모양도 수어의 일부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들. 뉴스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소통의 다리를 놓는, 통역의 본질에 충실하게,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어-영어 통역사로서 많이 배웠고 또 감사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장면이 크게 변화하고 일의 터전 또한 크게 바뀌는 이 경험도 내게 주는 교훈이 꼭,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하루를 살아간다.

통역 ‘낀 세대’도 나쁘지 않다

어느 가을, 과거의 은사이자 대선배와 같은 부스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것도 아주 무서워했던 분, 통역대학원 입학한 첫 학기의 영한 순차통역 수업을 가르쳐준 선배다. 통역 자료를 받아 준비할 때부터 부담감이 엄청났다.

지난 13년간 나도 이른바 ‘짬밥’이 생기고 뭐라도 나아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이건 뭐 스물다섯 살 대학원생 때만도 못한 통역이 나오겠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On your mark, get set, go! (준비, 시작!)

주제부터가 만만치 않은 통역이었다. 에이전시에게 섭외 당시 “고객사가 워낙 통역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곳이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게다가 ‘호랑이 선배님’ 앞.

현장에서 접한 은사의 통역은, ‘쉬웠다’. 감히 내가 평하기도 죄송스럽지만 어쩔 이렇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깨끗한 문장이 나오는지, 내 파트가 아닐 땐 연신 속으로 환호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점심시간,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봤다. “선생님, 제가 이제 10년을 통역 일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20년 차까지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20년 차가 되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문현답_{愚問賢答}으로 용기를 주셨다.

이젠 선생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다른 일을 해서 더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 내가 처음 통역사 시작할 때 회사 생활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기업 임원인데 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역사야.”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 전 아직 통역사로 정점을 못 찍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없나 봐요. 선생님은 최고의 통역사시잖아요.”

난 아직 멀었구나 싶으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통역 업계만 생각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긴 시간이 지나 은사와 파트너로 한 부스에 앉았다는 생각에 몽클했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들어가기 전 인사드리며, 살짝 당돌하게 선언했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더 잘해져 있을게요.”

대학 시절, 외대 통역대학원 한영과의 입시 경쟁률은 어마어마했다. 40~50명 정도 신입생을 뽑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당시 1차 시험을 통대 최종 합격자의 2배수만 남기고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입학했지만 대학원 과정은 차라리 입시가 쉬웠다는 생각이 들도록 힘들었다.

그리고 2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진짜’ 통역사로 사회에 발을 던자, 또 대학원 울타리 안에서 혼나고, 경쟁하고, 공부하던 시절이 얼마나 말랑했든가 실감했다. ‘혹독한 (통번역) 세상의 맛’을 보며 몇 년을 버티면서 비로소 무섭기만 했던 선배들이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다는 것에 존경심이 생긴다. 그리고 통역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품위를 잃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선배들이다.

또 다른 선배 이야기. 세 딸을 키운 50대 통역사 선배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였다.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다정하고 살뜰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나와 잘 통했다. 한 달간 함께 일하며 다른 통번역사 동료들과는 많이 하지 않는,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첫인상은 화려하고 가벼운데 알고 보면 소탈하고 아주 뿌리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평하셨다. 그때 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응원 겸 극찬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이후 내가 ‘뿌리가 흔들릴 때’ 내가 함부로 구겨지고 꺾이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했다. 사람의 입을 타고 말이 나오는 순간, 말에는 힘이 생긴다. 선배가 날 뿌리가 탄탄한 사람이라 하셨으니 난 그렇게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방 출장을 가서 다른 대선배와 동시통역 파트너로 일한 적이 있다. 늦여름, 빌트인built-in 부스(별도로 임시 통역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회의실 내에 통역 장비가 있는 통역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왕모기가 날아다녔다. 한 명이 통역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열심히 모기를 잡았다. 한참 모기를 잡다가, 처음 만난 파트너와 이려고 있는 우리 모습이 웃겨서 마주 보고 웃기도 했다. 다정하고 소탈한 선배는 동시통역 파트너로서 ‘정석대로’ 서포트해주셨다. 보통 내 통역 파트가 아닌 경우 멍하게 쉬고 있기 마련인데 (사실 내 파트 아닐 때라도 잠깐 멍하게 힘을 빼고 있어야 내 통역 차례에 체력과 집중력이 유지된다) 선배는 내 옆에서 숫자, 고유명사 등을 일일이 메모해서 도와주셨다.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온 얼마 후에 알게 되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책의 역자셨다. 번역문의 문장이 담담하게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과연, 번역자를 닮아있는 문장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계간지에 역시 대선배인 이연향 통역사의 인터뷰가 실렸었다.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는 선배는 통역을 하다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쓸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답했다. 기자출신이라 드세다는 말을 듣기 싫어 괜히 기죽을 때가 많았던 내 어깨를 펴주는 말이었다. 직접 만난 적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인터뷰 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었다.

선배들과 일하며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 실력과 후배들과 일할 때 느끼는 감동과 긴장도 있다. 난 그걸 ‘통역대학원 독이 아직 다 안 빠진’ 후배들이라 표현한다. 통역사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 역시 ‘연설문 덕후’다. 연설문에는 사실상 정해진 순서가 있고, 자주 쓰이는 수사修辭가 있다. 이런 구조에 유려한 어휘를 엮어 전달한다는 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올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게 미치도록 매력적이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가 지날수록, 통역대학원에서 배운 느낌 그대로 줄줄 연설 통역을 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원 2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통역 수업은 연설문 통역 연습으로 이뤄졌었는데, 졸업 후 현장에서는 주로 국제회의의 개회사, 축사, 폐회사 등 ‘행사의 일부’로서 연설문을 접한다. 그렇지만 회의의 주요 내용이 되는 발표 통역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학교 때 지겹도록 반복한 연설문 통역이 어찌 전처럼 잘 나오지 않는 기분이다. 그럴 때, 정식 통역대학원 스타일로 긴장감 팽팽한 통역을 선보이는 후배들을 보며 정신이 바짝 든다. 경쟁심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충격? 마음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매일같이 연설문을 찾아 읽고 분석하고 표현을 연구하며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며 고삐를 조이게 해준다.

어느 해 스승의 날에 찾아뵈신 교수님은 해가 갈수록 통역대학원 재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셨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영어가 자유로운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그런 후배들을 보며 나도 본받을 점은 본받는다. 타성에 젖을 만할 때쯤, 막 통역 시장에 나와 팔팔한 후배들을 보며 초심을 찾을 수 있어 고맙다.

좀 더 솔직히 말해보겠다. “내가 열 살만 나이가 더 많았더라면 통역의 황금시대를 누렸을 텐데.”하는 푸념을 동료들과 농담 삼아 얘기하곤 한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 통역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너무 많아졌고 통역사의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이른바 ‘레드오션Red Ocean(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특정 산업 내의 기존 시장)’이다.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대우가 더 좋았던 시절을 경험한 선배들의 위풍당당함과 노련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받은 하드 트레이닝의 기억이 아직 각인되어 있는 후배들의 열정과 체력에도 못 미치는 나는 ‘통역 낀 세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모두 만나고 배울 수 있다 생각한다. 선배들한테서, 후배들한테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점이 각각 다르니 나름 복 받았다. 그들에게 나도 괜찮은 후배, 선배였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니,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각자도생 프리랜서의 세계에서 여적어나 여둑어나

“소운, 나도 그랬지만 너도 ‘왕언니’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다. 있잖아, 왕언니들은 기죽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애들을 좋아해.”

십여 년 전, 기자 시절 함께 일본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친해진 한겨레신문사의 여자 선배가 이런저런 꾸밈을 늘어놓는 내게 해준 말이다. 입고 다니는 옷이 기자답지 않다고 혼이 난 적이 몇 번은 있었다. 그 후 통역사로 직업을 바꾸면서도 때로는 선배들에게 찍혀서 마음고생한 일들도 기억에 남아 있다.

통역사의 대다수는 여자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했던 당시, 한영과 정원이 대략 40~50명 선이었는데 남학생이 7, 8명 들어온 해였다. “올해엔 yin(陰, 음)과 yang(陽, 양)의 조화가 잘 맞네요?” 수업에 들어온 교수가 수강생을 한번 쪽 훑어보더니 말씀하셨다. 그럴 정도이니, 통역 필드에서, 즉 현장에서 활동하는 남자 통역사의 수는 매우 적은, 여초 직업이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며, 스물 몇 살 때 한겨레신문 여선배가 해준 말을 점점 더 잘,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딱히 건방지고 도도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자 선배들 앞에서 싹싹하게, 말 그대로 ‘기죽어 보이게’ 행동하는 것에 약했다. 말하자면 그렇다. 기죽어 보이게 행동하면 어쩐지 도와주고 싶어진다. 나는 그렇지가 못해서 어딘지 거슬린다는 거였다.

꼭 선배들하고의 관계만 삐끗할 때가 있는 건 아니었다. “내게 제안 들어온 통역 건이 있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통역료에 해달라고 하기에 못 하겠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소운이가 그 일을 주워가서 했더라.” 다른 통역사가 불쾌한 소문을 낸 적이 있다. 소문의 그 건은 내가 졸업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통번역센터에서 의뢰한 일이었다. 외대 통번역센터는 통역 요율을 준수하는 일을 중개해 준다. 게다가 소문을 낸 통역사는 외대 통역대학원 출신이 아니었다. 통역대학원의 ‘센터’에서는 자교 졸업생에게 통역 일을 준다. 그녀에게 해당 건의 제의가 갔었을 리도 없었다. 무슨 이유였는지, 내게 흠집을 내기 위한 소문이었을 나를 ‘짜구려 통역을 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으로 포함하는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2인 1조로 들어가는 동시통역에서도, ‘내 파트너 통역을 망치면 내가 더 잘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하는 생각에서 얇은수를 쓰는 업계 사람들도 여러 번 겪었다. 통역을 하고 있는 동안 슬그머니 내 마이크를 꺼서 당황시킨 사람도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통역사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작 내가 더 예뻐 받았다는 알팍한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환멸을 느끼곤 했다.

한편에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를 뿌듯한 훈장인 양 생각하는 부류도 있다.

“난 남자들하곤 늘 사이가 좋아요. 다들 나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나를 고까워하고, 미워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무엇을 자랑하려는 의도인지가 뻔한 말이다. 미안하지만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없었다.

진짜 고수들은 말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 ‘내가 너무 예뻐서 여자들이 나를 미워해’ 하는 말 자체가 좀 후졌다. 예쁜데 왜 미워해?

그런 와중에도, 십 년 넘게 일을 하며 얻은 건 날 밀어주고 끌어준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과의 자매애였다. ‘여똥여(여자가 여자를 똥는다)’라고나 할까.

내게 친언니나 다름없는 한국어-프랑스어-영어 통번역사 장유경. 가을 시즌이 저물어가던 어느 초겨울 이런 일이 있었다.

공식 언어가 한국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회의 동시통역 건 섭외가 들어왔다. “파트너는 박 통역사가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에이전시에서 나와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일종의 배려였다.

험난한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초년생 통역사 시절에 내게 굶직한 번역 건을 함께할 기회를 많이 줬던 언니에게 은혜도 갚을 겸, 언니를 섭외했다. 마침 장 통역사도 그때 일정이 됐다. 행사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어느 날, 이 일을 소개해 준 에이전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다. “그 행사 통역 건 준비는 일단 홀드해 주세요. 지금 거기서 공식 언어를 한국어, 프랑스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미 확정되었던 통역 건도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님이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다.

“어차피 장 통역사는 프랑스어 통역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 통역사는 그대로 있고, 한불 통역사를 한 명 섭외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글썽 장통역

사가 ‘이번 건은 박소운 선생이 소개했던 건이니 도의상 프랑스로 진행 되더라도 자긴 빠지겠다.’네요.”

언니가 프랑스로 통역을 하게 되더라도, 그간 쌓아온 우정과 끈끈한 정이 있어서 딱히 섭섭했을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각자도생各自圖生’ 그 자체인 프리랜서의 세계 아닌가. 일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원칙을 고집하는 그녀다웠다.

결국 그 건은, 한국어-영어 통역으로 진행되는 걸로 마무리되어 언니와 내가 나란히 부스에 들어갔다. 12월, 가을 시즌이 저물어갈 무렵 입김을 호호 불며 행사 장소인 호텔 앞에서 언니와 만나 부스로 향하는 기분이 뿌듯했다.

해도 해도 완벽할 수 없는 통역, 번역인 걸 익히 안다. 그럼에도 딱 한번, 격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다. 업무 자체보다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더 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입증하려 할까. 알량한 경쟁심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아, 못하겠다. 좀 더 안정적이고 사람에 덜 치이는 일을 찾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장 통역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속을 잡아 나와 브런치를 했다. 만난 자리에선 주로 묵묵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그녀는 집에 돌아가 저녁때쯤,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정리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줬다.

1. 네가 받은 축복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가지길. 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

2. 즐거움뿐 아니라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렴. 어려운 상황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단다.

3. 저주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야. 누군가를 질투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걸 잘 참아준 소운이는 성숙한 사람이고 승자야.

사실 장유경 통역사는 유명 가수의 누나이기도 한데, 그녀는 내게 ‘짜구려 커피’를 사준 적도, 내가 털어놓는 말들에 ‘그건 니 생각이고’ 한 적도 없다. 10년 넘게 자기 시간을 내어 묵묵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함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동료이자 선배.

내가 힘들었던 그때, 언니가 내게 보낸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랬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기까지 읽은 내가 그녀에게 회신했다. “언니, 해석이 영어로 interpretation, 통역하고도 같잖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 통역인가 봐요.”

인생이 순하게 흐를 때, 알싸하게 매울 때 그걸 해석하는 건 우리 손에 달려있구나 깨닫는 한편, ‘아 우리 인생은 통역interpretation이라 하니 일을 관두겠다는 헛생각은 말아야겠다.’ 정리하며 ㅎㅎ 웃었던 기억이 참으로 귀하다.

일을 좋아하고, 인생을 사랑하며 정성껏 살아간다는 빈약한 공통점 하나로 모여 나를 가르쳐주고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바로 ‘여돕여’ 아닌가.

여적여와 여돕여 둘 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치고, 이왕이면 ‘여돕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은 원석을 깎아 반짝이는 보석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격식보다 중요한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통역은 뭐였나요?”

2019년 늦가을, 광양제철고 2학년 학생들과 ‘진로탐방을 위한 만남’의 자리에서 받은 질문이다. 굉장히 식상하지만 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오늘은 신약 개발 임상시험, 내일은 클라우드 기반 인사 솔루션, 또 언젠가는 블록체인, 디자인, 사모펀드, 매번 다른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나는 휘발성 메모리 기법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그때그때 빠르게 잊는다. 바로 삭제해버리지 않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저장할 공간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는 생활을 10년 하다 보니, 그리고 나쁜 일은 특히 빨리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용어나 업무상 기억해둬야 할 부분들은 따로 기록해두고, 머리에 남기지 않는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딱히 심오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질문을 받고 막상 머리에 떠오르는 건 ‘점심밥이 맛있었던 국제회의’ ‘회의장 전망이 끝내줬던 회의’ 정도였다.

그러나 먼 광양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진로에 대해 탐구해보는 자리라는 설명과 함께, 몇 달 전 재학생에게 조금은 뜬금 없이 SNS 메시지로 요청을 받았던 거였다.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그날엔 마침 통역 일정이 있어 저녁이나 시간이 될 거고, 무척 피곤

할 터였다. 그러나 나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과제로 장래희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라는 숙제를 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취했지만 여러 번 거절당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당시 내 꿈은 사학자였다). 한참 어린 학생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짧게나마 시간을 냈다. 이런 자리, 이런 질문에 걸맞은 멋진 기억은 대체 뭘까.

10년을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해 온 내 이력서는 A4용지 열 장이 훌쩍 넘는다. 머릿속으로 이력서를 착착 넘겨가며 이런저런 기억을 살려보려 애썼다. 마침내 내 기억을 뚫고 나온 건 초년생 통역사 시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모금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 사용자 트레이닝의 동시통역. 리시버를 타고 나의 통역이 들려오면 “어머, 어머, 어머!” 과장된 감탄과 함께 박수를 치시던 모습과, 소리가 떠올랐다.

동시통역을 처음 접한 콜센터 직원들은 대개 부업으로 콜센터 일을 하는 중년 아주머니들이었다. 유니세프 본부에서 교육을 위해 파견 온 직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정도의 인사말에 청중이 뜨겁게 반응하자 영문도 모르고 흐뭇해했다.

콜센터 직원들의 애정과 관심은 교육 기간 내내 그치지 않았다. 통역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동시통역 부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언니야, 우리 딸도 언니야처럼 크면 좋겠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고프지? 이거 먹고 해!” 인사와 함께 과자와 음료수를 사식 넣듯 잔뜩 넣어주시던 기억에 지금도 잔잔하게 웃게 된다.

이른바 ‘엔드유저’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는 자리였기에 통역이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

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전했는데도 늘 수고한다며 등을 두드려주고 귀여워해 주시니 잔뜩 긴장해있던 초년생 통역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 모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모금 건을 위해 여러 명이 분할해서 금액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 이걸 ‘십시일반+匙一飯’으로 통역했을 때 특히 반응이 뜨거웠다. “어쩜 통역하는 언니 덕에 이해가 속속 되네!” 하고, 부스와 가까운 청중석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역사에게 부스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곳. 게다가 치열한 통역대학원 입시와 대학원 생활, 그 사람의 바닥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혹독한 과정과 고난을 겪어내고서야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나름 영광의 자리다. 실제로 국제회의 통역 중에 부스 문이 열리면 ‘뭔가 큰 사건이 발생했구나.’ 직감하게 된다. 고객이 통역 퀄리티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음향 장비 등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밖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등등.

‘아’다르고 ‘어’다른 걸 공부로, 직업으로 계속해서 실감하다 보니 가뜩이나 격식,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 반말하는 걸 싫어한다. ‘통역하는 언니’ ‘언니야’ 하는 호칭도 여느 때 같으면 조금 언짢았을 터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지속된 교육 과정에서 들었던 반말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가슴이 덜컥 주저앉게 만들며 부스 문이 열렸던 일들도.

고2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통역 일과 직접 얽혀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둘째를 가지고 만삭이 가깝던 2017년 가을, 통역 일이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퇴근 시간이 아니라 자리가 있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붐볐다.

이미 첫째 임신했을 때 지하철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 노약자석에 앉았더니 혀를 끌끌 차며 “요즘 것들은 임신이 벼슬인 줄 안다니까”하던 성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거나. 그래서 둘째를 갖고는 좀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대략 15분, 조심해서 서서 가도 괜찮겠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내게 말을 거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야!”

할아버지는 이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야, 너 힘든데 여기 와서 앉아!”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마음이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자리에 앉고 싶은 것도 맞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 서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고 싶었다. ‘내가 편하자고, 아이가 편하자고.’가 아니라 안전하고 싶어서.

서슬이 퍼런 할아버지가 양보한 노약자석에 앉으니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자리를 양보해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임신하면 감정이 풍부해진다. 자꾸만 눈물이 나서 울먹울먹했다.

통역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온갖 미사여구가 들어간 연설문을 ‘블라블라성 연설’ ‘flowery한 연설’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꽃이 날리는 연설. 어떤 이들은 ‘이런 번지르르한 말, 글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하지만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펼쳐지는 화려한 수사학적 향연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매서운 크리틱(통역대학원 수업 중 다른 학생이 통역한 내용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오가는 통역대학원에서 그나마 자주 들었던 칭찬이 ‘레지스터register(언어역,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가 높다’는 평이었다. 사실 어려서부터 말을 아무지게,

예쁘게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다. 나 자신도 통역사로서 내 장점은 말을 유려하게 하는 거라 생각했고, 이 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걸 기대하게 된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인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엔 존대를 해야지.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되지. 하지만 살면서 나를 감동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일화는 모두 반말로 이루어졌다. 격식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구나.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장점인 유려한 표현을 갈고닦을 것이다. 자리의 격에 맞는 언어를 쓰는 통역사가 되어야 하니까. 한편으로는, 콜센터 아주머니들과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진심을 내가 헤아릴 수 있었듯,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통역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교架橋. 그게 통역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그리고 통역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는, 나 역시 진심을 나눌 줄 아는 이로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람 부자

“사파이어 기판 위에서 인화갈륨을 성장시켜서 청색 LED를 만들었다는 게 강연의 개요입니다. 그게 LED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고요.”

강연자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의 아버지’라고 했다. 빛의 삼원색 중 하나인 청색 LED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자, 비로소 먼저 발명되었던 적색, 녹색 LED와 함께 사용해 다양한 색깔의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진 흥미진진 재미있다. 그러나 컨퍼런스, 총회, 학술대회, 어떠한 국제행사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다룬다. 아니나 다를까, 강연의 통역 자료를 받아보니 요즘 말로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였다. 읽지도 못할 화학식과 이해 불가능한 그래프가 가득했다.

감사하게도 영어 강연을 맡은 교수가 사전 회의 자리를 가지고 기본 지식과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일본인이지만 UCSB(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 캠퍼스) 교수였고 영어가 능숙하셨다. 내용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회의 시작 직전이라도 좋으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라도 질문해도 좋다”라는 교수의 따뜻한 배려에 어쩐지 ‘믿는 구석’이 생긴 듯 든든해졌다.

벼락치기 과외를 받았어도 만만한 통역은 아니었다. 한 시간 좀 넘는 강연, 2인이 한 조가 되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니까 내가 강도 높게 일한 시

간은 길어야 40분 안팎. 그런데도 진땀을 뺐다.

강의가 끝나자 머리 위에 김이 나는 듯했다. 간신히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을 정도였다. 그때, 교수가 통역부스로 다가왔다. “오늘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고맙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일하는 순차통역(화자가 일정 단위의 발화를 끝낸 뒤에 이어서 통역하는 것)이면 모를까, 연단과 멀찍이 떨어진 부스에 와서 인사를 전하시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서인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교수의 이름이 보였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클릭해보니 그가 이번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우수수 떴다. 깜짝 놀라는 한편, 내 일처럼 기쁘고 직접 통역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영광이었다. 나의 공은 전혀 없는 일이지만,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일을 소개하며 ‘박소운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풀리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앞으로 기대해 봐.’하며 허풍을 떨기도 했다.

강연의 앞뒤로 따로 시간을 내서 통역사를 배려한 연사. 살짝 험렁한 정장 차림으로 일본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를 구사하는 친근한 인상의 일본인 교수.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교수에 대한 기억이다.

이로부터 약 2년 후. 이 날은 국내 한 의대 교수가 특정한 종류의 암에 대해 발표하면 한영 동시통역하는 차례가 있었다. 순서가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발표용 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의 몇 장엔 의대생 시절 프랑스 영화 감상의 추억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었다. 행사의 주최

측이 프랑스 기관이라, 프랑스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신 거였다.

가벼운 내용부터 통역하게 되니까 입은 제법 풀린다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도살장의 끝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기분이었다. 연사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통역은 제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동시통역사의 악몽 아닐까. 자료 없이 억지로 머리에 육여넣은 암 관련 용어들 몇 개로는 통역 밑천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암 연구 결과로 주제가 옮겨갔지만 통역이 생각보다 수월했다.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흥미를 유발하는 힘이 있었다.

얼마 후, 어떤 분인지 궁금해 성함으로 검색해보다가 재직 중인 의대에서도 말솜씨와 경청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라는 소개 글을 발견하고 미소지었다. 하도 입담이 좋으셔서 별명이 '구라'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 교수를 다시 한번 뵈 듯 반가웠다. '언변과 경청은 떼어놓을 수없이 같이 가는 구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다.

나는 타고난 호기심이 강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고 내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면모를 맛보는 게 너무 좋다. 그런 한편으로는 혼자 몸을 숨기고 고요하게 세상 사는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면, 저런 면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나를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라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조용하고 걸도는 타입이라고 본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어서 어느 한 쪽도 부정하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돕는 조력자 역할이 통역사 직업의 골자라고 보는데, 시쳇말로 ‘인싸’와 ‘아싸’ 성향을 모두 가진 내게 잘 맞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합을 맞춰 일하는 게 내게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또 매일 보는 동료가 아니기에 약간은 거리를 두며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음에 쏙 든다. 살면서 사람 욕심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역사 직업을 계속해 왔더니 어느덧 나름의 ‘사람 부자’가 되었다.

그 어떤 국제회의에서도, 통역사가 주인공은 아니다. 2005년작 영화 <인터프리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이 분한 주인공 통역사가 평화를 위해 UN에 합류했다고 말하자 영화의 악역, 경호 실장은 “미안하지만 당신 그냥 통역이나 하는 거요With respect, you only interpret.”라 대꾸했다.

실제로 통역 현장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진 이들을 꽤 많이 만났다. 굵직한 내용을 새로 연구해서 발굴하는 것도, 큰 행사를 직접 조직하고 틀을 짜는 것도 아니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통역하며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직업이다. 전문가의 입 역할을 하며 많이 배울 수 있다. 통역 준비를 위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또, 이미 어느 한 분야에서 일가—家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며 교훈을 얻는다. 한 명을 만나 하나씩만 배워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보니 통역은 참 남는 장사 같다.

나의 자리에서 있는 힘껏 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업사이드 다운Upside Down>. 2016년, 이 영화가 보스턴 국제영화제 인디스펙 다큐멘터리 부문에 초청됨에 따라 영문 자막이 필요해졌고 내가 도입부에 나오는 영문 문구를 제외한 발화의 한영 번역 작업을 했다.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과 내가 번역 작업에 참여한 2016년, 이 2년의 차이는 엄청났다. 사고 당시의 슬픔을 넘어 번역이 고통스러웠다. 그 사이에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가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억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를 사랑하며 흐뭇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들, 부모가 되어보니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스크립트가 따로 없어 오열하는 유가족 인터뷰 부분을 몇 번이고 돌려서 다시 보고 들으며 번역해야 했다. 통번역사는 무색무취, 감정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평소의 신념이 무너졌다. 울다가 번역하다가를 반복했다.

이 일을 왜 하겠다고 나섰을까 후회했지만,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붙잡아준 건 세월호 아이들이었다. 이때만큼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판에 박힌 말이 힘이 됐다. 내가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며.

영화는 재능기부와 펀딩으로 제작됐지만 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경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참 좋은 일하셨다”라는 반

응을 보이면 “통번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료를 받고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꼭 덧붙였다. 대가를 취하지 않고 봉사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당초 영화를 만든 김동빈 감독의 뜻이 그랬다. 출품을 위한 번역만큼은 전문 통번역사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길 바랐다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 뜨겁게 공감하고, 발 벗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사람들이 ‘아닌’ 전문 통역사가 이 작업에 손을 얹음으로써 더 나아지는 부분은 무엇일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 내가 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작업해야 할까. 그래서 보고 또 봐도 슬픈 장면 하나하나를 낱낱이 해부할 용기를 얻었다. 나의 번역은 자막이 되어 화면에 입혀지겠지만, 줄글로는 표현될 수 없는 ‘비꺾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같은 장면을 돌려 보며 표정의 변화, 목소리의 떨림까지 감지해보려 애썼다.

돌이켜보면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번역 작업이 매우 까다로운 작품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로 시작해 국회의원, 언론인 인터뷰, 그리고 배의 침몰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해 준 카이스트 해양공학과 교수진 등의 인터뷰를 교차해서 답는다.

정치인과 언론인 인터뷰 부분을 번역하면서는 그동안의 기사를 검색해 읽어보며 이 사람의 평소 신념을 찾아봤다. 번역하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이 ‘쓰인 듯’ 그가 할 법한 말을,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영어로 정확하게 옮기고자 했다.

이미 눈물을 한바탕 쏟으며 작업한 나를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공학적인 지식으로 배의 침몰을 분석하는 공대 교수진 인터뷰였다. 당연히, 공학적인 이론은 나부터 이해해야 번역이 정확하게 될 테니 공부를 따로 했다. 많이 울었던 작업이었지만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는 ‘본연의 나’로 돌아가 투덜거리기도 했다. “교수님들이야 평생을 두고 연구하셨을 테니 말씀이 술술 나오시겠지만, 나는 이게 무슨 고생이람.”

한 작품 내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여러 작품을 동시에 번역하는 양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를 울린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저마다 성품이, 말투가 달랐다. 자막을 읽으며 영화를 감상할 영어권 관객들도,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모두 느낄 수 있기를. 내 기억이 맞는다면 번역 작업에 일주일이 좀 넘게 걸렸는데, 매일같이 일정한 분량을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감정에 벅차서, 어떤 날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고는 전문적인 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총 작업량이 고작 몇 분인 날도 많았다. 암만 눈물을 쏟으며 작업했어도 이걸 나의 일이니까. 감독이 애초 내게 이 일을 맡긴 까닭도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전문 통번역사가 작업해서 결과물이 아주 확실하다’는 평이 나오게 해보겠다는 각오로 작업했다.

번역 작업을 끝내고 얼마 후 참사 2주년에 맞춰 영화의 VIP 시사회가 있었고 나도 번역자로서 초대되었다. 그 당시 나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대기업의 통번역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의 시사회장으로 가는데 두 시간 정도 걸렸다. 밖이 어둑해져 있었다.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과 영화관 앞에서 합류했다. 조금이나마 내가

참여했던 일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싶어 같이 봐달라고 부탁했던 거였다.

상영관에 불이 꺼졌다. 생각보다는 울지 않았다. 객석에 앉아서 보니 번역을 하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약간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동안은 ‘사건’으로 이 필름을 받아들였다면,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쏘아지는 작품은 비로소 ‘영화’로 보였다. 시사회에서는 자막이 나오지 않는 국내용 필름을 보여줬는데 상영 시간 동안 ‘그런데 이 부분 내가 어떻게 번역했더라?’하고 드문드문 일 생각을 했다.

두 시간 안팎, 시사회가 끝났다. 사고의 비극성을 강조하면서도 영화의 전체적인 작품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감독의 몫이었듯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도 통번역사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어를 고르고 표현을 정제했던 값진 경험이었다. 보스턴 영화제 초청을 받았던 영화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상영회를 가졌다. 부족한 점이 많은 번역 실력이지만, 내가 번역한 한 줄 한 줄이 자막이 되어 영상에 입혀지고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벅차올랐다. 부디 한국어만큼의 울림이 있길 간절히 기도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힘껏 사는 것, 저마다의 사명을 충실히 따르는 것도 단순한 ‘먹고사니즘’이 아니라 미약한 존재가 나름의 힘을 세상에 보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촌스럽고 어수룩한 생각 같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또 한차례의 봄을 살아간다.

관광 가이드 아니고 통역사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통역사 직업을 택한 후, 이 말을 수없이 해야 했다. 대개의 경우 곤란한 미소와 함께. 언어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통역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었다.

추석 때 가족모임에서 “넌 공부 잘한다고 부모가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관광 가이드가 되었냐”라는 친척 어른에게 통역사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고 암만 설명해 봤자 소용없더라는 업계 후배도 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통역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치게 할 정도로 날카로운 크리틱(critique, 통역 수업 중 발표자의 통역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무너지도록 훈련하는 긴 시간이다. 이걸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통역 현장에 갈 ‘자격’을 얻는 셈이다.

나는 통역대학원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때, “누구나 자신의 인성 그 밑바닥을 보이게 되는 곳”이라고 농담 섞어 얘기하곤 한다. 그만큼 힘들었다. 그리고 힘들었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내가 그걸 견뎠다, 해냈다.’는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통역 현장에 받을 디디며 또 다른 험난한 여정이 펼쳐진다.

통역 수업은 주로 환경, 외교, 북핵 문제, IT, 금융, 매주 주제를 정해 그 주제 ‘연사’를 맡은 학생이 관련된 연설문을 찾아와 읽으면, 이를 통역

하고 크리티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업 때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주제로 회의가 열린다. 막연하게 ‘의학’이 아니라 항응고제 임상시험, 폐구균 백신, HCChepatocellular carcinoma(간세포암종)를 주제로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 회의가 열리는데, 분야의 소수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를 말로 낱말이 옮기자니 공부, 또 공부 필요하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악착을 떨며 공부하고, 배경지식을 공부하기 위해 주변 인맥을 열심히 동원해도, 그 분야에 몸을 던져 평생을 바친 이들의 귀와 입이 되기엔 끝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통역 일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과 공허함이 함께 밀려온다.

그런데 통역사가 곧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통역사인 줄 아는 이들도 종종 있다. 병원 통역사, 의료 통역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병원에서 주로 진료 시에 배석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소통을 돕는다. 한국어와 외국어를 오가며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은 똑같지만 국제회의 통역사들의 활동 무대는 대개 병원 밖이다. 국제회의 통역사는 의학을, 병원 통역사는 의료를 통역한다는 말도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있다.

몇 년 전, 임신해서 산부인과에 다니며 병원 통역사를 직접 보게 되었다. 병원 건물에는 베트남어 통역 인력이 상주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솔직히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병원 상근 통역사’라는 표현을 읽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던 것도 같다. ‘현수막을 본 사람들은 또 나의 직업을 오해하겠지...’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내게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느냐 물어온 사람도 있었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대규모 공단이 있어서, 그곳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듯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 임신부를 위해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터다. 주로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병원 통역사 일을 한다고 들었다.

사실 산부인과가 항상 마음 편한 곳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병원에 갈 때마다 뱃속의 아이를 만나러 간다는 기대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교차한다. ‘엄마 마음이 편한 게 아이에게 제일 좋다’지만 ‘유산,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의 안정은커녕 털썩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내 나라말로 들어도 늘 무섭고 긴장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예 못 알아들을 때보다, 언뜻언뜻 이해되는 단어로 전체 내용을 가늠하려 할 때 불안감은 증폭된다.

병원에서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까, 긴 생머리에 얼굴이 말간 임신부가 울음을 터뜨리며 진료실에서 뛰쳐나왔다. 이어서 병원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따라 나와서 뭐라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었다. 성조에 얽힌 나긋나긋한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병원에 근무하는 베트남어 통역사겠구나 짐작했다.

외모가 한국인같이 보이는 남편이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으로 묵묵하게 옆에 서 있었고, 베트남어 통역사가 임신한 여성의 손을 잡고 뭐라 뭐라 말해주었다. 그러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아예 안아주는 걸 봤다. 옛된 엄마의 들썩이던 어깨가 차츰 잠잠해졌다.

이 날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 무사히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진료 대기 장소에서 마주했던 이 장면은 또한 그간 해온 생각을 되돌아보게 했다.

통역, 번역이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힘겹게 배우고, 가까스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잘 모르는 이들이 ‘영어는 다들 할 수 있는 기본’이라거나 ‘이제는 AI(인공지능)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말을 해도 사람과 사람 간 소통의 간극을 메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가 있었기에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 외국어 실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금의 IT 기술로는 온전히 닿을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말의 세계.

그러나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몸짓이나 표정 등을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통역사가 일을 수행하며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는 숭고한 순간을 병원에서 목도했다. 정장을 갖춰 입고 엄숙하게 앉아서 하는 통역만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건 아닌지 깊이 반성했다.

통역에는, 소통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사람의 의중과 진심을 헤아리고 그만큼 전할 수 있는 깊이만이 존재한다. 어려운 공부에 뒤따른 노력과 자부심에 비례해 마음속에 쌓였을 편견과 고정관념, 오만함을 걷어내려 한다.

통역을 하며 우리나라를 배우다

“한강에 교각이 모두 몇 개나 되지요?”

회의 시작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외국인 연사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내 살아왔지만 한강 다리를 세어본 적은 없다. 살짝 당황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일단 답을 해드렸다. 행사가 시작해 그의 축사를 들으며 질문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공항에서 이곳 호텔로 오면서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건 아름다운 한강과 강남 강북을 이어주는 교각이었습니다. 한강을 이어주는 삼십여 개의 교각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행사 장소로 이동 중에 본 한강과 시원 시원한 교각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행사가 끝난 후엔, 귀국하시기 전에 꼭 한강의 야경을 즐기시라고 추천했다. 이렇듯 외국 의뢰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알리기 위해 소소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꽤나 즐거우면서 자긍심을 심어준다. 친한 한불 통역사 중에 통역을 갈 때엔 한글 프린트가 된 스카프를 선호하고, 국산 브랜드 가방과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분이 있다. 의뢰인이 혹시나 궁금해하면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기 좋아서 어색함을 깨기 위한 대화ice-breaking 소재로도 좋고, 매일같이 외국인을 만나서 일하는 게 한국을 알릴 기회라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난 오히려 상대방 국가와 관련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쪽이었다. 터키인과 일할 기회가 생기면 터키 이즈니크Iznik(푸른 문양이 아름다운 타일을 생산하는 터키의 도시) 타일 문양이 프린트된 실크 스카프를 하고 가는 식이었다. 그러면 의뢰인들도 무척 반가워하기도 하고, 나를 더 친밀하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나도 요즘은, 한국적인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일이 잦다. 통역 그 자체에 대해서 샅샅이 준비하는 한편, 외국인 발표자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도 대답을 잘 해드리려면,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맛집,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어려우면서도 뿌듯한 경험이다. 비교적 딱딱한 분야의 통번역 일을 해온 내게, 글의 맛 그 자체를 옮기는 일이 낯설면서도,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멋을 부릴 수 있어 재미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맛집과 음식을 소개받게 될 전 세계 독자들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글과 사진으로 우리나라 미식을 소개한 작가를 생각하며 기쁘게 작업한다.

그런데 문제는, 식재료를 번역할 때다. 우리나라 음식 재료인 ‘표고버섯’을 꼭 일본어에서 가져온 영문명인 ‘shiitake mushroom’으로 번역해야 할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한 번씩 고민하게 된다.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쓴 일반 명사로서의 china는 자기瓷器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고 japan은 철기를 뜻하는데 코리아라는 단어는 없다는 점도 사뭇 섭섭하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할만한 상품이나 이미지가 없었던 것일까.

때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고 많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나라군요. 남녀가 함께 식사하지 않을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동갑내기 유럽인이 한 말이었다. 일여덟 명의 통역사가 투입된 프로젝트였다. 전우애를 다지는 즐거운 점심시간, 여성 통역사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걸 본 모양이었다. 원래 통번역 업계가 여초 업계다.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통역사는 모두 여성이었다. 통역사들끼리 편하게 식사하러 나가는 것뿐이었는데, 그의 눈에는 다르게 읽혔다.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이웃나라인 한국 프로젝트에 자원했다던 그는 마치 다 알겠다는 양 의기양양하게 한국을 진단했다. 뷔페식 만찬에서도 스시 코너에서 고추냉이를 이만큼 집어 와서는 “I love wasabi!”를 외치며 맛있게 먹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평가는 유독 박했다.

변화가에서 본 서울 여성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피부를 하얗게 칠하는 화장을 한다며 “우리 백인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아 여성들은 그들 고유의 미가 있다”라고 말했던 나이 지긋한 미국인 여성 의뢰인. 한국에서는 백인을 본 적도 없던 수백 년 전부터 ‘밖에서 험한 일을 하지 않는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백옥 같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던 것을 길게 설명해 줬다.

몇몇 외국인들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쩐지 포카혼타스를 연상시키는, 다듬어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흰 피부야 그렇다치고, 큰 눈을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서구적인 미의 기준의 영향을 받은 게 맞겠지만, 거기 대고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워”하며 가르침을 주려는 태도에는 어쩐지 우월감이 묻어 나온다.

‘Translators, traitors!’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통상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이 말은 원래 이탈리아 속담에서 유래했는데 원어인 이탈리아어로도 ‘traduttore, traditore(트라두토레, 트라디토레)’라 하니, 신기하게도 세 개 언어에서 모두 운율이 들어맞아 입에 잘 붙는다. 문화적 격차로 인해 완벽한 번역, 또는 통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지만 이 말이 비유가 아닌, 세상이 통역사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로 느껴질 때가 있다.

실제로도 근대에 다른 이들보다 앞서 외국 문물과 언어를 접하고 통역사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들은 친일, 친미주의자로 변질되기도 했다. 에스파냐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통역사였으며 그와의 사이에서 최초로 혼혈 메스티소Mestizo를 낳은 말린체Malinche 또한 멕시코 메스티소의 어머니이자 에스파냐 정복자에게 협력하며 나라를 망하게 한 악녀로 평가가 엇갈린다.

나라 팔아먹을 악인으로 보일 리는 결코 없겠지만 나도 영어를 쓰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외국 물 좀 먹어본, 외국을 추종할 것이 뻔한 사람으로 오해받곤 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일의 현장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통역사의 몫이다. 케이팝K-pop, 케이뷰티K-beauty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지만 아직도 ‘동아시아=중국+일본’ 공식이 남아 있구나 싶을 때가 많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능한 업무 일정을 조율하는 회의 통역을 들어가서, Chinese New Year(중국 설, 중국에서는 춘절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영어권 고객에게 Lunar New Year(음력 설)이라고 통역해 주기를 계속했더니 회의 후 “생각

해보니 한국에서도 설 연휴를 쇠니 음력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겠다. 부주의해서 미안하다.”라고 가볍게 사과해온 일도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한국에 대한 편견에 몹소 부딪히고 맞서며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통번역사들, 반역자가 아니라 나름의 애국자 아닐까.

TIP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피봇pivot’이란 중심축을 뜻하는 영어 단어다. 그런데 통역에서 말하는 피봇이란 릴레이relay 통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통역사, 통역 언어를 뜻한다. 그렇다면 릴레이 통역은 뭘까.

‘릴레이 통역’이란 말 그대로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지는 통역이다. 회의의 공식 언어가 한국어, 영어 둘뿐이라면 릴레이 통역을 할 일이 없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이 릴레이 통역을 진행하게 된다. 이중 통역이라고도 하는데, 릴레이 통역을 하는 회의의 경우 언어별로 부스가 여러 개 세워진다.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가 한국, 프랑스, 중국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 영어 연설은 1차적으로 한영 통역사들의 입을 통해 한국어로 동시통역된다. 그러면 한국어로 통역되는 내용을 듣고 ‘프랑스어 부스’에 있던 한불 통역사는 프랑스어로, ‘중국어 부스’의 한중 통역사는 중국어로 2차적인 통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이중 통역 과정이 연사의 입에서 발화가 나오며 몇 초 차이도 없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니 새삼 놀랍다).



피봇의 역할을 하면 일단, 부담스럽다. 실력과 노련함을 갖추고 탄탄하고 묵직하게 통역이 나와 줘야 다른 언어 부스에서도 받아서 통역하기가 편할 텐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어린 연차 때는 릴레이 통역을 하는 국제회의장에 가는 게 무척 설레기도 했었다. 회의장에 늘어서 있는 몇 개의 부스, 부스마다 ENG(영어), FR(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언어가 표시된 모습. 내가 통역을 하는 파트가 아니라면 잠시 헤드폰을 벗어두고 연사가 구사하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들을 수도 있는데, 마치 ‘부스 안 세계여행’이라도 할 듯 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내가 제대로 해서 다른 부스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이 피봇의 생존 전략임을. 실제로 피봇 역할이었는데 유독 통역이 꼬인 날이면 회의 끝나고 어김없이 다른 부스문을 두드리게 된다. “아까 피봇 통역한 게 저였는데요,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리고 한 번은, 이 피봇 통역으로 인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사람이 싫어지고 슬럼프가 왔었다. 그날은 한영 통역사 2인 1조, 한일 통역사 2인 1조가 투입되는 릴레이 통역이었다. 전에

만난 적 없는 한영 통역 파트너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받게 되어 소통을 하며 각자 통역할 파트를 나누고 준비했다.

일본인 연사가 발표할 부분의 발표 자료는 일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나는 일본어를 할 줄 모르니 신경이 쓰였지만 일본어 통역사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당일에 미리 가서 내용을 여쭙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제회의 당일, 장소에 가서 처음 만난 파트너에게 인사를 하자 그녀가 말했다.

“박소운 선생이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 일추 번역한 자료 교환해서 릴레이 통역 들어갈 부분 준비했어요.”

그 말은, 파트너가 맡은 일-한-영 릴레이 통역 부분 자료는 일본어 통역사들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해서 파트너에게 보냈고 또 파트너가 피봇 역할을 하는 영-한-일 통역 부분 자료도 그녀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일본어 통역사들에게 보냈다는 거였다.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교환이 없었다.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같은 학교 동문에 원래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듯했다. 그렇지만 파트너 통역사는 내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서로 미리 자료를 번역해서 교환하는 이 친절하고도 동지에 넘치는 일에 나를 왜 끼워주지 않았을까. 알려주지 않을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지 왜 부스에 막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랬단다.’ 통보를 해줬을까. 많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일이 생긴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은 과연 파트너가 일본어 통역사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박소운 선생은 번역해 주지 않고 혼자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아예 솔직

하게 박 선생 따돌리고 우리끼리만 끈끈한 동지에 뽐내보자고 제안한 걸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내가 밋보였을 일도 없는데 뭘 위해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을까? 일단 중요한 건, 그걸 통역 당일 부스 안에서 생각하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해 난, ‘말렸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건 간에 뻔뻔하고 대차게 통역했어야 하는데 불편하고 긴장하고 화가 났다. 통역이 ‘울퉁불퉁’ 나왔다.

그날 통역이 끝나고, 한동안은 인간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구 하나 골탕 먹이고 통역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들이 돈보이면 얻는 게 대체 뭐길래? 고객센터에서 일을 많이 줄까 봐? 아니면 그저 나만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니까 재미삼아 텃세 부려본 걸지도 모르겠다. 암만 각자도생 프리랜서의 세계라고 해도 이건 기본도 안된 것 아닌가. 통역사로 살려면 이런 이들과 계속해서 엮여야 하나. 일도 사람도 싫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날 분위기가 이랬다는 걸 미리 알리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일을 처음에 소개해 준 업계 선배에게 얘기를 했다. 그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에, 선배도 화가 많이 나서 행사를 주최한 회사에 알렸다고 한다.

“소운 씨, 그 회사에서도 ‘남의 회사 행사에 와서 통역을 하면 일이 잘 되도록 생각을 해야 맞지, 망칠 궁리나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시네. 그쪽 회사에서도 그날 행사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났으니 마음 쓰지 말라 하시니 빨리 잊어요.”

그때 나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일단 대선배도 ‘세상 어디에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냐’며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풀렸다. 이 업계에 정정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남을 깔아뭉개가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마치 막힌 세면대에 물이 빠지듯, 티 안 나게 서서히, 마음이 회복되었다. 통역 업계에는 좋은 선후배가 많다는 걸 다시금 새기면서, 한편으론 또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는다는 법 없으니 ‘멘탈’을 더욱 강하게 다지고 연마하겠다 결심했다.

일단, 복기. 그날 통역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며 내가 뭘 못했는지 정리했다. 역시나 제일 큰 실책은 멘탈이 흔들렸다는 건데, 그 밖의 실력 그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살이 찾으려 했다.

물론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날의 일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복기를 하면서도, 과거에 연연하고 곱씹지 않는 것. 그걸 훈련하는 셈 치자. 이때의 경험을 통해, 고맙게도 난 복기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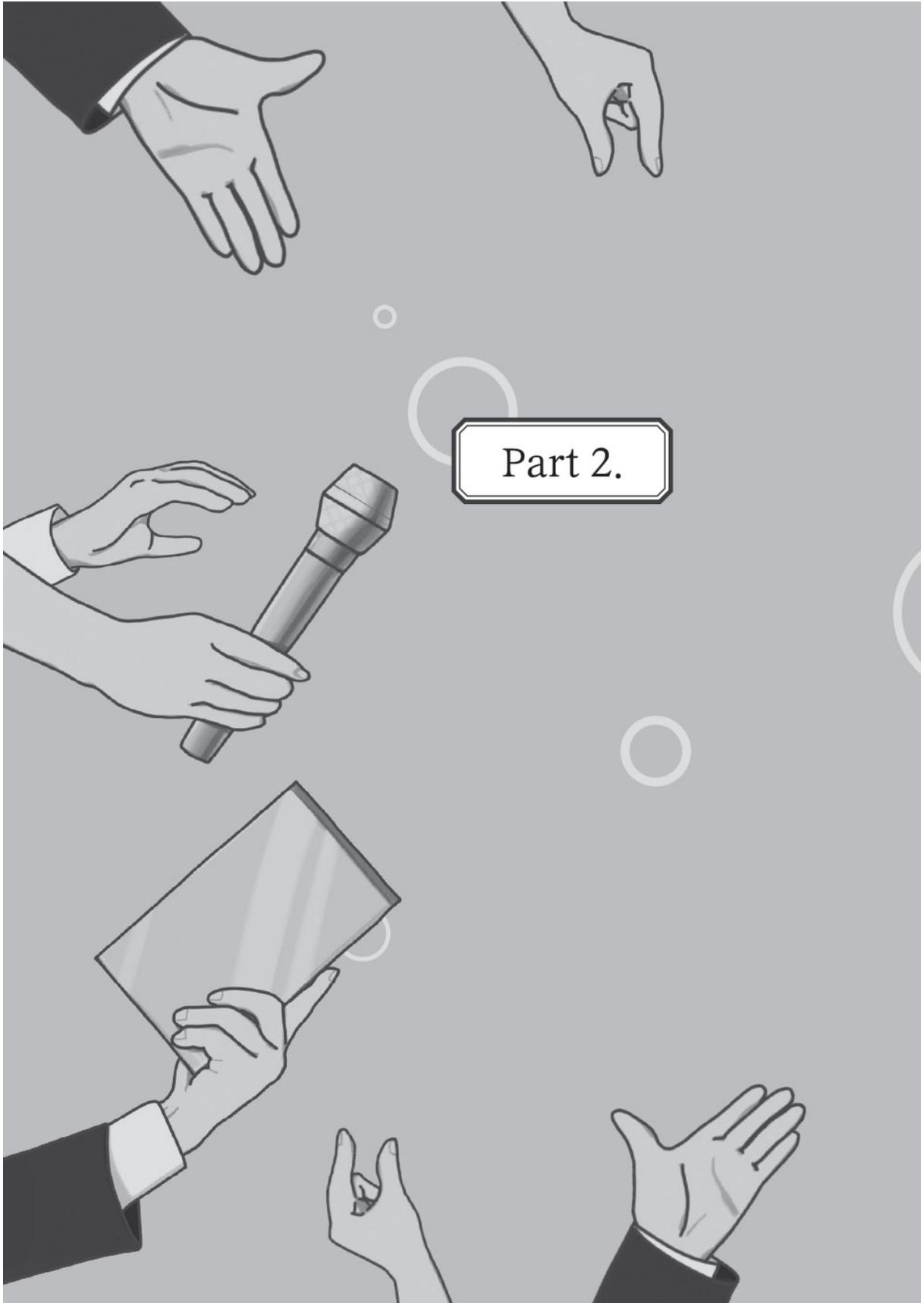
또 하나, 그 일 직후에 들어온 통역 건이 대형 박람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세미나 동시통역이었는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통역 장소인 세미나실은 박람회장의 한편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 가려면 박람회장을 크게 가로질러야 했는데, 행사장의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내게 힘을 줬다.

우울할 때 새벽시장에 가서 열심히 사는 이들을 보면 힘이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의 경우 박람회장의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통역대학원 졸업 후 몇 년이 지난 전문 통역사가 박람회 부스에서 바이어 상담 등의 실무 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세미나 통역 장소로 향하며, 난 박람회 부스에서 통역 아르바이트하던 재학생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때의 통역도 처음 만난 파트너와 함께했지만, 같이 일하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친해져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든든한 동료와 함께 마지막 파트까지 무사히 통역을 마치며 내가 이 일을 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얻고 있구나 실감했다. 행사는 잘 끝났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게 되고, 일에서 얻은 스트레스는 일을 하며 푼다. 일을 하며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순 없으니 늘 마음에 새긴다.



Part 2.



말과 글을
직업으로 삼아

‘영어완전정복’이란 없다

90년대 초, 주말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게 흔한 풍경이던 시절이다. 평소대로 TV를 보고 있는데 MC가 영화 <부시맨>의 주연 배우가 멀리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방문해, 무대 위로 모신다고 했다. 영화배우의 등장엔 이어 몇 명의 통역사가 따라 나왔다. 무대 위가 금방 짝 찼다.

그가 속한 부족의 언어를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통역하고, 그걸 또 영어로, 이어서 한국어로 통역해서 MC에게 전달했던 것 같다. 당시 열 살 짜리에게는 인터뷰 내용보다도 줄줄이 이어서 몇 개의 언어를 들려주는 광경이 흥미로웠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통역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때로 기억한다.

세월이 흘러, 통역 현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요즘은 베트남어 통역 수요가 높지만 전에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어-영어 통역사와 함께 출장을 와서 일종의 중역重譯 과정을 거쳤다.

10년 전쯤 베트남 통역사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 베트남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어디에선가 뭔가 살짝 바뀌거나 누락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옮겨질 때에는 아

에 틀려지면 어쩌나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난다. 어쨌거나 이 경우에도 영어가 서로 다른 언어의 사이를 이어주는 접합부 역할을 했다.

해도 해도 ‘완전정복’이란 없는 영어를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일종의 형벌을 달게 받고 있는 시시포스Sisyphus(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바위가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된다) 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영어의 쓸모와 인상이 바로 이렇다. 다른 언어들보다 문법 구조가 제법 단순하고, 살짝 투박하지만 튼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한영 통역사 일을 하며, 영어권 연사를 만나는 경우는 체감 상 절반도 안 된다. 북유럽, 중부 유럽, 동남아, 서남아, 중동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일해 왔다. “인도 억양은 알아듣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흔하게 듣지만 악센트, 즉 억양은 대개 화자의 모어母語에 기반을 두어 생긴다. 내가 만난 인도인 고객들이 말할 때면 힌디어, 타밀어, 우르두어 등 저마다의 모어에 따라 다른 억양이 묻어났다.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인도 남부 사람들의 억양이 조금 더 알아듣기 힘들었다. 인도의 경우, 자신들만의 고유한 표현과 단어를 더해 영어를 개성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인상 또한 받았다.

예전 금융 관련 회의를 순차통역하는 자리였다. 인도인 전문가의 발표 도중 ‘크롤crore’이라는 말이 나왔다. 숫자가 난무하는 금융·재무 분야 회의, 한껏 긴장해서 듣다가 순간 당황했다. 이를 어쩌나.

놀랍게도 찰나의 순간, 먼 옛날 가볍게 외우고 넘어갔던 이 단어의 뜻, ‘인도의 숫자 단위로 천만(10,000,000)’이 머리 저 안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었다. 마치 시력검사를 할 때, 뿌옇게 보이던 그림이 조금씩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 잘 보이듯이. ‘인도식 영어 표현’이 재미있어서 한번 눈여겨보고 넘어갔던 단어가 한 가없는 통역사를 살렸다.

이건 또 어떤가. IP가 무슨 뜻인지 질문을 던진다면, 특히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라 답할 것이고 제약 임상시험 일을 하는 이들은 ‘임상시험용 의약품Investigational Product’이라 할 것이다. 제약 임상 분야에서 말하는 protocol은 의전도, 의정서도 아닌 ‘임상시험계획서(대부분의 경우 영단어 그대로 ‘프로토콜’이라 옮기면 된다)’, administration은 행정도 경영도 아닌 ‘투여, 투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SAP라 하면 대부분 ERP 소프트웨어 제품을 떠올리지만 고흡수성 수지superabsorbent polymer의 약자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분야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통역사의 발목을 잡는 건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쯤에 외웠을 법한 흔한 단어가, 어느 순간 다른 얼굴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의 스릴이 두렵기보다는 짜릿하고 재미있다.

그렇다면 같은 분야 일을 하는 ‘네이티브’끼리는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어느 보험사의 각 지사에서 출장 온 호주, 미국, 영국인의 직원 대상 강의를 통역한 적이 있었다. 강사들 간에도 아까 그 단어 무슨 뜻이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다며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하고 조율했다. 세 명 모두 영어권 출신에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도 서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새로

왔다. 과연 영어는 어느 나라의 말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덧붙여, 과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소통을 해도, 쓰는 언어는 사실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평소 IT 통역을 통역사로서 나의 ‘친정’이라 표현하곤 한다. 초년생 시절을 주로 IT 통역에서 깨지고 배우며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편도 IT 프로젝트에서 만났다(그러면 IT 통역이 친정이 아니라 ‘시댁’일지도 모르겠다).

IT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몇 주에서 몇 달간 출퇴근하며 통번역 업무를 하게 되어 IT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사실 IT 프로젝트에서 실무자들이 쓰는 표현들은, IT 국제회의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말이라기엔 결이 좀 달랐다.

프로젝트보다는 국제회의에 주력하고 있는 요즘, IT 컨퍼런스에서 동시통역을 하게 되면, 발표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만 머리에 잔뜩 떠다니는 표현들 중에 자리와 청중에 맞는 격조 있는 표현을 걸러내기 위해 애를 쓴다.

데이터를 ‘홀리고’ ‘태우는’, 프로젝트에서 펄떡펄떡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표현을 국제회의 상황에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설령, 특정 분야의 은어jargon를 사용하면 그 분야 전문가들인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격조 있는 언어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자리이다.

초등학생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윌피키드Diary of a Wimpy Kid》 시리즈의 작가 제프 키니Jeff Kinney 방한 당시 통역을 맡았었다. 각종 매체 기

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을 주제로 한 서울시 교육청 주최연 교육감과의 대담, 어린이 독자들과의 팬 미팅까지 다양한 세팅을 모두 통역해볼 수 있어 너무나 즐겁고 다채로웠던 경험이었다.

제프 키니와 함께 이틀간 빼곡한 방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주제는 결국 ‘읽피키드 시리즈’ 하나였는데도, 행사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무척 달랐다. 초반의 기자회견이나 교육감과의 대담에서는 평소 통역하던 스타일에 가깝게, 정제된 언어를 쓰면 됐지만 마지막 일정이었던 서울 소재 사립 초등학교 ‘팬 미팅’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청중의 이해도를 고려해 같은 말도 좀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해야 했다.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억양 자체가 달랐다. “여러분, 오늘 제프 키니 아저씨 만날 준비됐나요?” “(초등학생 일동)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까지 맡게 되며, 나의 기분도 한껏 밝아졌던 기억이 난다. 이 역시 청중에 따라 다른 말을 실컷 써볼 수 있어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실제로 통역 현장에서 영어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다채로운 얼굴은 현란한 변주곡을 듣는 만큼이나 매력적이다. 나는 ‘언어에 뛰어난 사람은 애초 못 되고 그저 말과 글을 좋아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영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 사이로 끊임없이 던져질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소통의 한끗 차이

“그럼 이 멘트는 ‘한글’로 말할까요?”

내가 통역하러 간 어느 국제회의에서 개막식 MC를 맡은, 자신을 무려 아나운서라 소개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무대와 최소 20미터는 떨어진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서 이 말을 듣는데, “아, 지금 ‘한국어’ 말씀이시죠?” 하고 싶어 목이 간질간질했다.

거의 유행어 수준이다. ‘한국어’라고 말해야 할 때 ‘한글’이라 말하는 경우. 통역사와 기자, 말과 글로 먹고사는 길만 걷고 있는 내가 사실 더 잘 안다. 그 누구의 언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제 영어/한국어가 완벽하지 못해요~”하면 클라이언트가 기겁하며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지만, 언어라는 게 원래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견디기 힘든 사례들이 있다.

“주말에 그냥 ‘하릴없이’ 놀았지. 잠도 한 열두 시간 잤을걸?”

자주 있다. ‘하릴없이=할 일 없이’로 쓴 표현. 하릴없이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라는 뜻의 부사다. 90년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속, 머리가 흘랑 까진 여치가 등장하는 우화에도 이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단원의 막이 시작됩니다.”

번역 검수를 하며 발견했던 문장이다. 막幕은 말 그대로 curtain, 막이 올라야 자연스럽다. 반대로 끝났을 땐 ‘막이 내린다’. 왜 굳이 몇 부린 표현을 써서 틀린 말을 만드는지. 그것도 통번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왜 이럴까 생각했다가, 나라고 틀릴 때가 없을까 싶어 어쩐지 움찔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어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언어를 ‘완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마치 아이 둘을 키우는 기분으로 어느 한 쪽도 소홀하지 않게 다듬고 가꾸고 있다. 아무래도 모국어인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신경 쓰인다. 번역을 하면서는 찾아보고 확인해 가며 하면 되지만, 통역 상황에서는 순간의 판단력이 중요하니 가급적 멋진 표현을 쓰지 않고 담백하게, 문법을 틀리거나 의미가 모호하지 않게 가는 편으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통역사로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를 좌우명처럼 새기며 디테일에 집착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너그럽고 대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둘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 사이좋게 끌어나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지만 개인으로서도 세세한 디테일에 감동하고 실망한다.

어느 주말, 집에서 멀지 않은 쇼핑몰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찾았다. 서빙 직원이 테이블을 세팅해 주는데, 플라스틱 컵이 놓였다. 프랜차이즈가 되기 전에는 분명 묵직하고 두툼한 유리컵이었는데. 어쩐지 레스토랑의 몸집을 불리며 품격은 떨어진 느낌이라 섭섭했다.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셔도 당연히 ‘물은 물이다’.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명품 가방 샀을 때 비닐봉지에 넣어주진 않는다.

고맙게도, 언제부터인가 ‘한끗 차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영어로도 비슷한 말이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

에 있다는데. 디테일 집착이 심한 내겐 어쩐지 면죄부같이 느껴져서 좋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싶어 외롭지도 않다.

몇 년 전 일이다. 클라우드 관련 IT 회의의 순차통역을 하러 갔더니, 한국 측 고객사 부장의 첫 마디.

“우리 직원들 모두 이 분야 전문가라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한국어로 하는 말만 영어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수년간 한국어-영어 통역사로 일하며 자주 부딪힌 상황이라 새로울 건 없었지만 통역사가 전문분야를 잘 통역할 수 없을 거란 확신이 묻어나는 말에 다소 불편해졌다. 게다가 대화 일부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통역하는 게 더 어렵다. 통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되는 데까지는 있는 힘껏 해볼 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의에 임했다.

그런데 어찌 조용했다. 미국 측 파트너의 일방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어떠한 메아리도, 추임새도 없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문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

“As you know, our cloud system is a metered system that…”

회의 도중, 미국 측 파트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 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왜 클라우드 시스템이 중요하다matter는 얘길 계속하는 건질 모르겠는데?” 질문했다. ‘택시 미터기’할 때 그 meter, 즉 ‘과금metered 클라우드’는 회의의 중요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스템mattered system’쯤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

고객이 언짢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 meter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금 체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도 마음 한편이 찝찝한 회의였다가 단어 하나로 시원 상쾌하게 이해가 되자 비로소 이 분,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거두고 크게 기뻐하셨다. “전문가가 역시 다르시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때부터 한국 직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통역사한테 내용 확인해보고 진행하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하아, 오늘도 이렇게 임무 완수. ‘밥값은 하고 갑니다.’ 속되게도 생각했다.

전 국민이 배우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에 굳이 통역사가 필요한 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부분, 그 ‘한 곳’의 이해를 명확하게 돕고 대화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영어 실력뿐 아니라 회의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고객을 위해 듣기 좋은 발음과 발성, 어조로 통역하는 것까지 소통의 다양한 요소를 갈고닦는다.

우리말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통通하고 있는가.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입증하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이런저런 시험 점수는 한껏 올려놓았을지 몰라도 소통력疏通力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소한 한 부분을 대충 넘겨짚어 들었다가 치명적인 오해로 이어진다. 불화가 생긴다. 큰일이 성사를 앞두고 결렬된다. 단어 해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미묘한 어조의 차이에도 의미가 달라진다. 마음에 담은 말과 내뱉는 말이 다를 때, 이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낭패를 본다.

그뿐 아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고압적인 고객일수록, 헤아리려 애를 쓰고 경청하면 오히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더 많이 쏟아냈고 통역사를 신뢰했다. 뽕뽕 싸맨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꼭해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한 곳을 위해 귀를 기울여보려 매일같이 다짐한다. 통역사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 문화 간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이지만 나는 언어와 상관없이 소통 그 자체를 돕는, 사람과 사람 간을 잇는 가교를 놓고 싶다. 정말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영어에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지만, 한국 사람인 나는 진심에 한 곳이 있다고 믿는다.

통역사는 때로 스티브 잡스가 원망스럽다

최소한의 텍스트와 간단한 이미지. 도표나 자잘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가는 색깔도 무채색 위주의 몇 가지 색으로 줄인다. 대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만한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다. 자료의 세련미와 청중의 집중,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프레젠테이션의 대가, 스티브 잡스의 발표 비결로 꼽히는 이야기다.

반면, 도표, 설명, 문장이 구구절절 들어간 발표 자료를 보통 ‘한국식이야’ ‘촌스럽다’고 말한다. 다양한 나라, 기관에서 준비한 영문, 국문 자료를 접해봤는데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는 꼭 한국 자료가 글자 수가 많고 촌스러운지 잘 모르겠다. 주제에 따라, 작성자에 따라 많이 달랐다.

그런데 ‘어떤 통역이 제일 어려우세요?’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이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세련된’ 발표 자료를 떠올리게 된다.

어떤 통역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지에 대한 답은 어느 한 분야로 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교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영-한 통역에서는, 그러니까 연사가 영어로 말하면 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에는, 키워드만 몇 개 들어간 단순한 발표 자료를 받으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앞부분엔 Introduction, 마지막 장엔 거의 한 경우도 빠짐없이 Thank you! 그 밖의 슬라이드도 대부분 사진 몇 장으로 채운 아름답고

심플한 파워포인트를 보면 지레 겁을 먹게 된다.

몇 년 전 어느 국제회의 동시통역에서도, 내가 통역을 맡은 부분에 그런 세련된 파워포인트 자료가 왔다. 영어권 연사가 지극히 세련된 디자인의 자료를 보내온 것이었다. 오롯이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한 통역을 했다. 연사의 말 속도에 따라 통역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했다. 전체 발표 시간이 30분 남짓, 마지막 장의 Thank you!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 원망스럽게도 이 Thank you!를 찍은 상태에서 연사는 그때그때 생각난 전문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피로가 진하게 몰려온다.

이어지는 순서는 동시통역 파트너 차례, 동남아에서 온 연사가 미리 보내온 파워포인트 자료는 상세했다. 게다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슬라이드 노트’에 “Good morning.”에서부터 “Thank you for listening.”까지 하나하나 대본이 쓰여 있었다. 파트너 통역사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미 한국어로 번역을 해왔다고 했다.

나 또한 슬라이드 노트에 대본처럼 미리 말할 내용을 써놓은 자료를 받으면 대개 준비 삼아 번역을 한다. 특히, 행사의 개회사, 축사, 폐회사 등 원고가 미리 준비된 연설문의 경우, 꼭 번역을 하고 연사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 ‘읽는다’. 아무래도 즉석에서 통역을 하면 버벅거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내용이 틀리지 않더라도 어조나 표현 면에서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파트너 통역사도 미리 번역한 내용을 읽었다. 연사가 영어를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기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나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전 세션을 마치고 고객사 사람들과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녀가 말했다.

“박소운 선생, 고생 많았어요. ‘나였어도’ 통역 ‘망쳤을’ 거예요.”

가뜩이나 전문적인 기술 분야 회의인데 당황스럽게 빠른 말투, 미리 보내준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통역했으니 고생스러운 통역은 맞았다. 오전 세션만 놓고 보면 내 통역이 더 힘겹게 나온 게 사실이었다. 파트너가 한 통역은 사실상 낭독이었기에 훨씬 더 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의도적인 ‘팀킬’ 아닌가. 당황스러웠다. 고객사 직원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느 한 통역사 분이 굳이 통역을 망쳤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았고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해 줬다.

통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크 잡는’ 직업이다.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 선후배들 대개 현시욕이 어느 정도 있었다. 다른 이들 앞에서 말을 하고 나를 보여주는 것도 이 직업의 한 단면이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이란 게 겨우 동료를 깎아내리는 거라면 너무 후졌다. 그런 식으로 인정받아서 뭘 얻을 수 있기에? 고객의 칭찬? 고작 ‘예쁨 받기 위해’ 전체 일의 모양새를 내팽개칠 정도로 유치해 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해서 이 고객사에게서 통역 일을 독점적으로 받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날 점심시간 후 오후 세션에 들어가며 파트너의 통역은 와르르 무너졌다. 이 역시 그녀가 맡은 파트 중에 ‘세련된 파워포인트’ 자료와 함께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기양양하던 오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봤다.

현시욕이 대체 뭐기에. 이왕이면 내가 더 돋보여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 몇 년이나 전문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치 ‘내게 관심을 더 달라고, 발표 기회를 달라고, 또는 사탕을 달라고’ “저요, 저요!”하며

손들고 아우성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몇 년 후, 신문에 ‘통역으로 통하는 세상’ 글을 연재하던 어느 여름날, 국제회의 동시통역 건이 있어 처음 보는 파트너와 일을 하게 되었다. “신문에 글 쓰는 거 봤어요. 난 또 대단한 경력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왜 나랑 한 부스에서 만나?)”

아, 심술은 나는데 순진하시군요. 이럴 땐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최고다. “신문사에서 글을 써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하시나 봐요. 다짜고짜 쓰겠다고 하면 신문사에서 지면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SNS에 자랑 글 쓰는 거랑은 프로세스가 다른데요?”

통역 커리어와 글을 쓰는 커리어가 별개라는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글의 내용이 아니라 ‘신문에 이름이 나더라’는 것만 보이는 부류였다. 이런 경우는 내가 더 주목받고 싶은 현시욕에 더해 이 업계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 이름을 걸고 글을 쓰고 있는 것조차 ‘자기 홍보’로 밖에는 볼 수 없어 한없이 꼬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았다.

글을 쓰는 업을 몇 년간 했고, 그 후 통역사가 되었다. 나 자신을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여긴다. 이를 눈여겨 본 경향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의사, 변호사가 아닌 신선한 전문 직종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거였는데 이것 역시 ‘너 통역 얼마나 했기에, 얼마나 잘하기에 감히 글을 써?’라는 식으로 꼬아서 보고 글을 쓰는 일도 오직 현시욕의 틀로만 해석하는, 시야가 좁은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여전히 줄고에 부족한 통역 실력임은 인정하고, 끝없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연사의 발표 자료는 미지의 세계를 그린 지도와 같아서, 생소한 전문 분야를 자료에 의존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탐험하는 기분이다. 어떤 땀 어려우면서도 그 분야에 흥미와 애정을 갖게 해주고, 또 어떤 땀 그 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과감히 들려오는 내용에 귀를 더 기울이는 편이 낫다. 연사의 발화 속도, 악센트, 내용 자체의 난이도, 통역 관점에서 자료의 유용함, 결국은 복불복이 아닌가 싶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묵묵히, 열심히 할 수밖에.

설명이 많고 친절한 그래프와 도표가 넉넉하게 들어간 자료를 받아 내용 공부를 힘줘서 하고, 잔뜩 곤두서서 통역을 했다고 한들, 발표 마무리에 들어 영어권 연사의 농담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다. 이 경우 너무 공을 들여 통역을 해서 더 놓치는 게 아닐까 싶다. 한 발짝 물러나서 여유롭게 들었다면 굳이 못 들었을 것도 없는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에 몰입해 통역하다 보면 한 번씩 농담을 놓친다.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 열심히 통역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알아들은 청중 일부만 크게 웃는 그 뒷모습을 보면 속상하다.

대개 사람들은 번역보다는 통역이, 순차통역보다는 동시통역이, 영-한 통역보다는 한-영 통역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마는 않다. 악착같이 꼼꼼하게, 번역본 보내기 직전까지도 오류를 잡아내는 번역이 더 어렵기도 하다. 순차통역은 한껏 집중해 들었는데도 내용이 길어지면 기억이 안 나고, 맥락을 놓치게 되는 부담이 있어 어렵다. 한-영 통역의 경우, 귀에 음성이 들어와 머리에서 처리되는 부담이 덜한 편이다. 연사가 멀리 있어도, 음질이 좋지 않아도, 말이 빠르거나 음성이 탁해도 모국어는 귀에 와서 꽃히는 법. '안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영-한 통역이 오히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 심미적으로 아름답

고 심플하게 만든 통역 자료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일 자체가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두 명의 성자^{聖子}

최근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회의의 한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료의 참가자 소개에서 ‘헤수스’와 ‘제주스’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두 이름 모두 성자, 예수를 뜻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호기심이 동해 검색해보니 헤수스^{Jesús}는 스페인어, 제주스^{Jesus}는 포르투갈어 발음임이었다.

로망스어(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온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의 총칭)권,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붙이기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 흥미로웠다. 잠시 두 명의 예수가 배석한 국제회의장을 상상했다.

그런데 번역 작업을 하며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 검색하니 해당 행사를 소개하며 이들의 이름을 ‘지저스’라 쓴 인터넷 매체 기사가 나와서 살짝 웃었다. ‘오, 지저스.’ 그런데 나도 영문 텍스트에 Jesus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추측이 어려울 것 같다. 성씨를 보고 어렵פות이 로망스어권의 이름임을 알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이 스페인식으로 헤수스이고 어느 쪽이 포르투갈식으로 제주스인지 구분할 수는 없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 인명의 경우 신해혁명 전과 후로 나누어 이전에 등장한 이름은 우리 식 한자 발음으로, 그 후는 중국어 원어 발음으로 표기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당태종唐太宗은 이세민이지만 현 중국 국가주석은 ‘습근핑習近平’이 아닌 시진핑으로 말하고 쓴다.

실제 통역 현장에서도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며 좌장, 연자 등 외국인 참석자의 이름 발음을 꼭 확인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터키와 태국 이름 발음이 특히 어려웠다. 통역사로서 전반적인 내용 숙지가 최우선이겠지만, 사람의 이름을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부르는 것도 존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 ‘소운’도 Sowoon이라는 표기 방식 탓인지 서양 사람들은 어렵게, ‘운’ 힘을 한껏 주어 발음한다. 내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할 때에 가장 가깝게 영어로 표기하려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sow의 과거분사형인 sown으로 쓰는 편이 그나마 비슷하게 한 음절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소리가 날 것이다. 어쩐지 내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외국 출장 등의 절차를 밟을 때도 관련 서류에 Mr. Sowoon PARK (미스터 소운 박)으로 표기되어 와서 수정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일이 생기기에 아예 ‘Jasmine’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물론 그래도 1년 넘게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한 유럽인 컨설턴트가 “난 네 이름 제대로 발음하니까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부를게, 쏘운-느.”라 하여 더 고쳐주거나 말리지는 않고 그러라고 한 적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이름은 아니기에 소은, 소운, 소원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 불리곤 하니까….

인명이나 지명을 해당 문화권에서 쓰는 발음에 맞게 옮기는 것 외에도, 통역 일을 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많다. 일터에서 얻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다.

통역사 초년생 시절, 한 다국적 기업의 재무 회의를 통역했을 때였다. 맞은편에 앉은 인도인 회계사가 나를 보며 연신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것이었다. 심지어 살짝 웃고 있었다. ‘통역이 뭔가 잘못된 걸까.’ 당황스러웠는데 누군가 말해줬다. 인도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게 긍정의 표시라고.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옳지, 옳지.’ 병아리 통역사에게 말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알고 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석자가 도리도리 고개를 저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흩어지는 건 마찬가지여서, 가급적 다른 곳을 바라보며 통역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다.

일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핀란드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회의 후 통역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와 함께 나눠주곤 했다. 무려 7년의 차이를 두고 각기 다른 행사의 핀란드인 강연자에게서 똑같은 모양의 작은 유리접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르 알토Alvar Aalto가 만든 유명한 디자인이라는데, “핀란드에 아주 많은 호수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디자인”이라는 똑같은 설명을 각기 다른 이들에게 두 차례 들으니,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핀란드에는 2007년 딱 한 번 출장 갈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만 그 후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핀란드 사람들의 통역을 도울 일이 있었는데 어쩐지 특별한 느낌이다.

이건 몇 년 전의 일화. 자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인상적이었던 중동 부국의 의뢰인이 회의 후 나에게 “오늘 잘 통역해 줘서 고마웠다”라며 “우리나라에 여행 오면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 꼭 연락하라”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1박에 한화 약 150만 원 정도하는 ‘합리적인reasonable’ 호텔을 소개해 줬다. 그 정도 비용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애써) 답답하게 “가족과 상의해보겠다” 답했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통역이 아닌 번역의 경우, 외국어와 국어, 어느 한 쪽에는 없는 세분화된 개념으로 인해 애를 먹게 된다. 한국어 원문에는 ‘조카’라고만 되어 있어서 무심코 ‘nephew’로 한참을 옮기다 보니 그 조카가 ‘조카딸’, 그러니까 ‘niece’였던 게 텍스트의 한참 뒤에 나오는 경우, 또 반대로 영어로는 brother, sister로만 되어있지만 우리말은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이 구분되니 답답한 마음에 직접 원작자에게 메일을 보내 성별과 서열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다.

아주 오래전, 이탈리아어 학원 수업을 잠시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는 이탈리아어를 전공한 한국인이었다. 수업을 하다 그날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사가 말했다. “이 군주론의 원제는 Il Principe(일 프린치페), 그러니까 ‘왕자’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번역을 잘못된 거예요.”

그녀보다 이탈리아어 실력은 아주 보잘것없지만 통번역을 업으로 삼고 사는 처지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어 principe는 영어의 prince와 마찬가지로, 왕국의 왕자를 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국公國을 다스리는 공公’을 뜻하기도 하기에 군주론이라고 번역한 거고 이걸 오역이 아니다. 오히려 ‘왕자’라고 옮겨서 오역이 되는 경우를 보았다. 모나코의 알베르 공을 ‘알베르 왕자’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를 모르면, 말을 제대로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자주 있다.

매번 함께 일하는 사람의 국적이 다르고, 모국어가 다르다 보니 그들의 말과 행동에 깃들여 있는 차이를 읽는 재미가 있다. 잠깐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맛볼 수 있다는 매력이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터에 나서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세계’ 통역하는 게 뭘까?

만나 보고픈 동료가 생겼다. 그런데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느 저녁,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TV를 켜고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한국판 <60일, 지정생존자>를 골랐다. 원작을 재미있게 봤었기에 배경을 한국으로 옮기면 또 어떨까 궁금했다.

쉬려고 보기 시작한 드라마였는데 1회부터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배석한 통역사가 등장하며, 슬금슬금 일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씩 고조되어 마침내 격렬해지는 대화, 통역사의 ‘아, 이를 어찌나!’하는 표정. 남의 일 같지 않다.

솔직히 다들 너무 통역을 잘한다. ‘진짜 통역하는 게 아니라 대본에 있으니까 그렇겠지.’ 싶으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 나도 저렇게 막힘 없이 줄줄, (대본대로 하듯) 통역할 수 있었으면! 실제 통역 상황, 특히 동시통역을 들어보면 대본도, 사전 리허설도 없기 때문에 소위 ‘필러filler(통역사가 통역이 잠시 막히면 망설이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음...” “어...” 등의 소리를 내는 것)’나 ‘백트래킹back tracking(통역 상황에서 이미 말을 뱉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 문장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통역하는 것)’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통역대학원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줄이는 ‘훈련’을 받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니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듯, 유려하고 망설임 없는 통역. 할 수 있다면 드라마 속에 들어가 한 수 배우고 싶을 정도였다.

사실 내 직업을 다른 드라마를 잘 못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부글부글’이다. 신문사 기자 시절, 손예진과 지진희 주연의 <스포츠라이트>라는 드라마에서 기자들의 고군분투를 다뤘었는데 바로 그 ‘고군분투’를 마치고 너털너털해져서는 집에 들어온 입장에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드라마 속 ‘경찰 팀 캡(언론사 사회부의 사건팀, 즉 경찰 팀의 리더)’ 지진희가 손예진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버럭버럭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내가 혼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두 번째 이유는 ‘오글오글’이라 할 수 있겠다. 직접 체험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도, 그 직업에 대해 완전히 알 수는 없을 테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왜 늘 매체에 등장하는 기자들은 ‘사명감에 불타 위험도 불사하는 정의파’ 아니면 ‘권력과 결탁해 부패한, 돈을 좇는 자’로 양극화되어 있을까. 나의 경험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진 모두가 그러하듯 ‘때로는 더럽고 힘들어도’ 먹고살려고 하루하루를 있는 힘껏 살아내는 기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동안 느낀 바가 이렇다 보니 통역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도 사실 잘 안 보는 편인데, 이번엔 꽤나 실감 나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다. 우연히도, 한국판 <지정생존자>에도 지진희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 참석자는 “깊은 고심 끝에 오랜 우방인 미국의 수입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발언한 후, 통역사에게 따로 주문한다. “고심이란 단어는 ‘세계’ 통역해 달라”라고.

관객만을 위한 방백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에 나와 주연배우의 상대로서 조명을 받는 그 순간의 기분. 그 당혹스러움에 격렬하게 공감했다. 하지만 세계 통역하는 건 대체 어떻게 통역하는 것인가가 더 큰 문제다.

미국 측 남성 통역사가 “고…고심이오?”하고 당황하자 한국 측 여성 통역사가 슬쩍 제안하듯이 답을 준다. “Deep consideration(은 어떨까요)?” 사전적으로 고심苦心은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씬’이라는 의미다. 숙고, 고려라는 의미의 consideration은 살짝 의미가 다른듯하면서 그 괴로움이 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드라마 속 통역사를 만나 동료로서 한 번 질문해보고 싶어졌다. 정도를 한참 낮춘 표현으로 고심을 통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조를 강하게 해서 고심했다고 전하려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agonizing over(~를 두고 고뇌하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드라마 속 통역사가 왜 ‘숙고’ 정도의 의미로 전달했는지 짐작은 간다. 공식 외교 석상이니 어휘 선택은 신중하게, 어조는 낮춰서. 한껏 격양된 발화자가 ‘세계 통역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답답한 마음이 분출된 것일 뿐 진심은 아닐 거라는 판단에서.

궁금한 마음에 드라마 속 통역사 대신 현실 세계 선후배 통역사들과 이야기해봤다. 대부분 “자리가 자리인지라 표현을 등글게 손질한 consideration이 적절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깊은’을 그대로 직역한 deep보다는 careful(신중한) 쪽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흐를지 예측할 수

없는 통역 현장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표현을 쓰기란 쉽지 않은데, 드라마 속 통역사의 순발력이 부럽기도 했다.

드라마 속에서 남자 통역사 역할을 맡아 유창한 영어 실력과 실감 나는 연기를 선보인 배우 양현진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방영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2020년 6월. 드라마 속 통역사와 현실 통역사의 만남, 친한 동료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이 반가웠다.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가 생겨 즐거웠다(양현진 배우는 파나마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영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다른 이의 말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연기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어 재미있었고, 또 어려웠다고 했다. 긴장감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세계 통역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한다. “통역사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어로 술술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한편, 안타깝게도 실제 통역사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통역사가 미국 측 의사를 전하며 어쩐지 주눅 든 말투로 말한다. “농축산물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협상은 여기서 중단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통역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배운다. ‘간접화법으로 통역하지 말라’고.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른 이의 입이 되어 일을 할 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기에 “~라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어도 당연히 ‘나(제)’라고 한다. 말 그대로, 화자가 된 양 메소드 연기를

하는 기분이다. 다만 대사 대신, 출발어^{source language}(원 발화)를 도착어^{target language}(통역이나 번역이 되어야 할 언어)로 옮기는 게 다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뜻대로 안 된다. 양측이 감정적으로 아슬아슬할 때, 통역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된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통역사인 제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 노여워하지 말아주십시오.’하고, 통역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는 것 같다. 어쩌면 통역 현장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일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사무실용 칸막이 두 개를 서로 떨어진 위치에 마치 동시통역 부스인 양 설치한 점 등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동시통역은 2인 1조로, 방음이 되는 하나의 부스에 들어가서 한다.

전반적으로 통역사들이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도 좀 억울했다. 단정하게 쪽을 진 머리에, 유니폼 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동시통역사들의 모습을 보며 제작진이 국제행사 의전 도우미들과 통역사를 같은 역할로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어차피 드라마의 주인공은 통역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다. 그러니 정확하게 통역사가 하는 일을 묘사할 거라고 기대하긴 무리라고 생각했다. 현실에서도 통역사는 주인공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 어떤 직업이 대중매체에서 실제와 똑같이 그려지던가. 짧은 문장 하나 통역을 위해 이리저리 언어를 해부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는 고뇌의 순간을 대중매체에서 실감 나게 그린 것만으로 반갑다.

‘운동화 끈’이 통역사를 멸종시킬까?

벌써 2년 전쯤 일이다. 지인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며 말을 걸어왔다.

“언니! 구글 번역기에 ‘운동화끈’이라고 검색하면 글썄 ‘exercise hot’이래요.”

설명하자면 ‘운동화 끈’을 띄어쓰기 없이 검색하면 번역기가 이걸 ‘운동+화끈’으로 인식한다는 거였다. 2019년, 이 글을 쓰며 확인을 위해 검색해보니 지금은 ‘kinetic hot’이라는 결과가 떴다. 둘 다 엉뚱한 결과인 건 마찬가지다. 소소하게 웃고 넘어가려는데 지인이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띄어쓰기해서 ‘운동화 끈’이라고 검색하면 ‘sneaker strap’이라고 ‘제대로’ 떠요.”

통역사가 아닌 지인은 이걸 ‘제대로’라 말했지만 좀 가우뚱했다. ‘운동화=sneaker(s)’ ‘끈=strap’이라고 해서 맞는 번역일까? 운동화 끈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은 shoelaces였다. 주변의 원어민, 영어권에 오래 거주한 동료 등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돌아왔고, 검색을 해봐도 미국식으로 shoe string, 영국식으로는 bootlaces라 부르기도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애초에 strap은 묶고 풀 수 있는 연한 재질의 끈이라기보다는 좀 더 단단한 끈의 느낌이 강하다.

벌써 몇 년째인가. 인공지능AI이 통역, 번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광고며 기사가 넘쳐난다. 기계번역이 당신들 직업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많고 터무니없이 낮은 번역료를 제시하는 고객사에 “그냥, 번역기 쓰시죠.”하고 거절했다는 업계 선배의 일화도 전해진다.

통번역 일을 해온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운동화 끈’이라는 말을 통역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통역사가 자판기처럼 단어를 땡그랑 넣으면 다른 단어로 재깍 치환해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띄어쓰기를 포함, 사람의 말과 글에는 소소한 문법적인 오류가 너무도 많다. 완벽한 AI 번역이 가능하려면 화자의 말이 거의 완벽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통역은 문제가 더 복잡할 것이다. 모두가 깨끗하게 음성 인식되는 표준 발음과 억양, 문법으로 말을 해야 정확한 AI 통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 국제회의에서는 비非 영어권 출신 화자의 발표를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단어를 제대로 옮겨도 소통이 꼬일 수 있다. 누군가 pear라고 말한 걸 배라고 옮겨 전달해도, 한쪽은 길쭉한 오뎅이 비슷하게 생긴 과일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있지만 상대방은 노랗고 둥근, 달고 시원한 과일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세상이 단어:의미의 1:1 대응으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머리에 갖고 있는 그림이 각자 다르니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이런 것에 대해 통역사가 양쪽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능을 수행한다.

전에 한 번은 이미 번역 작업을 마친 문서의 감수 일을 받았다. 번역문을 암만 읽어 내려가도 의미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번역기로

그대로 돌린 문서가 내 손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경남 '진주'를 pearl이라고 번역하는 식의 실수가 곳곳에 보였다. 같은 글 안에서 어떤 부분은 문장이 '~했다.'로, 또 다른 부분은 '~했습니다.'로 끝났다. 번역기로 번역을 하고 통번역사를 시켜 살짝 손질만 하면 완성도 있는 문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 놀라웠다. 애초 제3의 외국어 자료를 짜깁기하고 번역기를 돌려 엉터리 한국어 보고서를 만든 뒤, 이걸 한영 번역해서 완성본을 만들면 원본이 이상했다는 걸 읽는 이가 모를 테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번역기는 '눈치'가 없다. 통역사가 눈치코치 다 따져가며,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려가며 애를 써도 양쪽의 이해와 생각이 달라 소통이 되지 않은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력한 대로 값을 가져다주니 그 결과가 완전할 수가 없다. '나 말리지 마!'를 'Don't dry me!'로 번역했다는 재미있는 사진을 SNS에서 본 적이 있다. 음식 '육회'를 'Six Times'라 옮겨 놓은 메뉴판 사진도 봤다. 둘 다, 아무 맥락 없이 본다면야 오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번역 개그'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AI가 사람이 하는 통번역을 대체할 거라는 화두가 떠오르는 사이에는 어쩐지 간극이 느껴진다.

여기서 반전. 통역사라고 번역기를 절대 안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때로 모르는 언어로 된 회의 자료를 받곤 하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번역기에게 물어본다. 나도 불과 얼마 전 받은 포럼 자료에 스페인어로 작성된 부분이 몇몇 있었다. 영어, 스페인어 간 언어의 유사함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불안한 부분은 번역기를 '돌려서' 확인했다. 내용을 얼추 파악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계약서 등, 형식이 거의 일정한 문서의 경우 가까운 언어들끼리 번역하는 경우 번역기가 제법 완전한 번역본을 만들어 준다고 알고 있다. 가령, 영문 계약서를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번역본의 퀄리티도 꽤 괜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서의 경우 일본어로 일단 한 번 변환한 뒤 원하는 언어, 즉 도착어(target language(번역 결과물의 언어))로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하면 한국어를 바로 번역기에 가져다 넣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글의 언어 번역 데이터베이스에 일본어-영어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많아서라고 들었다. 이 이유가 맞는다면, 결국 번역물의 양이 많아야 구글 번역기의 번역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뜻. 일본이 근대에서부터 서양 문물을 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양 고전을 적극적으로 일본어로 옮겼다고 알고 있다. 결국 유구한 번역의 역사와 방대한 데이터가 번역기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대중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화가 개봉하면 자막의 오역 사례를 모아 인터넷에 올리는 글도 많아졌다. 영화 번역, 특히 영어를 한국어 자막으로 옮기는 일은 내가 주로 하는 업무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번역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눈여겨본다. 뉘앙스의 차이를 잘못 옮긴 번역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대중이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기가 사람의 통번역을 대체할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얘기하면 좀 섭섭하다. 당장 전체 스크립트를 번역기에 돌려서 자막을 만든 영화를 한 편만 상영해도, 내용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사용자가 과거에 번역했던 구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이전의 번역문을 불러와주는 번역 툴CAT tool·Computer Aided Translation tool을 활용하면 번역 작업이 한결 편리해진다. 두꺼운 사전을 뒤지고 도서관을 헤매야 했을 과거에 비해,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사망’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상해는 중국 도시 상하이로 아닌 걸 알 정도로 번역기는 똑똑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고 있다.

2020년, 내친김에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이제는 제대로 shoelace라는 결과가 뜬다. 그동안 번역기는 ‘머신 러닝(기계학습)’을 통해 열심히 배웠다. 번역기의 발달 속도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번역을 통째로 맡기기엔 위험한 부분이 많다. 한 번씩 웃고 넘어갈 재미있는 오역 사례만을 떠올리기엔 너무도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번역하고 검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작 ‘운동화 끈’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번역 업계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번역기가 기본적인 번역을 다 하는 때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정신 차리고 나의 영어와 한국어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날을 세워놔야겠다 다짐한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정신없이 영문 자막을 베끼다

직업적인 호기심이 취향을 이겼다. 영화의 정서에 쉽게 젖어 들고, 그 기분이 오래가는 편이라 분위기가 무거운 영화는 되도록 피한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자막 번역이 좋다는 말에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다. 영상 번역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통번역’이 대체 뭘까 항상 고민하고 있으니 궁금할 수밖에. 영화에 영문 자막을 달아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았다.

번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영어는 허세와 알팍함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된다. 짧은 문장은 굳이 영어로 말하지만 길고 자세한 말은 하지 못하는 부잣집 사모님 조여정의 애매한 표정. 한껏 과장된 발음으로 “고추장 이즈 레드, 뭐... 밥풀 애니웨이.” 하는 대사에서 관객들 모두 크게 웃었다. 영화 내에 등장하는 영어 대사를 자막에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한 점도 세심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에게 ‘기생’하게 되면 텅달아 짧은 영어를 쓰게 된다는 점이 섬뜩하다. “우리, ‘토키 어바웃’해요.” 평소 영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덧붙이는 의미와 이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는데 영화도 그걸 짚고 있었다. 부의 상징,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들도 열망하는 그 무언가.

최우식과 박소담이 가짜 학력을 꾸며 영어와 미술 과외교사로 취업할 때 갖다 붙인 이름 케빈과 제시카도 소소한 웃음을 준다. 외국 생활을 오

래한 척, 유학파인 척 지은 이름인데 미묘하게 어설피다. 비영어권 사람이 영어 이름하면 바로 떠올릴법한 이름들.

번역된 자막을 보면서는 ‘전화위복’을 Lemons into lemonade로 번역한 것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사전에서 전화위복을 찾아보면 Bad luck often brings good luck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직역하지 않고 ‘삶이 레몬(역경, 고난)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뜻)’는 영어 격언을 응용한 것이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련되었다 느끼면서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땐 형편이 안 좋았는데 그 후 사업이 잘 됐다, 전화위복이다”라는 대사와는 살짝 어감이 다르지 않나 싶기도 했다. 내용상 전화위복은 당사자의 의지라기보다는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운명, 새옹지마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송강호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대만 카스텔라’ 가게 부분은 외국인 관객들에게 얼마나 통했는지 궁금했다. 대만 카스텔라를 Taiwan cake, 또는 castella로 치환해서 번역한 이들이 ‘대만 카스텔라 가게’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년 전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회 현상을 온전히 전할 수 없어서다.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도, 동네에 우수수 생겨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사라진 대만 카스텔라 가게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림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 사라진 자리는 잠시 쓰렸다. 사회적 맥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 ‘웃픈’ 부분이다.

문서를 번역할 때에는 이런 경우 대개 ‘역자 주’를 달아서 부연 설명을 넣지만, 화면에 들어갈 글자 수가 제한적인 영상 자막 번역이어서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 나는 이 부분 자막에 심하게 몰입한 나머지 번역 작업 할 때의 스트레스를 느꼈다.

영화 전반적으로는 번역이 쉽고 깔끔해서 부러웠다. 눈으로 자막을 쫓기가 시원시원했다. 새 가정부를 구하며 “아줌마는 싸고 썩으니까.”하는 대사를 “It’s easy enough to hire a new one(새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으로 번역한 부분이 그랬다. ‘싸고 썩’을 사전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지 않은가.

‘김치국 마시는 김에’를 백일몽이란 뜻의 daydreaming을 써서 번역한 부분 등에서도 언어 간의 문화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번역자의 세심한 고뇌가 느껴졌다. 이 밖에는 ‘일당 만 원 더 쳐준다’를 10달러로, 카톡을 외국에서 더 널리 사용하는 ‘왓츠앱’으로 번역하는 등 현지화한 부분을 찾는 재미도 있었고, ‘잠수 타다gone AWOL’ ‘극혐what a scumbag’ ‘인디언 오타쿠Indian fanatic’처럼 비속어의 센스 있는 번역도 눈여겨봤다.

주인공 송강호가 조여정에게 성적인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대사들도 있었는데, 이걸 자막에는 번역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몇 번 느꼈다. 단순히 자막이 들어갈 공간이 한정적이라 큰 줄거리에서 덜 중요한 부분은 번역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했다.

몇 번 같은 대사가 반복되며 첩첩이 쌓이는 이 영화에서,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 그 자체보다도 ‘나는 불우이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숙주의 삶에 젖어든 기생충의 추한 모습이 고통스럽게 생생했다. 그러나 “부잔데rich but 착해.” “부자니까because they are rich 착해.”라는 대사가 깊숙하게 찢러오는 순간에도, 상영관 맨 뒷자리 어둠 속에서 대사와 자막을 받아 적느라 집중해서 그런지 이 스산한 코미디 영화

가 마음에 끼친 여파가 오래가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영화의 우울함과 멋진 번역이 준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 이긴 셈이다.

“외국인과 사귀면 영어 잘하게 되나요?” 연애 실력이 좋아집니다

몇 년 전까지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단골 주제였다. 높은 확률로 눈이 작고 찢어진 외모의 여성 연예인이 나와서 “저도 외국 가면 인기 많거든요?” (방청석 깔깔깔) 외국인들에게 ‘외모에 대한 찬사를 듣는 것’ 또는 ‘구애를 받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이들도 꽤 되는 것 같다. 반대로 외국 사람이 출연하면 “한국 사람과 연애하면 한국어 많이 느나요?” 질문한다.

어째서 외국어 공부=연애일까, 영 씹쓸하다. 외국어 공부가 연애만으로 해결될 만큼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언어 공부하려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아닐 텐데, 어쩐지 막연한 비하와 동경이 함께 느껴져서 불편하다.

그 누구도 공대 출신과 결혼한 사람에게 “공대 출신과 사귀면 미적분 잘하게 되나요? 컴퓨터 잘하게 되나요?” 질문하지는 않는데, 꼭 외국인, 외국어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한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을 비교적 자주 나가고, 외국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나의 업무가 성립하다 보니, 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가지지 않는 편이다.

신문사 기자 시절인 2007년 북유럽 출장. 출장의 목적지인 소도시의 기차역에 내린 내 눈앞에는 이미 ‘팔라’가 된 북유럽 남성이 보였다.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너 호텔 값 아끼게 해줄게,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내가 영어도 가르쳐 줄게.”

내가 암만 외국인이어도,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내가 너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하거든요. 당시만 해도 북유럽 국가는 직항 노선도 없었고 자전거 타고 가던 행인이 나를 보고 신기해서 말을 걸 정도로 동양인이 드물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들 눈에 비친 나는 영어를 못하는 순진한 아시아 여성 그 자체였던 것 같다.

당연히 그는 내게 영어를 가르쳐줄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다만 영어와 한국어로 신나고 화끈하게 욕을 먹었다. 기차역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 만만해 보였기에 굳이 비틀비틀 내게 와서 성희롱했다 생각하니 부글부글했다.

순진하고 유순하며 신비로운 존재, 혹은 용맹한 무술 고수, 또는 재력가를 만나 한몫 챙기려는 골드 디저gold digger. 동양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내가 꼭 타파하고 싶은 프레임이다.

‘유럽여행 가서 인기 끈 경험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탈리아, 그러나 일부 서남부 유럽 국가 남성들은 원래 칭찬에 후하다. 사실 유럽 여성들도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피렌체의 젤라또 집을 가도 주인아주머니가 “어머, 너 머리가 이게 원래 머리색이니? 어쩜 이렇게 예쁘지. Bellissima(벨리시마, 이탈리아어로 아주 아름답다는 의미)! Bellissima!”를 연발해 준다. 그 나라 문화가 그렇다. 딱히 작업 멘트pick up line 또는 치근대기 flirting가 아닐 때도 많다.

그런데 외국 사람과의 연애를 꿈꾸는 이유 중에는 의외로 ‘영어회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있어서 놀랍다. 직업이 통역사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잘하게 되는 법’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자기계발을 하고픈 경우 “외국인과 사귀면 영어 잘하게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실례지만 혹시 원어민과 결혼하셨나요?”하고 개인적인 걸 물어오는 이들도 있다. 어느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백인이랑 결혼해서 아이들이 예뻐서 다행이지, 다른 인종이랑 결혼했으면 차별받았을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반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원어민-백인-영어권에 대해 유독 환상이 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한편, 자녀의 영어 공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노래 틀어주고 같이 부르면 입과 귀가 뜨어나요?”류의 질문을 주로 한다. 몇 년 전까지는 ‘영어 찬트chant’를 따라 부르는 게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로 영어권 영상에 노출시키면 영어를 잘하게 되느냐는 문의가 더 많다.

“외국 사람 만나나, 우리나라 사람 만나나, 연애 많이 하면 연애 고수가 되겠네요.”

“영어 노래 매일같이 부르면 가창력이 늘겠죠.”

하필 영어로 먹고사는 업을 택해서 외국어 공부하느라 고생한 기억이 아주 많은 나는 때로는 살짝 반감을 담아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사귀면 영어가 는다는 말, 영어 노래를 계속 부르면 영어가 는다는 말 모두 일리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영어에 꾸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유창성fluency과 관련해 특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일상 회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실

제로 주위의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캐주얼한 표현을 많이 알고 청해력이 좋았다.

영어 노래의 경우, 가사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래된 동요의 가사를 통해 도치법 등을 활용한 문장 구조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영어 노출만으로 영어실력이 거저 주어지진 않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오래된 속담과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걸 갖고 있는 구슬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이걸 꿰어서 뭐라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 α 로 공을 들여야 하는데, 바로 기본적인 문법, 문장 구조, 단어의 뜻과 단어의 올바른 발음(특히 악센트)을 찾아보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들은 말, 읽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두드리는 키보드를 통해서도 화면에 찍힐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외워야 한다. 외우는 건 단어보다는 문장이, 문장보다는 문단이, 그리고 정말 암기력이 받쳐준다면 전문을 외우는 게 ‘써먹기 좋다’.

그러나 실제 대화, 원어민 어린이들이 널리 부르는 노래 등의 ‘살아 있는 영어’ 노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옛날 사람처럼 책만 열심히 읽어서는 또 안 된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생생한 영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로 영어를 접해야 한다.

나는 영어권 정치, 외교계 인사들의 연설문을 즐겨 찾아 읽고, 듣는다. 신문 기사도 이왕이면 6하 원칙에 따라 ‘팩트’만 전달한 스트레이트 기사 보다는 칼럼이나 분석 기사를 찾아본다. 화자의 논리 흐름이 드러난 콘텐츠

츠를 많이 접해야 이른바 영어적인 논리와 화법까지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어권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본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접하게 해줄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영어는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보다는 원어민의 영어를 접하는 게 낫다. 학습용으로는 번역문보다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글을 읽는 게 좋다. 요즘은 관심분야가 있다면 영어로 키워드만 검색해도 무수히 많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구글이며 유튜브가 있으니 많이 듣고 봐야 한다.

내 경우 오랜 시간 영어 공부에 힘써야 했고 지금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엄습한다. 통역의 꿈을 품었던 이십 대 이후 영어 때문에 괴로웠고, 영어 덕분에 행복했던 영욕의 나날들.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의 왕도는 1. 일정 시간 이상을 꾸준히 투자할 것, 2. 암기하고 또 암기할 것. 정도다. 둘 다 참 매력 없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영어도 결국은 공부라서, 하기 싫을 때 꼭 참고 버티는 것, 근성으로 매달리는 것을 요하는 게 사실이다.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영어를 미워하지 않는 너그러움도 필요하다. 남들 앞에서 완벽한 영어를 말하지 못했어도 너무 오래 마음에 남기지 않는 뻔뻔함도 필수적이다. 세상에 안 그런 일이 어디 있던가. 뭔가를 연마하는 길은 다 그럴 것 같다.

부추기고 약 올리며 자극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

봄이 왔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학습지를 비롯한 사교육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 파라솔과 함께 임시 매대 같은 것을 세우고 공세적인 판촉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그날 나는, 유치원에서 큰 아이를 데려다 이제 둘째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차였다. 아이를 재촉하며 종종걸음을 치는 내게 중년 아주머니로 보이는 영업직원이 말을 걸었다.

“엄마! 이제 파닉스 시켜야지. 강남 엄마들은 세 살짜리부터 다들 시켜.”

일단 어느 쪽이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초면에는 서로 존댓말을 썼으면 한다. 다짜고짜 ‘엄마’라 부르는 것도 거슬린다. 당신의 엄마가 아니다.

그런데, 강남이 뭐 길래? 강남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왜 강남 엄마들을 따라해야하나. ‘강남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열 올리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양 설명하는 것도 딱히 설득력 있지 않다. 강남 엄마들이 억울할 일이다.

물론 ‘강남 살아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있다는 건 잘 안다. 몇 년 전, 결혼하며 꼭 강남 3구에 살고 싶었던 지인은 어렵게 집을 구하고 주민등록증부터 새로 만들었다. 주민증 앞면에 ‘서울시 강남구’로 시작되는 주소지가 찍혀있는 걸 가지고 싶어하였다.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 강남에 ‘입성’하지 못한 엄마들에게 “강남 엄마들은…” 운운하며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약 올리기 마케팅이 딱히 기도 하나본데, 사람 잘못 보셨다. 영어로 말하는 게 직업의 큰 부분이고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씨름해왔기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정도인지 주관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런 말에 기죽고 솔깃할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판촉행사를 하며 태블릿 PC로 수업이나 교재 샘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세하게 틀린, 솔직히 원어민은 아닌 것 같은 표현이나 발음이 나와서 가우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질색하게 되는 건, 통역사들끼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억양’이라 부르곤 하는 한껏 과장되고 들뜬 말투와 쥐어짜낸 발성의 성우 녹음이다. 이런 억양은 주로 유아용 영어 교재에 많은 것 같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어권’ 국가는 많고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격렬하게 너울대는 억양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스럽다며 사랑받는다.

물론 나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영어로 국제회의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교재로 공부하기만 하면 아이가 원어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원어민, 모국어란 말이 ‘영어에 능통한 내 아이’라는 환상을 부추기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원어민은 또 뭐 길래.

한 번은 끈질긴 구독 권유를 받고 ‘아이가 알파벳의 기본적인 발음을 이미 알고 있고 영어는 천천히 가르쳐보려 한다.’고 한껏 좋게 거절하는데 말을 툭 자르더니 “어머니들 생각엔 아이가 아는 것 같겠죠.”

이어서 메타인지(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것) 운운하는데 그만 폭발, ‘내가 통역사라서’ ‘내가 영어 좀 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또박또박 맞서놓고는 나 자신의 유치함, 졸렬함에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어째서 엄마가 된 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에 대해 가지는 시각이 그런 건가 싶어 많이 안타깝다.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말하면 발끈해서는 지갑을 꺼내드는 엄마들? 당신 아이만 지금 큰일 났다는 듯이 불안감을 부추기면 무리를 해서라도 책이나 교재를 구입하는 엄마들?

아이와 엄마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었다. 동네 엄마들 중에도, 그것도 나름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들어보면 ‘남이 잘 안되고 내 아이는 잘 되면 좋겠다.’ 정도로 알맹이도 철학도 없는 이들도 있었다.

동네 엄마 중엔 나만 보면 “엄마가 일을 해서 아이들 인성, 가정교육이 어려울 것”이라며 혀를 꼴꼴 차는 언니가 있었다.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라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 엄마들을 집에 초대할 일이 있었는데, 이 ‘언니’가 와서는 우리 집 냉장고를 직행했다. “아이고야... 역시 엄마가 일을 하니까 냉장고에 먹잘 게 없네.”

그간 이 언니가 교묘하게 나의 죄책감을 자극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일었는데 이 날을 계기로 그런 마음을 씻어버렸다. ‘가정교육이요? 세상에 남의 집에서 냉장고 문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배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던가요? 지금 남의 가정교육을 걱정하실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채우는 편이,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한다. 질투와 열등감에 날뛰어봐야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줄 에너지는 없으니 조용히 웃으며 잘 보내드렸다. 그 후로도 뜬금없이 ‘소운 씨 이 겨울에 일하느라 바쁠 것 생각하니 정말 불쌍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밤중에 받은 일이 있었지만, 굳이 답을 보낼 필요도 없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학습지나 학원의 영업 직원에게 내가 한영 통역사여서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의 소신이 있다는 얘기를 해 봐야 얻을 게 없었다. 예전의 누군가는 또 혀를 찹찹 차며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아이가 언어발달이 더딜 거라며 짐짓 전문가인 양 진단을 내렸다. 아이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심지어 아이를 본 적도 없으면서. 통역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할 거라는 추측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다. 어눌한 국어실력 가지고는 암만 영어를 잘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 역시 한글 교육 상품을 팔기 위해 하는 말이었다. 영어 상품을 영업하다 안 될 것 같으니 방향을 튼 것이다.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리인들 돈벌이 때문에 엄마들의 불안감 키우는 마케팅이 도를 한참 넘어선 건 분명하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펼쳐진 파라솔마다 자칭 영어교육, 조기교육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집요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혼한 봄의 풍경. 끝끝내 거절하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다. 형편상 비용이 부담되어 그러시냐는 또 다른 약 올리기 카드다. 교묘하게 얽잡아보듯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영업 압박이 얼마나 심했기에 이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미안하지만 이런 식의 지르고 부추기는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는다. 뿌듯함과 자괴감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죽도록 영어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강남 엄마들은 안 이래요, 돈이 있으면 안 이래요 하는 말에 흔들리기엔 말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육열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유독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불안감과 열등의식, 그리고 환상에 기댄 상술이 활개 친다. 통역 일을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실력을 원한다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갈망하는 거라고 느끼곤 하는데 엄마로서 경험하게 되는 영어 교육의 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 안타깝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는 영어로 ‘Baby in Car?’

“성질 더러운 아기가 타고 있어요.”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도로에서 가끔 만나는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부착된 스티커 문구들이 다. 붙인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농담쯤 되겠지만 말이 다소 거친 인상이다. 차에 타고 있을 약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 차량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지만 그게 성질 더러운 아이를, 또는 머나먼 훗날 ‘높은 사람’이 될(지도 모를) 아이의 성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니까.

위의 문구를 볼 때면 ‘그래서 어찌라고? So what?’ 하는 기분이 드는데 영어로 Baby in Car라 쓰여 있는 스티커를 보면 ‘뭐라고? What?’ 하게 된다.

몇 년쯤 전에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영어 문구가 콩글리시인지를 놓고 논쟁의 별어진 것을 보았다. ‘Baby in the Car’가 맞다, ‘Baby in a Car’가 맞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문법 틀리지 않았다는데요?” 하는 댓글도 있었다.

사실 이 짧은 문구의 문법만 놓고 따지자면 딱히 문제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의 문구가 ‘탑승’의 의미를 깔끔하게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말로도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하지 ‘자동차 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 영어권에서는 주로 ‘Baby on Board(아이가 탑승 중)’라 한다.

외국인이 도로에서 차량에 부착된 'Baby in Car' 스티커를 본다면 처음엔 생똥맞다 생각하겠지만 그냥저냥 이해는 할 것이다. 다만 조금 더 표현의 밀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촌촌한 표현이 의미를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주로 주변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그리고 유사시 구조를 위해 아이가 탑승해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이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생각해보면 국문 '아이가 타고 있어요'와 영문 'Baby on Board'를 나란히 인쇄한 표준형 스티커를 제작해 카시트 구입 시 끼워준 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면 어떨까 싶다.

이런 면에서, 정확한 소통이 중요한 회의에서는 서로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즉 영어로 표현하자면 on the same page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표현에 좀 더 신중한 편이 좋다. 우리말로 일을 할 때도, 중요한 자리에서는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가 세심하고 정중하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다 이해는 할 텐데.”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주 오래전, 미국 한인 사회에서 이런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된 한인이 밤중에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신호를 지켜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들이받은 거였다. 분을 못이긴 한국인 운전자는 당장 차에서 내려 뒤의 차 운전석 쪽으로 갔다.

“유어 카 카, 마이 카 노 카? Your car car, my car no car?”

즉, “당신 차만 차고 내 차는 차가 아닌 줄 알아?”라는 뜻. 이 농담 자체가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보다 낮았던 90년대에 나눈 이야기이긴 하다.

94년 늦여름, LA의 친척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른들이 재미있게 웃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돌이켜 보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엉터리 영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당연히 알아듣고도 남았을 것 같다. 잔뜩 화가 나서 빨개진 얼굴, 아마도 실제 상황이라면 가벼운 샷대질을 동반했으리라. 문법을 빼곡하게 맞추고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구글에서 열심히 찾지 않고 말했다 해도, 정황상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즉 표정, 몸짓, 자세, 시선 등 언어 외적인 수단을 이용한 소통으로 상대방은 이해할 수 있다.

무심코 한국어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말하는 경우도 그렇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영어권 화자들은 얼추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사전에서 ‘양해’를 찾아 understanding, 이걸 ‘주십시오 give me’에 그대로 붙여 “Give me understanding.”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부탁할 때 ‘주십시오’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 영어에서는 미리 고맙다고 해버린다.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물론, 이 역시 표현이 어색할 수는 있으나 원어민들은 어떤 의도인지 알아듣는다.

그렇다면 언어의 농도는 어떤가. 90년대, 배우 멕 라이언Meg Ryan이 한국 삼푸 광고를 찍었던 것을 두고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비꼬듯

농담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아시아 어디에서 샴푸 광고를 찍었는데, 이름이 섹시 마일드 샴푸예요(방청객 웃음).”

일단 발언하는 태도가 대단히 나빴다. 굳이 ‘아시아 어디’ 운운하며 영어에 서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기미가 느껴진다. 2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니 이렇게 넘어갔지만 요즘이었으면 당장 현지에서 방송을 본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에서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질 테니 지금 같았으면 며칠 내에 반응이 불같이 일어났을 터다.

그런데 이게 왜 웃음거리인지를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문법적으로 ‘섹시&마일드’여야 맞는데 그렇지 않아서 비웃었다는 의견도 있다. 중학교 영어시간에 배웠듯 두 가지를 나열할 때는 and로 접속해줘야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비웃을 정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섹시’라는 표현이 무생물인 샴푸에 대한 설명이 되기엔 이상하다는 점이 더 크다. ‘섹시 마일드’+샴푸가 되니, 말 그대로 섹시한 샴푸. 좀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sexy라는 단어의 농도가, 한국에서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진하다는 점, 거기에 mild가 더해져 더욱 성적인 뉘앙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본다.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sexy를 표현할 때 대개 hot 정도로 쓴다.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에 ‘괴상하리만치 노골적인 제품명을 단’ 샴푸의 광고에 출연하는 여배우에게 수녀복을 입고 등장해 ‘귀여운 척’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우스꽝스럽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딱 어느 표현을 쓰고 쓰지 않는가만 문제가 되기보다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외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 대학생 시절,

외국 대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단체사진을 찍고 다 같이 모여 확인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My head is too big…” 한국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간다. “나 머리 너무 크다.” 사진을 보며 한두 마디씩 자기 외모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자연스러운데 거기 모인 학생들은 약간 당황했다. 머리 크기? 다 같이 기념으로 사진 찍고 왜 머리 크기 얘기를 하지?

굳이 비하나 놀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칭찬도 외모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You look so young.” 아마 의도는 “동안이시네요.” 정도겠지만, 일에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첫마디가 어려 보인다면 상대방은 눈살을 찌푸린다. 일하러 모인 자리에서 외모 얘기는 왜?

언어의 밀도와 농도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된 관점도 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로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지만 영어로는 ‘Authorized Personnel Only’ 한국어로 변환해보자면 ‘(권한을 보유한)관계자만 출입 가능’으로 표현한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치 얼룩말의 무늬를 두고 어떤 사람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로, 다른 사람은 검은 바탕 흰 줄무늬로 보듯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말에는 문화가 첩첩이 쌓여 농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때로는 나를 압도하고, 때로는 나를 매혹한다. 영어로 옮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쉬운 표현도 ‘더 널리 쓰이는, 더 일반적인 말은 무엇인지’ 매번 구글에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원어민은 다 알아듣더라 하는 자세는 영어를 공부하는 초심자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실무에서나 또는

중요한 자리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로 말하면 특혜라도 받는 걸까?

2019년 1월의 기억이다. 영어로 관크(관객 크리티컬의 준말. 다른 이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했다.

뮤지컬 <라이온 킹> 내한 공연. 기대감에 부풀어 이미 그 전해 가을에 치열하게 티켓을 구한 터였다. 그런데 공연 시간 내내, 객석 몇 줄 뒤에서 들려오는 “Wow!” 또는 “Oh, my!” 등의 감탄사.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 같은 유명한 곡은 아예 ‘핑거 스냅finger snap(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딱 소리를 내는 것)’을 하며 몇 소절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멋과 흥이 넘치는 그들만의 콘서트였다.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정도의 한국인 여성으로 보이는 이들이 내내 영어로 얘기했다. 거의 모든 대사마다 재빨리 “Uh-huh”라고 맞장구치듯 말하는데, ‘난 자막 안 보고 원어로 알아듣고 있지롱!’ 티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역력했다.

뮤지컬 대사에 몇 번, 한국 팬들을 겨냥한 유머가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 한국어로 “대박!”이라는 대사, ‘동대문 시장’ 같은 익숙한 곳이 무대 위에서 언급되기도 하며 웃음을 유발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예외 없이 큰 소리로 “와아아우...”하는 감탄사 섞인 웃음이 들려오는 걸 보니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두 시간 넘게 미국 방송 방청하러 온 것 같았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장소마다 분위기

라는 게 있지 않나. 가족 단위로 모처럼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공연장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 어린 관객들도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차분히 앉아있는데, 그들만의 떠들썩한 파티는 계속되었다.

사실 관람을 하면서도 통역사 직업병은 멈추지 않아 더욱 즐거운 공연이었다. 주인공 심바의 친구인 날라가 먹이를 찾아 떠날 때 암사자들이 불러주는 노래에서 pride를 긍지로 번역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쓰는 ‘자부심’은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느낌인 ‘금지’로 번역한 부분이 좋았고 묵직한 내용이 더해져 눈물이 났다.

오프닝 곡 <생명의 순환Circle of Life>의 앞부분을 비롯해 곳곳에 줄루어 등 아프리카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강렬하고 이국적인 인상을 심어줬다. 일부 배우의 억양도 아프리카 악센트인 것 같아 궁금하기도 했다. 뮤지컬 대사와 가사의 번역, 배우들이 쓰는 언어와 억양 등이 호기심을 자극했기에 더욱 풍성한 관람이었다.

그런데 ‘관크’를, 그것도 영어로 당하게 되니 내 인생에 영어는 어딜 가나 따라온단 말인가 한숨이 나왔다. 이날 이들이 설 새 없이 뺏은 감탄사는 한국어로 바꿔봐야 ‘우와, 어머니’ 정도다. 딱히 심오한 대화가 오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쓰는 관객들이 공연 중 계속해서 감동을 입으로 중계하지는 않는다. 그 태도가 특별히 불편했던 건,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용인되는 양 더욱 보란 듯이 크게 말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특혜라도 받는 걸까? 영어를 쓰는 일에 종사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력 그 자체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투사하는 일종의 이미지—유복하게 자라 외국 생활을 누렸을 것 같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이미지에 집착하다 보니 대화의 본질은 망각한 채 영어로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애쓰는 분위기도 생겨 난다고 본다.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방한해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팬들과의 만남에 통역사 겸 MC로 함께 할 수 있어 다채롭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하지만 팬들과의 질의응답 순서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What color do you like?” “Do you like chocolate?”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 자리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은 마치 시도 때도 없는 “Do you know Psy(싸이)?” “Do you like Kimchi?”의 어린이 버전 같아 씩씩했다.

차라리 한국어로 그날 만남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는 편이, 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까지 온 작가와의 기분 좋은 대화를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저 영어로 말하는 ‘프리토킹’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지 행사의 취지나 대화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 모습이 크게 안타까웠다. 사실 내 아이가 영어로 한마디라도 하는 게 그저 신기하고 대견한 엄마들이 부추기는 편이 없지 않다. 영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다.

매끄러운 영어 실력은 한영 통역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무기지만 영어 실력만으로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늘 주장해 왔다. 통역 현장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영어는 면죄부가 아니다. 영어에 대한 동경으로, ‘영어 잘하는 버릇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키워냈다

는 생각이 든다. 장소와 대상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언어보다는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아닐까.

‘네이티브 스피커’도 ‘한국사람 다 됐네’도 칭찬일 순 없어요

“미 노 스피크 잉그리씨... 낄낄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앞쪽 테이블에 앉은 30대 초중반 정도의 남성이 비슷한 또래 여성과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한껏 과장한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목소리와 제스처가 워낙 커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다. 조금 전까지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 큰 남자 억양이 전형적인 재미교포의 어눌한 말투였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Me no speak ‘Engrish’.”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사람들 말투를 조롱하는 표현을 썼다.

“악! 어떡해... 깔깔깔깔...”

그와 함께 얘기하던 여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굳이 좋게 말하자면 영어가 능숙한 친구가 영어 못하는 척을 해서 재미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예 태어나고 자라서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한들, 그런 인종 비하가 질게 깔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이가 막상 한국에 와서는 아시아계, 특히 l과 r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인 발음을 과장해서 내뱉고는 즐거워하는 모습에 몹시 불쾌했다.

마주 앉은 여자는 이게 많이 재미있었는지 한참을 웃으며 남자의 팔과 어깨를 팡팡 때리기 시작했다. 남자를 많이 좋아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난 one of them이 아니에요’ 하는 의미로 더 크게 웃는 것 같기도 했다. ‘난 그렇게 발음하는 촌스러운 한국인 아니니까 같이 비웃어도 되겠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아시아인이 모두 중국인은 아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게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은 그만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에 깊이 박힌 차별과 비하, 고정관념stereotype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유럽의 국제학교를 다녔던 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조금만 작은 목소리를 내면 ‘영어로 말하라’고 종용하는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다며 그 시절을 회상한다. “난 영어로 말했는데, 영어로 말하라고 하더라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비하와 차별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심지어 본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저런 조롱을 당해봤을 수도 있다. 그랬을 사람이 재미있다는 듯이 ‘미 노 스피크 잉그리씨’를 뱉으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영어 잘하는 동료도 과연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건지 감도 못 잡은 채 ‘나는 아니겠지’하고 웃고 있는 상대 여성도 눈살이 찌푸려졌다. 애초 옆자리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정도로 요란하게 떠들던 이들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카레를 먹으려고 동네의 네팔 음식점에 들렀는데 외국인과 한국인 여러 명이 테이블 몇 개를 붙여 자리를 잡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하러 나온 것 같았다. 왁자지껄한 분위기까진 좋았는데, 그중에 한 남성이 테이블 위 호출벨을 누르며 말했다.

“Oh, this is soooooooooo Korean(이거 완전 한국 스타일이네!)”

So를 한껏 늘여서 빈정대듯 말하고 있었다. 동료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맞장구를 쳐주는 말이 하필 내 귀에 꽂히며 화를 돋웠다. “좀 우스꽝스럽지ridiculous?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말이야.”

물론, 테이블 담당 서버와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는 서양 문화와는 다르다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 빼고 다른) 한국인들은 우습지만 나는 안 그래’하는 식으로 촌스럽게 발뺌하는 말이 서글펐는데 교포 남자의 어깨를 팡팡 때리던 여자와 겹쳤다.

내 경우,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는 게 있다.

“한국은 이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러니까...”

말을 하면서 무심코 우리나라를 타자화할 때가 있는데, 이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난 아냐’하며 발뺌하고 싶지 않다.

희화화만 인종차별이 아니다. 칭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품은 말들.

짧은 미국 생활을 했던 초등학교 때, 나를 무척 예뻐했던 담임선생님이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요. 아시아에서 수학 공부를 엄청 시키는 걸 TV쇼에서 봤다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악의는 없었다. 나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에게 좋은 뜻으로 “넌 춤을 잘 추지, 그렇지?”라고 말한 기억도 있다. 90년대엔 지금보다 덜 민감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인종, 민족에 대해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 규정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알게 되고 깊이 반성했다.

내게 “너같이 지적인 아시아 여성은 처음이야.”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동안 봤던 아시아 여성들은 대체 어땠기에 ‘아시아 여

성'이라고 특정해서 얘길 하나 싶었고 분명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째째했다. 볼 때마다 과한 칭찬을 쏟아내던 그가 드디어 말했다. “아시아 여성인 네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다니 대단하구나!” 너도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최대 역경은 수능 점수가 기대보다 안 나왔다는 거였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South, or North?”를 묻던, “재네 집 되게 부자인가 봐, 한국애가 나이키를 신었어!”하던 90년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친절하게 수세식 변기 사용법을 아는지 묻던 대학 시절 배낭여행의 기억은, 물론 당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해프닝들이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미국인 동갑내기 여성 엔지니어가 있어, 같이 점심도 먹고 제법 친해졌었다. 한국에서 한 달 이상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장기 출장 온 외국인들은 주말을 이용해 휴식 겸 관광의 시간을 가지곤 하므로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를 대화의 소재로 삼곤 했다.

“주말엔 서울 좀 둘러봤어?”

“응, 나 ‘진짜 서울’을 만났어.”

라며 그녀는 눈을 빛내며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열어 보여줬다. 뒷골목, 어느 재래시장인지 파리 잡는 끈끈이가 천장에 달린 식당의 모습. 아무 옷이나 껴입고 나와서 길가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찌든 표정의 할머니.

그 모습도 서울이 가진 다채로운 얼굴 중의 하나임을 잘 안다. 그런 장면을 삶의 현장으로 삼아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안다. 그럼에도, 프로젝트 장소인 강남 한복판은 굳이 ‘가짜 서울’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서양 단체여행 관광객들이 발리의 빈민가를 둘러보면서 “와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blessed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갖은 호들갑을 떠는 빈곤 포르노poverty porn 여행 상품이 있다는 내용의 스탠드 업 코미디 쇼를 봤을 때의 불쾌함이 상기된다.

반대로, ‘한국 사람 다 된’ 건 꼭 좋은 걸까?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나보다 두 살 많은 태국 언니.

어린 시절 만나 이미 이십 년 지기 친구가 된 미여우 언니는 독일인과 결혼해 뭇헨에 정착한 지금까지도 가족끼리 왕래를 하고 서울까지 날아와 내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우애 깊은 친구이자 가족이다.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에 모국어인 태국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도 능통한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두리안을 너무 먹인다. 언니 앞에서는 매번 태국 과일 두리안을 맛있게 먹어야 도리.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많다지만 솔직히 내겐 고구마 맛에 가까운, 먹을 만한 과일이다. 그래도 제발 강요 좀 하지 않았으면... 이젠 정말 배 터질 것 같은데 싶은 순간 언니의 한마디.

“쏘운 이즈 타이.” 태국 사람 다 됐네.

두리안을 닭발로, 청국장으로, 순대로(순대의 경우, 서양 사람들은 대개 좋아하긴 한다) 바꿔보면 상당히 친숙한 장면 아닌가? 아이고오 언니이... 거의 매년 태국을 갈 정도로 태국을 사랑하지만, 나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배운다.

외국 사람들에게 굳이 “한국 사람 다 됐네.”를 시전하며 우리나라, 우리 문화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외국인들 마음에 쏙 드는 한국을 잘 포장해서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잘 먹으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문화가 부담스럽다.

어느 한 쪽이 정답인 건 아니다. 기죽을 필요 없고, 무조건 맞춰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속단하고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았으면 한다.

TIP



마이크를 잡았을 때

“어휴, 목소리가 ‘마이크빨’을 잘 받으시네요.”

어느 겨울, 가을 성수기의 마지막에 접어들 즈음 동시통역하러 가서 음향 엔지니어에게 들었던 칭찬이다. 며칠을 두고 기분이 좋았다. 외모에 대한 칭찬, 혹은 심지어 인성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들 이만큼 기분이 좋았을까 싶다.

마이크는 일종의 악기와 같다. 그냥 내 목소리보다 마이크를 타고 나오는 목소리에 더 자신 있다. 마치 카메라 ‘빨’을 잘 받는 얼굴이 있듯이, 마이크 ‘빨’을 잘 받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 것 같다.

목소리 자체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이크를 통한 내 목소리를 동시에 직접 들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잘 되어서일 수도 있다. 지쳐서, 무심코 내 목소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지,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해지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듣게 되니 정신을 바짝 차린다. 발성의 기본은 복식호흡이라 하지 않던가, 배 근육에 힘을 준다.

매번 마이크를 사용해 통역을 하지는 않는다. 주로 큰 연회장 등에서 순차통역이 진행되는 경우, 사회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 마이크

를 쓴다. 회의장 규모가 작으면 마이크가 필요 없다. 아예 한 명의 대상에게 속삭이듯 통역해 주는 위스퍼링 통역도 있다.

동시통역을 하면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마이크를 통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헤드폰을 착용하고 연사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를 하면 자꾸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에도 연습 차원에서 발음을 명료하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역 공부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련 삼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모니터링해봤을 것이다. 대학원 재학 중에,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엔 오히려 ‘내 목소리 듣고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하던 것을, 몇 년이 지나 좀 더 능글맞아지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뱃심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정신이 번쩍 들곤 한다. 이걸 주기적으로 의식해야 개선된다. 말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또렷하고 낭랑하다가, 점차 뱃심이 빠지면서 힘없는 목소리가 된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게 바로 마이크를 잡고 일하면 계속해서 자기 모니터링이 되어 좋은 부분이다. 생방송으로 내 음성이 들려오니, 배에 힘이 딱 들어간다.

틈이 나면 한국어, 영어를 하는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보니, 말을 오래 할수록 볼멘소리, 비음이 섞여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다 살짝 지쳐서 목의 힘으로만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입을 작게 벌려 말할 때 더 심해진다.

발성이 좋은,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꼭 미성일 필요도 없다. 깨끗하게 잘 들리는 말을 듣다 보면 정갈하게 펜 구슬을 보듯,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악보 그대로 치는 피아노 연습곡을 듣는 듯 기분이 좋다.

좋은 음성에 대한 애호는 아무래도 통역사 직업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이로 인해 나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오디오북을 사서 들으며 명배우의 발성과 전달력에 감탄하고, 발성에 관련된 책도 사서 읽게 되었다.

어느 국제 행사의 한국어-영어 MC를 한 적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 공연이 있었고 공연 음향을 살리기 위해 별도로 음향업체 엔지니어가 나와 있었는데, 중간중간 이 분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국제회의 통역을 가면 주로 동시통역 부스 등 통역 장비 업체 엔지니어를 만나게 되는데, 음향과 조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엔지니어라서 지방 축제나 공연 행사 등의 일을 주로 한다고 했다. 역시 잡담 중에 재미난 건 연예인 얘기다. 어느 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경우 음향, 음질, 그 무엇도 불평하는 법이 없단다. TV를 통해 다소 경박하다 싶을 정도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수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트집 잡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다니, ‘역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다르구나.’ 느꼈다. 그래, 처한 상황에서 있는 힘껏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 음향업체 ‘실장님’은 이 밖에도 마이크를 다루는 ‘꿀팁’을 전수해 주기도 했는데, 목소리에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라면 통역할 때,

또는 사회를 볼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편이 음성이 더 듣기 좋게 출력된다고 하셨다. 반대로 베이스가 약한 타입이라면 마이크를 되도록 멀리 대는 게 좋다고 한다. 실제로 내 마이크의 위치를 이리저리 조절해 주며 출력되는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걸 확인시켜 주셨다. 목소리가 잘 들리고 들리지 않고의 차이가 단순히 볼륨의 차이인 줄만 알고 있다가 귀가 뜨이는 경험이었다.

꼭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듣기 좋은 음성과 발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은, 국어도 영어도 사전을 자주 찾아보고 표준 발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사전을 찾으면 바로 음성을 들어볼 수 있으니 더 편하다. 우리말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급적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 표준 발음은 뭔지 한 번씩 눈여겨보려 한다. ‘신라’의 발음이 [실라]라는 것, ‘강릉’의 발음이 [강능]이라는 것, 어려서 배우고 이미 가물가물 잊힌 게 많아 꼭 체크한다.

영어는 특히 내가 좋아하는 발음, 어조를 가진 사람을 찾아 많이 듣고 따라 하려고 한다. 언젠가 메건 마클 서식스 공작부인 Meghan Markle, Duchess of Sussex이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25주년 행사에서 연설하는 동영상을 본 후, 메건 마클은 나의 ‘딕션diction(지극히 복잡한 구조에서도 단어가 깨끗하게 들리고 이해가 명확하도록 하는 것) 이상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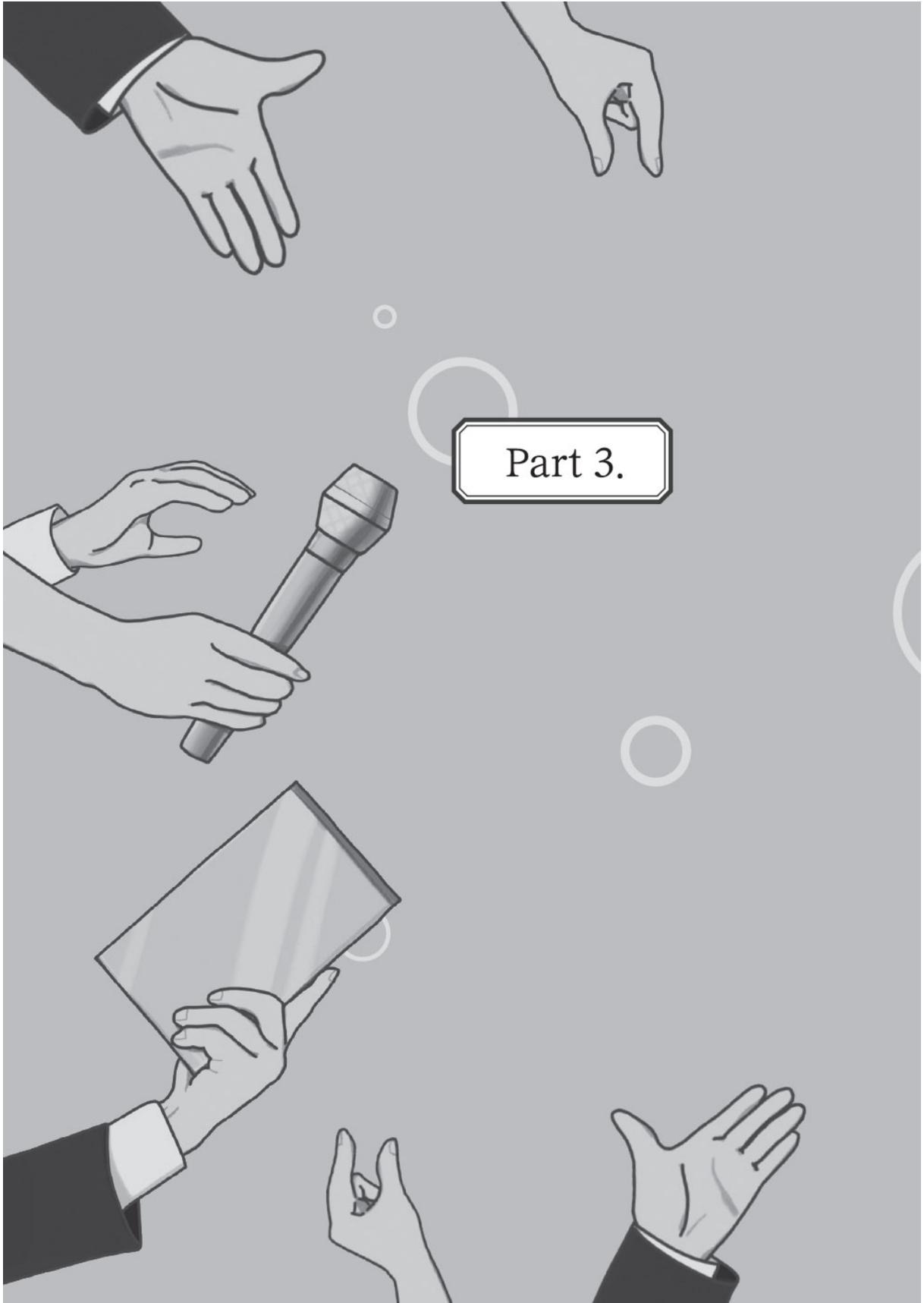
공부 삼아 정치인, 왕실 가족, 다양한 이들의 연설 동영상을 접해왔지만, 메건 마클이 유독 신선했던 이유는 그녀가 배우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발음과 어조, 발화의 속도가 근엄하려 애를 쓰기보다는 현대적이고 시원시원했다. 깨끗하게 잘 들렸다.

몇 년 전이던가, 탕웨이의 중국어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며 ‘중국어가 이렇게 우아한 언어인 줄 몰랐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던 기억이 겹친다. (흔히 영국 억양을 품위와 전통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메건 마클은 미국 억양도 듣기 좋고, 섬세하고 따뜻한 품위가 있음을 보여줬다. 장중하게 말을 늘이거나 끊어서 하지도 않는데 가뿐하게 잘 들린다. 살짝 드라마틱하게 빨랐다가, 강조도 했다가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들린다.

마클의 연설 영상을 틀어놓고 열심히 따라 하며 또 하나 눈여겨본 게 있는데, 그녀가 시종일관 얼굴에 열은 미소를 띠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또 신기하다. 미소 띠는 얼굴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온화하게 바뀐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웃으며 말하자. 좋은 음성을 얻을 것이다. 웃는 얼굴이라면 결국 밝은 마음가짐이어야 하는데, 정리해보면 아름다운 어조와 음성을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하고, 미소를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슬픈 이야기를 전하며 실없이 웃고 있을 수도 없고, ‘방방 뜨는’ 어조로 말을 해서도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밝고 단단한 마음으로부터 예쁜 말이 풍풍 솟는 것 같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다 또 하나 배운다. 말을 할 때도 꼭 살짝 미소 띠는 얼굴로, 좋은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겠다.



Part 3.



하루하루가 쌓여
삶을 이룬다는 것

길몽일까, 악몽일까?

통역몽通譯夢

통역 부스의 창문 너머 저 멀리 연사가 화면에 자료를 띄워놓고 발표를 시작했다. 내가 통역할 차례, 외국인 연사의 발표를 영한 통역,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면 됐다.

‘...어라?’ 연사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말하는 빠르기도 괜찮고 연사의 억양이나 발음도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어쩐지 통역이 힘들었다. 알고 보니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 난 부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애써서 통역하고 있었던 거였다.

일단 소용없는 헤드폰을 벗어던졌다. ‘지금 소리 안 들어와요’ 통역 중에 휘갈겨 쓴 메모를 읽은 파트너 통역사가 서둘러 통역 장비 업체 실장(보통 통역 현장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을 찾으러 나가는 그 순간, 일어났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동시통역하는 꿈을 꾸다니. 꿈에서 나온 파트너는 실존 인물이었다. ‘현장감 넘치네.’ 꿈에서 당황한 기분이 잠에서 깬 다음까지 이어져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사실 이 정도면 꽤나 리얼하고 ‘점잖은’ 꿈에 가깝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통역몽夢’ 그러니까 통역하는 꿈을 꾸다.

한 번은 암울한 근미래 배경의, 영화 <설국열차> 생각나는 SF 분위기 배경으로 동시통역 들어가는 꿈을 꾸다 아침에 일어난 적이 있다. 오물이

넘쳐나는 황량한 항구도시에서, 동시통역 파트너는 통대 동기 중에 국방 쪽 통역 베테랑인 언니.

우리 등 뒤로 총을 겨누는 지구인 반군 세력이 있는 가운데, 무려 ‘자료 아직까지 안 나온 발표 파트 배분 어떻게 할지’를 논했다. 삼엄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통역 일은 다를 게 없다. 파트 나누고, 자료를 행사 시작 직전까지 배포하지 않은 경우 주최 측에 요청해서 이메일로 받고…….

깨어나고 보니 이 꿈에서 국방 전문 통역사가 파트너로 나왔다는 게 쓸데없이 디테일해서 한참을 웃었다. “나 통역 가면 쓰리스타한테 주차권 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하는 그녀의 담대함이 꿈속에서도 빛났다. 등에 총구가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통역이 시원시원 잘 나왔다.

한창 남북한 대화, 북미 대화가 오가던 2018년에는 남북한 관련 통역하는 꿈을 꾸곤 적이 있는데 이진 순차통역 상황이었다. 통역 중에 permanent peace라는 표현을 듣고 ‘항구적 평화’라고 옮기고는 ‘영구적 평화’라고 했어야 더 맞지 않나 째째해하다가 깬다. 꿈에서의 통역이 문제가 된 건 없었지만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나,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업무상의 째째함을 그대로 갖고 일어나는 기분이 묘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근성을 동원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다.

‘영구적’이 ‘오래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것’, ‘항구적’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결국 같은 의미였다. 그리고 특정 용어에 대해 어느 한 표현으로 고정해서 통역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계자가 대개 미리 언질을 준다. 예를 들어, 한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꼭 옮겨달라고 미리 요청이 온 적이 있다. 어쨌거나, 그날 내친 김에 판문점 선언 용어정리를 해두었던 기억이 있다.

업계 최고의 실력자는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 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커리어를 키우고 다듬어왔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나의 직업 통역사, 직업병의 하나인지 가끔씩 통역하는 꿈을 꾀다.

일상생활에서도 불쑥 직업병이 고개를 들 때가 있다. 봄이면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큰 아이의 학부모 면담에 참여하는데, 미국인 선생님이 아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말씀하는 동안 난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위스퍼링 통역을 해주고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자 반 박자 후에 한국어로 속살거리기 시작하는 나를 보고 원어민 선생님이 살짝 당황했지만, 남편도 아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알아야 하니까.

“아이가 꼼꼼한 성격이고 수업도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간의 전환도 빠르고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쩐지 썰썰 웃고 있던 남편이 얄밋게 한마디 했다. “박소운 많이 늘었네?” 거의 병아리 통역사 시절, 일터에서 만나 결혼했으니 전보다 통역 실력이 늘었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좋아야 할지.

그런가 하면, 2017년 타이완 여행가서는 호텔 로비에서 나도 모르게 국제회의 행사장 쪽으로 발길이 가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로비 앞의 행사명을 적어둔 팻말, 행사 참석자 명패를 목에 건 사람들. 무엇보다도, 장내 정리를 위한 상쾌하고 잔잔한 음악. 내 일상을 구성하는 한 장면이 다 보니 잠시 일하러 온 줄 착각했다. 순간, 살짝 행사장으로 들어가 타이완의 통역 부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쉽게 발길을 옮겼다.

“통역사들도 영화 볼 때 자막 보나요?”하는 살짝 식상한, 통역사라면 누구나 들을법한 질문의 답도 이렇하다. “음성을 들으면서 자막을 자꾸 확인하며 봅니다.”

눈이 자꾸 자막으로 향하는 건 본능이라 치고, 직업병인지 자꾸 원문(영어대사)과 번역문(자막)을 비교 분석한다. 물론 요즘이야 자막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만, 가족과 TV를 시청할 땐 대부분 자막을 켜고 보게 되니까.

Americas(미주)를 ‘미국’으로 번역하는 등의 소소한 오역을 발견하거나, ‘저건 문장을 좀 더 다듬었다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싶을 때가 있다. 어느 특정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소文化素, cultureme’의 번역을 보며 자막이 들어가는 공간이 한정적인 영상 번역의 특성상 해당 문화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쉬울 때도 있다.

이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자막 텍스트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내가 열한 살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엄마가 내게 말했다. “기내에서 〈서편제〉를 틀어 줘서 봤는데, 글썄 절절하게 심청가 부르는 장면엔 자막이 ‘미스 청, 미스 청, 웨어 아 유?’ 이렇게 나오지 뭐니.”

아버지가 ‘소리를 완성하라’며 직접 눈을 멀게 한 여주인공이, 자신과는 반대로 눈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한 딸의 이야기를 판 소리로 옮긴 〈심청가〉를 부르는 장면.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불쑥 솟는 애절한 장면이고 〈심청전〉의 내용이야 한국인이란면 누구나 잘 아는 장면이지만, 그걸 영어권 관객에게 ‘미스 청Miss Cheong’이 어디 갔느냐는 가사로 전달하게 되면, 오역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같은 감상을 자아낼 수

없다. 그렇다고 일반 텍스트 번역하듯 ‘역자 주’를 줄줄 달 수도 없는 노릇.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깊이 기억에 남았다.

이런저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미드며 영화를 감상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한 언어를 들으며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동시통역만큼이나 힘이 든다. ‘난 왜 이렇게 굳이 피곤하게 사는 거지….’

이것도 직업병의 일부라 할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아침에 잠이 깨기 위해 TV 뉴스를 켜거나 음악을 듣는다. 그런데 나는, 뉴스를 볼 땐 집중해서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들을 땐 음악을 듣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왕이면 조용한 게 좋다. 배경음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의 피로감을 느끼듯, 나는 귀의 피로감에 유난히 예민하다. 귀가 쉬어야 비로소 내가 쉰다.

누구나 자기 직업에 따라 생기는 습관, 직업병이 있다. 세계 지도를 눈감고도 그릴 수 있는 세계사 교사인 친구가 있고, 아이를 낳고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바이탈 체크를 하던 간호사 시누이가 있으며, 말만 하면 ‘와꾸(틀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온 언론계 속어. 전체 구성을 뜻함)’며 ‘야마(이 역시 일본어 山에서 온 언론계 속어, 보통 기사문의 첫 문장을 뜻함)’를 찾는 기자 친구들이 있다. 때로는 이 직업에 물들어가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일의 성과에 목을 맨 나머지 인성을 희생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옷처럼 편안해지는 나의 일에 감사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통역사? 그게 무슨 전문직이야?

여기서 질문 하나. 영어로 ‘책임’을 뭐라고 옮기면 좋을까?

Responsibility를 떠올리며,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면, 땡! 여기서 책임은, 기술 관련 회사에서 쓰는 직급 체계의 책임이었던 게 문제의 함정이다. 요즘 들어 직급 체계 자체를 없애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IT 등 주로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는 기업에서는 사원-선임-책임-수석보-수석으로 구성된 직급을 쓴다. 회사마다 영문 명칭은 다르겠지만 대략 principal engineer 정도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매일같이 다른 일터에서,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보따리장수’같은 통역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어렵다. 통역을 앞두고 배경지식을 약착같이 공부하지만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표현까지는 미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발표 자료 번역 의뢰가 들어와서 한창 작업을 하다가 ‘정밀 담당’이라는 표현을 두고 번역이 막혀 고심했던 기억이 있다. 정밀하게 담당하라는 뜻일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객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작업은 계열사 중 하나인) ○○ 정밀화학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는 의미라는 답을 듣고 무릎을 쳤다. 회사 내에서 매일같이 오가는 대화라고 생각해보니 그럴 만했다. “그건 ‘정밀’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니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밖에도 업계에서 아직까지 일본식 외래어나 일본어 표현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대화인데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꽤 된다.

한중 통역사인 지인은 토목·건설 관련 통역에서 ‘라바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어리둥절했다가, 안전 표시를 위한 고무 소재 삼각뿔rubber cone을 뜻한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다고 했다. 나의 경우 실무진의 열띤 논쟁이 오가는 회의에서 나온 ‘후레바’라는 단어를 어떻게 통역해야 하나 당황했는데, 문의한 끝에 맛, 향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플레이버flavor였음을 알게 되어 웃었던 적이 있다.

그 회사 사람이 아니다 보니 끝끝내 채워지지 않는 부분, 사람이 하는 말이다 보니 완벽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안고 간다. 그래서 어떤 업계 선배는 “통역사는 완벽주의자들이 하는 직업이 아니야.”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린다거나 과거의 실수가 자꾸만 떠올라서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없다면, 통역을 직업으로 삼아 계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배경지식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적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면, 통역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대체 무엇일까? 소통을 돕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고객사 직원들도 영어를 저마다 한다. 그 분야 전문지식에서는, 여기가 ‘내 회사’가 아닌 관계로 아무래도, 디테일에서 부족할 때가 많다.

그래서 통역사와 일을 많이 해본 고객사일수록, 통역사에게 어느 부분, 어떤 수준까지 기대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전문 용어를

죽도록 외우고, 배경지식을 미친 듯이 공부해가도, 평생을 바쳐 그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의 전문성에는 도달할 수 없는 법.

업무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내겐 “공대 나오셨어요?” “이 분야 일을 오래 하셨나 보죠?” 혹은 “우리 회사 직원이 통역하는 줄 알았어요.”가 최고의 찬사다.

10년쯤 이 일을 하다 보면, 일터에 투입되어보면 나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일종의 ‘왕따’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낯선 대화가 빠르게 오가는 가운데 그걸 양쪽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전, 잘 모르는데요...’ 점점 더 통역사는 딴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방 안의 코끼리 신세(elephant in the room, 입 밖으로 꺼내려 못한 문제)가 된다. 차라리 지적을 해주는 고객이라면, 감사히 여기고 고칠 텐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통역사는 어렴풋이 느끼고, 당사자들은 조용히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건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런데, 암만 노력해 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훨씬 더 수월하다. 애초 청소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훈련이 되어 있는 프로니까. 하지만 ‘내 집’이 아닌 이상은, 책임감의 정도도 한계가 있고 내 집처럼 구석구석 잘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업으로 삼고 있기에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실 기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기자는 과연 전문직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곳저곳, 소위 ‘나와바리’라 불리는 출입

처를 돌면서 내 분야는 아니지만 깊이 파고드는 생활을 한다. 대략 부서 이동이 1~2년에 한 번씩 있다고 치면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몇 달 하는 통역사보다는 긴 기간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역사는 전문직인가?”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나 자신도 푸념한다. “이건 뭐, 나 빼고 전부 전문가이신데 내가 통역을 해야 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나 더 ‘과연 통역사는 전문직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때로는 통역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게 “그게 무슨 전문직이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정중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만났다는 ‘통역사’는 행사 도우미,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였다.

나는 일할 때 음식을 서빙하지도 않고, 친절한 것은 나의 인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나의 업무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회의에서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기자 시절과 엮어 보자면, 사실 나는 일반적인 회사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거나, 통역 또는 번역,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마흔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스캐너를 쓸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A4용지를 넣어야 바른 방향으로 스캔이 되는지 헷갈리고 각종 행정 서류 처리가 미숙하다.

그 밖에도 입체적인 생각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비품이 떨어진 걸 발견했을 때 가져다 놓는 센스와 배려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눈앞에 떨어진 미션에 대해 몰입하고, 해치우고, 그러면 잘한다 소리 듣는 일만 해봤다.

나 자신은 이런 점에서 부족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친절한, (가급적이면 예쁜) 여성들의 직업’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통역사는 전문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전문직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 정의한다는데, 통역과 번역이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전문직 아닌가. 사실 나는 막연히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자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통역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통역 일을 과분한 기회라 여기고 열심히 뛰어왔다.

전문직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자격증은 안타깝지만 국내에 없다. 대신 통역대학원 졸업장을 통역사 자격과 대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이 ‘통대’를 졸업한 통역사도 너무 많아서, 전문직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인 ‘희소성’도 애매해졌다. 자기 자신이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하는 자칭 한영 통역사도 봤다. 통역사는 영어로 ‘인터프리터interpreter’다.

단순히 어려운 일을 해서, 하루만 일해도 받는 보수가 꽤 커서 전문직이라는 게 아니다. 그토록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통역사는 전문직이다. 그런 어려운 작업을 기술적으로 풀어
어서 수행하는 것이 나의 기능이고 사명이다.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나를 뒤로 보진, 통역사는 너무나 중요
한 일을 맡은 전문직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자신감에
기대어, 잘하지도 못하고, 10년째 냉탕 열탕을 번갈아 겪게 하는 이 험난
한 길을 계속 걷기로 했다.

무척 좋아하는 유흥준 교수의 글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검소하나 누추하지 않
다), 화이불치華而不侈(화려하나 사치하지 않다)는 말을 배웠다. 나는 ‘전문직’ 통
역사로서 ‘검이불굴謙而不屈(겸손하나 비굴하지 않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절
박하지 않게’를 추구하기로 한다.

업계 고수들, '일잘러'들을 만나는 기쁨

‘하, 나도 이런 일이 들어올 때가 있네?’

통역 장소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들떴다. 평소 자주 입지 않는 커다란 핑크색 꽃무늬가 놓인 원피스를 오늘의 전투복으로 골랐다, 통역 주제에 맞춰서.

어째서인지 나의 이력서는 주로 IT, 의약학, 투자 등등 좀 딱딱한 주제 통역으로 채워지고 있다. 주머니며 가방을 뒤지면 의약학 관련 회의 통역 갔다가 기념품으로 받은, 제약회사 로고가 박힌 볼펜이 두세 자루씩 나온다.

한번은 화장품 관련 통역 일을 하게 되어 또 좀 소프트한 주제라며 기뻐했는데 정작 회의에서는 제약 통역하며 접했던 GMP, 성분표시, IT 통역 하며 접했던 빅 데이터 얘기가 주로 나와서 ‘아, 그럼 그렇지.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다 있었겠지.’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 날의 주제는 ‘꽃’. 내가 해온 일들에 비해 소프트한 주제라서 설레기도 하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더 긴장되기도 했다. 분위기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미리 파악해둘 겸 행사 장소인 호텔에 시작 두 시간 전쯤에 일찍 도착했다.

행사장은 꽃향기로 가득했다. 화훼업계 세미나 행사다 보니 행사장을 꽃으로 꽉 채워놓은 것이었다. 대형 꽃 장식은 섬세하면서도 압도적이고

웅장한 느낌을 줄 정도로 규모가 컸다. 호텔 등에서 경력을 쌓은 유명한 플로리스트들과 한국과 미국의 대형 화훼업체 종사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 역시 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통역 자료를 보면서도 이미 기분이 한껏 좋았던 터였다. 생소한 분야이니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이 풀리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다. 어느덧 마지막 발표자의 차례. 미국에서 작약^{peony}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대형 화훼농가의 여성 CEO였다.

“저는 평생을 꽃에 바쳐왔는데요, 꽃이란 사람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밝혀줍니다. 오늘 통역사 분도 마침 아름다운 작약 무늬 드레스를 입고 와 주신 거죠?”

때로, 가끔씩 통역사도 통역 외의 말을 할 때가 온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장미꽃 무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꽃잎이 부드럽게 안으로 말려있고, 연한 핑크빛을 띄고 있으니 작약이 확실해요. 작약 전문가인 내 말을 믿어요!”

과연 작약 전문가의 말씀이 맞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등근 꽃의 형태가 작약 같았다. 스스로를 ‘전문가’라 칭하시며 살짝 발을 구르는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날의 청중도 발표자도, 꽃을 다루는 종사자들이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며 입을 모았다. 이걸 통역하며 내게도 예쁜 행복감이 전염되는 기분이었다. 주최 측에서 영어 이름도 Jasmine, 꽃 이름인 내게 ‘꽃 좋아하는 통역사 만나 반갑다’며 행사 끝나고 왁스플

라워wax flower, 용왕꽃king protea이 장식된 큼지막한 부케를 선물로 들려 주셨다.

예상치 못했던 좋은 선물. 하지만 이날,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자기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느끼게 되는 감동, 행복 같은 것. 그리고 나 역시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통하는 느낌'.

소프트한 주제라고 준비가, 실제 통역이 만만하진 않다.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다.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을 죽어라 공부해서 가도, 참석자가 가볍게 던지는 농담에서 공든 통역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다.

이날 행사 전까지는 전문 통역사를 기용한 적이 거의 없는 주최 측에서, 통역 자료로 참고하라고 내게 꽃 도감을 보냈다. 눈이 즐거운 꽃 사진이 한가득한 건 좋은데, 생소한 영문명과 학명에 우리말 꽃 이름을 연결해 외우려니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두어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이걸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 가야 하나. 한숨 쉬면서, 그래도 즐겁지 않냐고 나 자신을 격려하며 열심히 준비하던 기억이 난다.

고생스러웠던 준비 과정과, 아찔하도록 짙은 꽃향기가 났던 아름다운 행사장과 함께, 자기 분야를 사랑하는 프로를 만났던 기억으로 이 날의 순차통역은 마무리되었다. 프로가 프로를 만날 때의 기쁨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반가움, 분야는 달라도 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보다 앞서 몇 년 전에는, 말하자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통역을 해야 하는 국제행사의 담당

직원은 나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는데 통역 건이 확정되고 처음 전화 통화에서부터 껍딱한 인상이었다.

“사실 우리 직원들도 다 영어는 잘 합니다. ‘통역’을 쓰면 용어나 내용 파악이 엉망이 되는데 대표님이 이번 행사는 큰 행사라 굳이 통역사를 부르자고 해서…”

일단 나의 직업은 ‘통역사’고 ‘통역’은 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나를 ‘통역’이라 부르는 데에서 기분이 좀 상했다. 용어 사용이나 내용 파악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수밖에 없다. 아주 생소하고,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의 세미나 행사이긴 했다. 관련 경력이 있는 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통역사를 기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에게 통역을 맡겨 행사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건 회사 결정이니 내 탓도 아닌데.

“네, 과장님. 행사에 누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겠네요. 제가 준비 과정에서 모르는 게 많아 이것저것 여쭙보며 귀찮게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정싸움할 것도 없이, ‘일이다, 일.’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 무사히 통역 일 마치면 되지 않겠는가. 최대한 동글게 잘 대답했다. 오죽 걱정이 되어 그러시겠지.

전화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 다른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다. “네가 통역사 과외 선생이야. 교육 잘 시켜, 해매지 않게.” 이쯤 되니 살짝 부아가 치밀면서 한 번 제대로 해야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어째서인지 아직도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TV 드라마에서도 단정하게 쪽 찐 머리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이

동시통역을 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국제행사에서 쪽 찢 머리에 검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직원들은 행사 진행 도우미들이다. 일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통역사는 하나의 직업이지, 관광 가이드나 외국어 강사가 틈틈이 시간을 내 하는 업무가 아니다. 매번 새로운 분야, 주제를 마주해야 한다. 있는 힘껏 공부를 해 가는 것은 내 직업의 커다란 한 줄기다.

보름 정도 지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네다섯 명을 초청해서 종일 진행하는 세미나의 순차통역을 하는 날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 보자’는 듯 의심하는 눈초리의 담당 직원을 앞에 놓고, 나는 생각을 바꿨다. 행사의 성공이 누구보다 중요한 과장님이 날 가장 많이 도와주겠지.

“과장님, 오늘 오후 세션 자료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아는 걸 안다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것이 바로 진정한 앎이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왕년의 기자 근성을 발휘해 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 밖에도 음향의 문제점이나, 하다못해 청중이 대부분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난 거침없이 과장님을 불렀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막 장마가 시작될 무렵의 후텁지근한 날, 드디어 세미나가 끝났다. 언제나 일이 끝나면 그렇듯 피로가 뚝뚝 흘러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마음속 깊이에서 ‘오늘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다’는 느낌이 왔다. 인사를 드리고 귀가하려는데 저 멀리에서 ‘과장님’이 뛰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야가, 잘 알려진 분야가 아니에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외국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전부입니다. 생소한 분야다 보니,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통역사님 모신 거였는데, 청중 분들이 통역 덕분에 이해하기 수월했다고 전부 칭찬하시네요.”

커튼 콜을 받은 배우의 기분이 이럴까. 항상, 내면으로부터 ‘똑바로, 제대로’라는 말이 들려온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 나 자신에게 채찍질이라도 시원하게 갈기고 싶을 때도 있다. 어쩌다 하루가 아닌 직업으로서 통역 일을 하고 있으니 매일같이 통역을 잘하는 것도, 늘 칭찬과 감사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스스로도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나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행사의 성공을 바라는 회사 직원의 전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도 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악착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엔 좀 붉이는 기분이었지만 결국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았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모습 보며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의 인사말은 진심이기도 했고, ‘일하는 모습 보며 많이 배웠다’는 말이 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칭찬일 것이란 생각에서 나온 일종의 ‘맞 아부’이기도 했다.

자기 일에 푹 빠진 사람들을 기쁨, 서로 알아보는 기쁨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녹이고도 남는다.

근성의 프로 샵질러

유난히 힘들었던 한 달을 보낸 적이 있다. 늦겨울의 통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나의 멘토 중 한 분인 김현경 간호학 교수에게 시간을 잡자고 SOS를 보냈다.

어둑어둑한 근황을 말로 풀어 내린 내게 교수는 본인의 ‘샵질담’, 그러니까 실패담을 이야기해 줬다. 친분이 있다고는 하나 놀라웠다. 좀 더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 정도로 친한 줄도 몰랐다.

일단은 자신의 실패담, 아픈 경험을 기꺼이 내놓고 공감해 준 김현경 교수에게 감동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 물이 들수록 다들 숨기려 하지 않나. 허심탄회 내놨다간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것, 나의 약점. 나의 괴로운 이야기를 하며 나도 물론 위로와 응원을 기대했지만, 대단해 보이기만 하는 교수의 실패담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건 ‘타산지석(他山之石)’하곤 다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실패했으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구나’로 배운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구나 하며 다시 앞으로 나갈 기운을 얻는다.

“Vires acquirit eundo(나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김현경 교수의 좌우명이기도 한 라틴어 문구다. 나도 이날 만남을 통해, 다시 나아갈 수 있었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누구나 망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빠르게 잊고 내 자리로 돌아와 역세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껏 그녀는 내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분야 밖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같은 업계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정성을 들여 가꿀 것. 통번역 업계에 있는 나와, 간호학계에 있는 교수의 교류도 딱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일을 하는 통번역사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면, 서로 겪는 어려움과 금지, 즐거움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역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눈다. 하지만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다.

오랜 기자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다. 신문, 방송을 통해 접하는 이야기보다 한층 입체적인 그들의 고군분투를 듣다 보면, 늘 눈앞의 통역, 번역 준비에 빠져 우물 안 개구리가 되려다가 정신이 번쩍 든다. 음악 하는 친구들, 예술가 지인들을 만나면 배우는 게 많다. 교사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라 의외의 공통점이 많아서 웃게 된다.

그녀와의 만남에서는 철저함 속에 보살피려는 따뜻함이 있는 간호사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며 또 대학에서, 학원에서, 방송을 통해 후배들을 양성하려는 큰마음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삼질 경험 공유(삼질이라는 말, 군대 질감으로 좀 거칠긴 하다. 유행 지난 말이기도 하고. 삼질 다음으로는 비슷한 ‘빨깃’이라는 시쳇말이 생기는 것까진 알고 있고, 요즘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

가 있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힘들었던 경험, 서러웠던 이야기를 터놓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 있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마지막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나의 삽질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후배는 그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더욱 커갈 수 있지 않을까.

내친김에 나의 삽질 경험을 몇 개 풀어본다. 이하 나의 삽질담.

일단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기자 초년생 시절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실력 간의 괴리에서 오는 고뇌가 상당했다. 수습을 갓 뚫 병아리 기자 시절, 나는 경제지의 사회부 소속 기자였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이른바 ‘사스마와리(언론사 경찰팀 즉 사건팀을 일컫는 말)’로 잔뼈가 굵은 종합지 기자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했다.

어느 비극적인 사건 취재에 투입되었다. 선한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건의 상갓집. 옹기종기 모여 있던 기자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찾아왔다고 했다. 열심히 수첩에 국회의원 ‘멘트’를 받아썼다. 그리곤 내가 당당하게 물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궁금한 건 그때그때 당당하게 물어야 제대로 된 기자라 배웠다. 그런데 동료 기자들 분위기가 어찌 움찔한 것 같았다. 그나마 나와 신세가 비슷한 H경제지 동료 기자 오빠가 귀뜸했다. “야, 이 동네 지역구라니까?” 검색만 해도 되는, 모르고 있었으면 초짜 티 나는 것을 대뜸 질문한 거였다. 취재 현장에서 기죽지 않는 터프한 여기자의 길은 요원하구나.

내친김에 소소한 기자 시절 삽질담 하나 더. 잠이 쏟아지는 심야의 기자간담회, 졸음을 쫓으려 조용히 껌을 우물우물 씹었다. 그리고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발표 내용을 열심히 타이핑했고 기사를 송고했다. 오늘의 임무, 깔끔하게 끝. 그런데 다음날 회사 편집국에 내근하러 들어갔더니, 팀장 선배가 날 보고 말씀하셨다. “소운! 수고 많은데, 야 너 방송 카메라 있는 기자간담회에선 껌은 씹지 말아야지. 어제 YTN에 너 껌 씹는 거 한참 나오더라.” 다행히 잠깐 놀림당하고 넘어갈 정도의 일로 여겨졌지만, 당사자인 나는 많이 부끄러웠다. 언제쯤 아무지고 그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진짜 기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런데 그 후로 한참이 지나 통역사로 하는 일을 바꾸고, 어느 초여름의 중남미 관련 학술회의 동시통역. 동시통역은 부스 안에 통상 2인 1조로 들어가 교대로 통역을 한다. 파트너 차례에는 조용히 통역 부스 밖으로, 행사장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다. 내가 통역하는 동안 업무 관련 전화를 받지 못한 게 있어, 조용히 나가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중이었다.

거대한 행사장 문을 열고 살짝 들어온다는 것이 그만, 짜당 넘어지고 말았다. 어차피 청중은 나를 등지고 있었고 호텔 최대 규모 홀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특별히 눈에 띌 건 없었는데 문제는 저 멀리 연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던 교수가 나를 봤다는 것. 많이 우스웠는지 그는 발표 도중 웃음을 터뜨리셨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하하...” 통역사는 존재감이 없을수록 유능한 거라는 신념에 따라 행사에서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 그렇게도 노력하건만, 짜당에 장사 없었다. 내 꼴이 우스운 것보다는 행사 전체의 흐름이 끊길까 봐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교수는 이내 발표를 이어 나갔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얼굴이 좀 두꺼워진 나는 다시 통역에 집중했다.

안타깝게도 진짜 야무진 사람은 아직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부끄러워서 며칠이고 잠자리에서 발차기를 날리지는 않으니 이것도 나름의 성장인 듯하다.

이건 좀 심각한 것. 통역 장소까지 외교관 공무 차량에 동승해서 이동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엔 운전석의 사선 뒤가 상석이라는, 의전 상식을 깜박했다. 외교관이 먼저 타시라(이게 예의인 줄 알았다)하고는 내가 나중에 타서 상석을 차지한 셈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지만, 뒤늦게 사과하자 외교관은 치마를 입은 내가 나중에 타야 편했을 거라고 배려해주셨다. 그래도 얼굴이 붉어지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몇 년 후, 통역사 여러 명이 투입되어 각자 담당하는 사람에게 위스퍼링으로 통역하는 자리, 포토 세션(photo session), 사진 촬영 순서가 되었다. 관계자만 사진에 담기는 게 당연한 큰 규모 행사였는데 통역사 후배 한 명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가 가장 선배였고 전체 통역사를 총괄하는 역할로 투입되었던 터였다. 당연히 손을 있는 힘껏 허우적거리며 후배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오세요, 나와!” 후배는 늠름했다. 사진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의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하는 실수도, 나만 하는 건 아니구나 했다. 그때, 뭔가 잘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꼰대 같아 보일까 봐’ 후배에게 조언은 해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굳이 풀어놓는 이유는, 내가 멘토의 실패에서 누구나 실패하고 깨지며 성장한다는 걸 배웠듯, 누군가도 위로받고, 다시 전진하고 도약하며 성장할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 이런 배움, 이런 만남을 더 키워볼 생각을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나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힘을 얻고, 동반성장할 사람들의 솔직하지만 예의 바른 모임.

완장을 찬 통역사

“통역사님, 매경의 영문 이름은 그게 아니라고요...”

최대한 조용히 일어나 기자 회견장 연단으로 향한 나는 엉뚱하게도(!) 내 명함을 내밀었다. 2007년, 아니면 2008년 가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회사에서 주최한 국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외국인 석학의 기자 회견에서, 배석한 통역사가 매경의 영문 이름을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해, 통역사의 입에서는 경쟁지인 한국경제의 영문명이 나오고 있었다. 하필이면 매경 주최 행사에서. 해당 기자회견에 들어가 기사를 쓰는 임무를 맡은 나는 잠시 고뇌 끝에, 내 명함 뒷면, 그러니까 매일경제의 영문명인 Maeil Business Newspaper가 인쇄된 면이 보이게 꺼내들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통역하는 동안은 신경이 대단히 곤두선다. 기자시절이지만 이미 통역대학원을 다녔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배려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달했다.

통역사가 되어, 통역 현장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역사들끼리는 ‘통역사가 여러 명 배석한 회의에서 통역해야 하는 경우’ 느껴야 하는 긴장감과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통역대학원 교수들조차, ‘제자와 동시통역 파트너를 하게 되면 긴장은 나의 몫’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서

로가 통역의 부족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민망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동료는 실수를 하더라도 대개 조용히 쪽지에 써서 건네준다. ‘이것 봐라, 너 지금 통역 틀렸잖아!’하고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통역사도 한 명 겪었다. 통역에서 실수가 나오기도 전, 내가 통역 들어가기 직전쯤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염려’해줬다.

“이거 우리 회사 높은 분들도 오는 회의인데, 통역할 수 있겠어? 정말 할 수 있겠어?”

또는 제3의 통역사가 있는 앞에서 “아까 이거 틀렸더라!”하며 고래고래 망신을 줬다.

그녀의 통역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다. 통역을 들어보면 발음이나 문법이 살짝 엇나간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실제 발화와는 좀 다른 본인이 알고 있는 회사 내부 사정을 전해 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 함께 배석한 상황, ‘엇, 그 얘기 아닌데!’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무안해할 수도 있다 싶어 그냥 넘어갔다.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이 동료는 스스로를 ‘아무나 되는 게 아닌 사람’이라 칭하는 한편, 나를 끝끝내 오명을 씌웠다.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통역을 하는 사람인 양 포장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통역사로서 부족한 건 무엇이고, 잘하는 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 몇 년을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도 안 되었을 리 없지 않나. 오히려 십 년이나 이 일을 하고도 자기 자신의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실력 부족이다.

그녀가 ‘속한 회사에서 통역사로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아느냐’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토해낼 때만 해도 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반가웠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게, 제일 간편하게 동원하기 쉬운 게 다른 사람 끌어내리기란 말인가.

자기가 ‘인하우스in-house’ 통역사로 몸담고 있는 회사에 프로젝트 통역사로 한 달간 와서 일해 달라고 했다. 나는 하루나 며칠 동안 열리는 컨퍼런스 등에서 동시통역을 하기도 하지만, 한 달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출퇴근하며 통번역 업무를 하는 프로젝트 일도 해왔다. 애정을 갖고 있는 IT 통역이라고 들어서 기대도 컸다.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동료들 불러들이면서 ‘나를 부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목청을 높여 망신을 줬다. 둘이 있을 때는 ‘조용히’ 치켜세워준다.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프리랜서 통역사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는 각각 ‘당신과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은 실력이 형편도 없고 통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당신이 더 잘 해야 한다’며 추켜올리는 듯 이간질하고 부추기는 전술.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조직생활’의 전부였다. 자기를 제외한 이들이 친해지는 걸 경계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놔야 통역사들이 더 정신 차리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다.

문제 제기를 하는 내게 ‘조직 사회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꾸짖는 목소리를 낸다. 거기에 대고 ‘나도 조직 생활해봐서 아는데’하고 응수하자니 내가 이 사람을 포기했는데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 필요가 없다. 애초 사회생활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받고자 겨우 한 달 프로젝트를 간 건 아

니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녀가 동원하는
얕팍한 수가 눈에 뵈히 보여 (조직생활 ‘진짜’ 고수들은 쓰지도 않을 얕은수들이다.) 더
힘들었던 게 맞다.

말로는 “언니가 분위기 메이커잖아.”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험했다.
한번은 잠시 한가하니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부서 통번역사를 모두 끌고
내려와서는, 그녀가 말했다. “이 언니, 전직 ‘기레기’잖아.” 나에게 대해서
굳이 본인이 나서서 정보를 주는 것, 내 기사 한 줄 읽은 것도 아니면서
기레기라는 멸칭을 쓰는데, ‘또 시작하는구나.’ 생각했다.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웃으며 지내는 걸 좋
아한다. 그렇지만 슬금슬금 건드리듯, 농담이라기엔 과한 망신주기를 계
속해도 되는 자리란 없다. 그런 그녀가 또 어떤 날은 후배 통역사들 앞에
서 자화자찬을 겸해 “난 아직도 아침에 신문 읽으면서 용어 공부하는 통
역사”라고 말하는데 헛웃음이 나왔다. 기레기들이 쓰는 글은 어찌하여 읽
으시나이까.

“우리 부서에 통역사 누구는 의사 딸, 누구도 의사 딸, 다른 누구는 아
버지가 은행에서 거의 행장까지 하신 분이래.”

둘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한
참을 얘기한 그녀가 뜬금없이 부서의 다른 통역사들 집안 배경 얘기를 했
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얘기는 놀라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내 밑에 있잖아. 사람들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얘기는 이랬다. 그녀가 상근직 통번역사 여러 명이 일하는 그 부서에,
통역 스케줄을 조율하고 통번역을 의뢰한 직원들과 소통하는 ‘매니저’로
임명되었다는 것. 관리하는 역할 맞지만 그 회사 수평적인 문화 특성상

굳이 위, 아래 얘기를 하긴 어려울 텐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유복하게 자란 동료들이 자기 밑에 있다고, 마치 이긴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길고 지루하게 용비어천가를 읊고, 같은 통역사끼리 “조직생활 모르냐” 운운하며 막말하는 게, 겨우 그 알량한 매니저 완장 때문이라는 것도 크게 실망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알량한 완장이 아니라, 무게를 견디기 힘든 왕관이었을 것 같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가 너무도 길었다.

프로젝트 기간을 채우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심리학 관련 문서를 한영 번역하면서 눈길을 잡아 끈 문장이 있었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사람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신념과 판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면 남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한다는데, 내가 겪었던 완장을 찬 통역사가 이 경우가 아니었을까. 같은 분야에서 일을 십년쯤 했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정도는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부서마다 한 명씩 있는 매니저 통역사가 된 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던 그녀가 진심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한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 표적으로 정해 물어뜯고 끌어내려야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하고, 공고하게 떠받들림을 받는 것을 일종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용렬했다.

지난 몇 년 간 자존감과 관련된 책이 크게 유행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경험해보기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드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걸 자존감, 자아효능감 물귀신 작전이라 부른다. 기본적으로, ‘내가 기죽었듯이 너도 기죽었으면 좋겠어.’하는 심리. 기죽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얄밋고, 놀러버리고 싶어지는. 일로, 그리고 일 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오며 느꼈던 건, 자기애와 자기혐오를 오가는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껏 봐온 불행한 이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넌 왜 나처럼 자기혐오하지 않니, 넌 왜 나만큼 기죽지 않았니.

불행은 가릴 수 없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고래고래 자화자찬을 해 봐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불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옆에 있기가 괴롭다. 그래서 난, 배배꼬인 사람들은 과감히 끊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으려 한다.

여전히 그녀는 타인의 인정에 목이 마르고, 인정을 받기 위해 타깃을 잡아 깔아뭉개면 인정에 대한 갈증이 해소된다. 그러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존감은 채워지지 않는다.

스스로가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셀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들어주기 민망한 성공시대, 용비어천가를 읊고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되지 않을까.

2015년,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친분이 있는 한국어-러시아어 통역사가 선물로 아기 내복을 보내 주셨다. 산호색과 민트색 물고기 무늬가 놓인

양증맞은 내복이라 귀엽기도 했고, 안에 ‘명랑한 엄마가 되길.’이라고 손수 적어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크게 와닿았다. 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명랑한 엄마, 명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비장하게 다짐했다.

완장 찬 그녀와 일했던 한 달 동안, 수습기자 시절 혼나던 것보다 더한 망신과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힘들었을 때에도 난 그 내복 선물을 떠올렸다. 내가 이 감정을 집으로 가져가면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새어 나오겠지. 남편에게도, 나를 응원해 주는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이 어두운 기분을 전염시킬지 모른다. 그러니 난, 명랑한 엄마여야 한다. 있는 힘껏 빛이 나도록.

나 역시 천성이 그저 밝고 한없이 명랑한 사람은 못된다. 일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이것밖에, 왜 이것밖에.’ 좌절하고 번뇌한다. 내 마음에 들게 통역이 나온 날이 없다. ‘점점 더 나아지겠죠.’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흠 없는 완제품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성격 또한 받아들이기로 한다. 겸양과 자기 비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명랑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명랑한 엄마가 되기 위해선 참으로 강한 사람이어야겠다. 그리고 명랑한 엄마는, 아마도 견고한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있어 보이는' 통번역을 고민했다

2019년 1월, 친한 번역사 선배와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을 보러 갔다.

전시품을 감상하다 갑자기 선배가 말을 꺼냈다. “청자어룡모양주자, 꼭 fish dragon이어야 했을까요? 더 ‘있어 보이는’ 번역 없을까?” 청자 어룡모양 주자를 영어로 Celadon Fish Dragon-shaped Ewer라 써놓은 표찰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글쎄요, 지금 생각나는 건 바다를 의미하는 접두사 mer를 붙인 merdragon 정도인데 이건 어룡보다는 해룡海龍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도 얼른 영어로 인어를 뜻하는 mermaid(mer+maid: 바다 아가씨라는 뜻), 싱가포르의 상징 merlion(mer+lion: 반은 사자, 반은 물고기 모양을 한 상상 속의 동물)을 떠올리고 의견을 내보다가, 전시회에 와서도 마음속 직업병이 꿈틀대는 우리가 웃겨서 한참 웃었다.

몇 년 전, SNS에서 부유하게, 또는 지적 수준과 교양이 상당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있어빌리티(있어 보인다 + ability)’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말에 깔깔 웃었었는데,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있어 보이는’ 통역과 번역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날 박물관에 동행한 선배는 그래픽 노블(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 작품) 번역도 많이 했다. 선배가 번역한 작품에 catfight라는 표현이 나와 이를 ‘고양이 싸움’이라 옮긴 뒤 ‘직역하면 고양이 싸움이지만 여자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을 의미함’이라는 역사 주석을 달았던 일화를 얘기해 주기도 했다. “거기 편집장이 ‘만화에는 원래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박박 우겨서 넣었다니까요.”

선배, 그러니까 최세민 번역사는 그래픽 노블이나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번역을 많이 했다. IT, 제약 등 딱딱한 분야 통번역 업무를 주로 해온 내게 재치와 언어적 미의식이 필요한 통역과 번역의 세계를 소개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특히 통번역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선배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 끈질기게 번역문을 고치고 또 고쳐 단정하게 다듬는 작업의 방법에서부터 좀 더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컴퓨터 번역 툴의 사용 방법까지.

책을 좋아하는 선배가 프랑스 혁명을 다룬 게임을 번역하며 수십 권의 프랑스 혁명사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난 ‘덕업일치’를 떠올렸다. 활자를 좋아하는 분이 활자를 마음껏 생산해 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덕질(‘덕후’ 노릇, 즉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매달리는 일)과 직업이 일치한 것 아닌가.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 장소로 주로 잡는 박물관 전시회도, 굵직한 역사를 좋아하는 선배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좋아하는 나, 우리 둘의 ‘덕질’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야를 가끔 통번역에서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보석을 좋아해서 소소한

자격증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 통역을 하게 되면 내용이 머리에 쑥쑥 들어오니 통역 내용 놓칠 걱정을 덜고, 일을 앞두고 공부한 게 아니라 평소 내가 좋아서 파고들었던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니 든든하다.

‘덕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아이를 기르면서부터는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 등에 관련된 내용 통역을 하게 되면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수월했고 한국어 용어 사용이 좀 더 정확해 지는 걸 스스로 느꼈다. 가령, ‘유치원에 보내는 것,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것’이라 하지 않고 등원, 하원이라는 말이 입에 착착 붙는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교육 관련 컨퍼런스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제3세계 어린이가 마침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발표를 동시통역하면서는, 나답지 않게 통역 부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발표자는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아이의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를 이끌어준, 국제기구의 현장 전문가였다. 통역을 하고 있는 나뿐 아니라 발표자도 때로 울먹였다. 어쩌면 청중의 리시버를 통해 내가 흘쩍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통역 부스의 창을 통해 보이는 교육학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중의 뒷모습도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가 되고 나서, 이런 회의 주제를 비로소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됐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었다.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대학 시절 스페인어 수업을 들어가서는 남미 교포로, 러시아어 수업에서는 고려인으로 오해받는 ‘어학 천재’ 언니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영어’ 하나 가지고도 고통스럽게 공부해야 했던 나는 늘 모차르트에게 밀리는 살리에리의 기분을 느꼈다.

비교적 최근인 5년 전쯤, 이탈리아어에 도전하면서 외국어에 소질 없음을 다시금 절감했다. 지적 허영심이 풍년이었던 그때, 최종적으로는 라틴어를 배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이탈리아인 선생님은 동화책 등의 문장 구역口譯(텍스트를 눈으로 읽어가며 바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영어로는 sight translation이라고 하며 통역 연습을 위한 일종의 훈련으로 많이 쓰인다)을 시켰는데, 난도가 높은 지문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해온 내게는 솔직히 너무 쉬웠다.

‘로마에 사는 옥타비아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었어요.’ 같은 이탈리아어 동화를 (주특기인) 영어로 옮기자니 술술 나왔던 것이다. 더구나 이탈리아어와 영어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영-한 또는 한-영의 경우처럼 어순을 복잡하게 바꿀 필요도 없었고 단어만 치환하다시피 해도 됐다.

그리하여 처음엔 천재 제자를 만난 줄 알았던 이탈리아인 선생님은 내가 ‘현지에서 가서 음식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을’ 수준에서 고전하다가 공부를 중단하자 무척 실망했던 것 같다. 동사변형조차 암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석하는 능력과 발화 능력 간의 괴리가 클수록 마음잡고 공부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던 탓이다.

처음의 원대한 꿈과는 달리 초보 수준에서 이탈리아어를 관두며, 오히려 무참히 깨지면서 쌓아온 영어 실력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외국어에 타고난 재능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 하게 되고

영어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으니, 좋아하는 말과 글을 실컷 접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어떻게 보면 열띤 회의 통역이 끝나고 난 후 화장이 녹아내려버린 얼굴을 어찌어찌 수습하고 노트북이며 회의 자료, 짐을 주섬주섬 챙겨 회의장을 나설 때의 기분과도 비슷하다. 통역 부스에서 하루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고 조용히 퇴장할 때의 초라함이야말로 통역 일을 하며 가장 애뜻하게 사랑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나 자신 또한 다독이고 끌어안으며 곳곳이 일터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때로 인생은, 버티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줌마 ‘알바’하라고 도와주는 제도 아니거든요?

첫째를 어린이집에 넣으면서 기분이 무척 불쾌했던 일이 있었다.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아이를 종일반에 넣어 보육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담당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지요원이 대뜸 “아줌마 ‘알바’하는 거 도와주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남편은 회사 안 다녀요? 회사 어린이집 넣으면 되겠네.”라며 이죽거렸다.

곧 자리로 온 담당 공무원도 “어머니, 아르바이트 일에는 긴급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비아냥거리는 어조는 아니었지만 전하는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기혼 여성을 곧 ‘본업이 없어서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하는 아줌마’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를 비롯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자기 성향상, 일의 특성상, 그리고 소득 면에서 프리랜서 일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통역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인데, 의아할 정도로 대단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정규직에 목을 매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보다. 대놓고 동정하는 이들은 그나마 나쁜 뜻은 없겠거니 넘어가려 하는데 왜 내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지, 무척 불쾌했다.

굳이 엄마들을 일하는 엄마와 일을 하지 않는 엄마로 나눠놓은 제도, 설령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림에 보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가 과연 마땅할까? 부당하다 생각되는 점이 많았다.

이런 문제들은 차치하고 일단, 엄연히 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직전 6개월간 통장 입금내역을 출력하여 소득을 증명하고 나서야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부분을 노출하는 것 같아 치욕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 직업을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꽤나 높은 수입을 보란 듯이 제출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아마도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이 짐작했던 것보다 자릿수부터 달랐을 것이다. 뒤늦게 사회복지무요원의 태도에 대해 다른 공무원에게 사과도 들었다. 원래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라고 했다.

그때 제출한 통장 내역에는 정부 기관에서 통역 일을 수행하고 받은 통역료 금액과 출처가 버젓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고 또 납부해야 할 돈을 성실히 내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에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이번엔 둘째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넣었다. 소속된 직장이 없는 내가 ‘워킹맘’이고 아이가 ‘맞벌이 가정’의 아이라는 걸 증명하기란 이번에도 역시 쉽지 않았다. 주민 센터의 담당자도 “원래 프리랜서 절차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말해줬다. 이번엔 굳이 “내가 일하는 엄마로 인정을 받고 받지 않고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직원은 없었

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씩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제도가 바뀌었다. 내가 일하는 엄마임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둘째부터는 엄마가 일을 하고 하지 않고 구분 없이 종일반에 넣을 수 있도록 변경된 거였다. 프리랜서가 일하는 것 인정받는 것보다는, 저소득 출산 시대에 둘째 낳은 공 인정받는 게 빠르다는 건 참 씹쓸했다. 세월이 흘러, 2019년부터인가는 강남역 같은 변화가 지하철역에서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하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 광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제도의 변화가 무척 반가웠다.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서투른 접근 말고,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궁리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데 현장에서 통역, 번역을 전문적인 기술로 생각하지 않고 한낱 말재주를 이용한 부업이겠거니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IT 분야 경력이 많은 내게 “정식으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칭찬 삼아 권하는 고객이 있어 “제 전문 분야는 통역입니다”라고 정중히 답한 적도 있었다.

어학 점수 올리기에는 급급하지만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세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역사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 통번역대학원 시절, ‘통역사는 선망의 대상일 뿐 존경(존중)받지는 못 한다’고 배웠다. 그땐 존경받지 못 한다는 걸 ‘존경받는 건 연사의 몫이고 통역사는 그걸 돕는 그림자’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였다. 현직에 나와서는 이 말의 뜻이 더 쓰라리게 와닿았다.

한편 이 말의 앞부분처럼 ‘통역사는 선망의 대상’인 것도 맞다.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고, 때로는 부러움을 사는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 통역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화려한 직업으로 포장해 스스로를 홍보하고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통역사들은 ‘저 사람은 진짜(전문) 통역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통역사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통역대학원 입시, 대학원, 그리고 통역 현장으로 나와서까지 계속되는 경쟁에 자기 자신을 담금질해야 한다.

현재의 정확한 경쟁률은 모르겠지만 내 경우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입시 시험을 본 2005년, 전체 지원자 수는 1,000명 안팎이었고 이걸 1차 시험을 통해 합격자의 2배수인 100명 정도로 걸러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동기가 모두 41명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입학 경쟁도 치열했고, 또 졸업시험에서도 약 3분의 1만을 합격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거르고 또 거르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 통번역사로 진출해도, 실제로 통번역 일을 5년, 10년, 그리고 수십 년 하며 ‘필드’에 남는 이들은 많지 않다.

드물게 국내, 또는 해외 통역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도 본인이 구사하는 언어권에서 자격시험, 인증시험 등에 통과해 통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과정이거나, 만만치가 않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 통역사를 자처하니 공분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른바 ‘자칭 통역사’가 유명세를 등에 업고 중요한 국제 행사의 통역을 맡았다가 행사 전체를 크게 망쳤다는 소식을 가끔 전해 듣게 된다. 그 후 조용히 사라지는 게 대개 정해진 수순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조차 ‘그때 우리 행사에 통역사 불러봤는데, 통역사가 통역을 제대로 못 하더라’하는 불평이 나오곤 하니, 억울할 수밖에. “그 사람은 통역사가 아닙니다.”하고 길게 설명을 한 적도 있었다.

내가 ‘국제회의 통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워킹맘임을 입증하려고 기를 썼던 바로 그 시절에도 전문 통역사가 아닌 이가 ‘일도 육아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통역사 엄마’ 이미지를 앞세워 한창 인기를 얻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진짜 통역사는 동네 주민 센터에서 망신이나 당하는 마당인데 ‘이게 뭐라고’ 통역사인 척을 할까. 그 이미지 메이킹이 제법 잘 먹혔는지 실제로 굵직한 통역 일에 몇 번 정도 투입되어 대차게 망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누구는 통역 한 번 기막히게 잘 해보겠다고 젊음 바쳐 달리고도 직업으로 인정도 못 받는데 말이야, 이걸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재미있지 않아?” 푸념하는데, 남편이 명답을 내놓았다. “가짜들이 판치니까 진짜 통역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왜 영어 앞에서 유치해질까?

‘사람들은 왜 영어 앞에서 유치해지는가.’

기업에 다니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다. 누구 한 사람이 외국인 직원과 영어로 진행하는 팀 회의, 외국인이 발언을 시작하면 연신 “야, 야Yeah, yeah”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후배가 있어서 거슬린다는 말을 꺼내며 얘기가 시작됐다.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티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였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소통이 꼬인다. 모두가 100%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잠시 멈추고 본인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도 발화자는 크게 끄덕이는 사람만 보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못 알아들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무안한 문화, 그래도 정말 답답한 누가 “잠시 만요!”해도 이미 참석자 간 이해의 격차가 벌어진지 한참 후다.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이런 ‘티내는’ 사람들이 영어 대화를 진짜로 잘 이해하는 경우도 드물다.

다른 한 사람은 영어로 회의를 했다 하면 매번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는 동료 얘기를 했다. 서로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사이지만 자기소개만큼은 영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인지 꼭 넣는단다. 회사에서 그의 별명은 ‘아이 엠 그라운드’. 업무를 논의해야 할 자리조차 ‘프리토킹’ 기회로 여

겨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했다. 일반 기업에 다니지 않다 보니 겪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 새로웠다.

사족이지만 공대를 졸업해 IT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도 늘 영어 말하기 시험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애초 수학을 잘하는 쪽 이어서 택한 직업인데도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니 가엾긴 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한영 통역사인 내게 누가 유효기간이 2년뿐인 수학 인증시험 점수를 제출하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수학 과외를 가끔 하던 대학교 1, 2학년 이후 수학과는 자연스럽게 이별했다. 어쨌든 기업에서 영어 실력을 갖춘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계속해서 영어를 갈고닦길 요구하니 유창한 회화 실력을 회사에서 드러내는 것 또한 인정받는 방법일 것이다.

이날 한참 대화가 오가던 도중에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 방한 당시 팀의 골키퍼 부폰 선수와의 인터뷰 논란 이야기가 나왔다. 이탈리아어 통역사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나운서가 굳이 영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되었던 2019년 여름의 해프닝 이야기였다. 이번엔 반대로, 지인들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했으나 통역사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었다.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통역사 없이 직접 소통하는 편이 더 낫다 판단한 경우, “지금은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의뢰인들이 더러 있었다. 통역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소통의 원활함이므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섭섭해 하거나 침울할 일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다. 다만, 옆에 세워 놓지 않고 다른 장소로 가서 다음 회의 준비를 하거나 잠시 휴식하도록 배려해 줬다. 이런 경우 통역사를 할 일 없이 옆에 세워놓고 느끼는

치기 어린 뿌듯함 같은 것은 없다. 그때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택한 것뿐이다.

한 장소에서 세 언어가 교통정리 없이 혼재하는 경우도 없었다.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언어이긴 하지만, 의외로 유럽 사람들 중에는 사전 협의 없이 다짜고짜 영어로 대화를 하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상대방이 ‘외국인=미국인’이라는 듯이 밀어붙이는 기분이라고 한다. 꼭 그때의 인터뷰 해프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표현을 외국어 실력을 칭찬하는 말처럼 쓰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이들이 가끔 있는 것 같다.

이날, 아이 엄마로서 접하는 영어는 ‘판타지’더라는 말도 나왔다. 통역사 직업상 국제회의가 많은 봄, 가을을 ‘성수기’라 부르고, 상대적으로 한여름, 한겨울에는 일이 적어진다. 어느 해 여름, 한가한 시기를 이용해 아이에게 영어 독서 지도하는 방법 강의를 들으러 다닌 적이 있다. 영어 독서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이를 정리하는 큰 줄기에는 공감하고 많이 배웠으나 강의 말미에 그 기관 관계자(아마도 영어로 기관을 홍보하는 대학생 인턴 같았다)가 실제 짙막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순서는 솔직히 듣고 있기 힘들었다.

파충류와 양서류의 차이점에 대한 5분 남짓 짧은 발표에서 ‘단 한 문장도’ 문법적으로 맞는 게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치사가 다 틀렸다. 어떤 땐 with가, 어떤 땐 for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모조리 in과 on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발음으로 얼버무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살짝 과하다 싶게 너울너울한 영어 내레이션 억양에 얽혀

영어 문장이 쏟아져 나왔다. 발음, 문법 틀릴까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말해야 실력이 느는다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남용된다는 생각을 한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은' 환상에 가려 얼렁뚱땅 빠르게 말하고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건 실력이 아니다.

듣고 있기가 영 무안해서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수업의 강사가 외쳤다. “엄마들, 겁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엄마들도 다 아이 영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해?” 물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것 역시, 원어민과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가지면 유창성 fluency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공부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실력을 올릴 수 없다. 이런 목적을 두고 활용하려고 ‘친구’를 사귀겠다는 생각도 살짝 순진하다.

한편으로는 금발벽안의 비영어권 출신 유럽인이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신나게 일하고 있는 얘기도 듣는다. 영어는 결국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담은 판타지일까. 그냥 담백하게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라는 얘기는 소구력이 없다.

별레 울음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오는 여름밤, 맥주를 앞에 두고 이어졌던 이날의 긴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랬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 원활한 소통을 희생하면서까지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 뭐라도 증명해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니 가장 쉽게 선택하는 무기가 영어다. 결국 영어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나 개인기쯤으로 생각하고, 국어를 쓰는 상황이었다면 하지 않을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외국어 그 자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에 대해 가지는 환상을 쫓기에 '이렇게만 하면 귀와 입이 트인다는' 식의 자극적인 학습법에 귀가 솔깃하다는 것.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의 본질, 그리고 학습의 본질에 집중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넌 돌아갈 곳이 있어서 쉽게 떠나는구나?

2019년의 완연한 가을날, ‘섬 통역’. 회의 장소가 여의도였다.

통역사들끼리는 위치만 들어도 대충 주제를 짐작할 수 있다. 여의도면 금융, 광화문이면 정부부처 관련, 또는 세종으로 가기도 하고. 길치인 나조차 통역사로 일하며 서울의 호텔 위치만큼은 제법 잘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지하철에 타서 여의도로 향하는데, 주변에 운동복 차림으로 눈에서 불을 뿜으며 노트 필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다수 목격했다. ‘아, 요즘 대학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문득 학부 시절이 그리워졌다.

나는 학부 4년간 개근에 빛나는, 졸업 학점도 상당히 높은 모범생이었다. 수업에 들어가면 항상 복학생 오빠들과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A0하나에 나머지는 다 A+받은 학기도 있었고, 부전공이었던 정치외교 과목으로 국제법 C+받고는 교수에게 전화해서 평평 울며 사정했던 기억도 있다.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한 학생에게 C+는 잘 안 주던 시절인데, 교수는 끝내 학점을 안 고쳐주셨다. 난 한글은 제법 예쁘게 쓰는 편인데 “박소운 학생은 글씨체부터 법 공부를 하기엔 글렀어요.”라는 말씀을 한 기억도 난다.

모범생 그 자체였던 나는, 마지막 학기만을 남기고 1년간 휴학을 했다. 휴학 기간의 절반은 인턴 기자로 일하고, 나머지는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했다. 그리고 2005년 2학기에 복학을 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날씨가 선선해질 때쯤 복학했더니 통역대학원 입시 시험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다니는 학교가 바로 그 목표로 하는 통역대학원이 있는 학교 아닌가. 캠퍼스가 아담하기로 유명한 외대에서 원기동형의 통역대학원 건물은 당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매일같이 통역대학원 건물을 보며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담스러웠다. 과연 난 저 건물로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될 것인가?

복학한 후에도 수업을 마치면 외대앞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다. 그때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 중 가장 유명했던 신동표어학원에서 수강했다. 가는 길에도 수업 자료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좋았겠지만, 나는 EBS FM을 들었다. 오후 2시쯤 세계 음악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노래를 주로 틀어줬다. 가사와 멜로디가 서정적이라 마음에 들었다. 하루 중 대학원 입시 공부가 아닌 ‘딴짓’을 하는 유일한 시간이었기에 라디오 듣는 게 그렇게 꿀맛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통역대학원 떨어지면 EBS에 라디오 PD로 지원해서 입사 시험을 쳐볼까? 통역대학원 입시 학원에는 재수, 삼수해서 통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다. 나는 소속된 곳 없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다. 라디오 PD가 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았지만, 어쨌거나 즐거운 망상으로 꽤 괜찮았다.

‘대학원 떨어진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겠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음악 벗 삼아 살면 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제인 버킨이 또 내한 공연을 오면, 혹시 알아? 만나서 인터뷰라도 하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솔솔 웃을 수 있었다. 지하철 타고 한강을 건너며 망상이 몽게몽게 피어 오르던 기억. 프로그램을 듣다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면 기를

쓰고 제목을 메모했다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또 들었다. 로랑 불지Laurent Voulzy의 곡 <4월의 소녀La Fille D'Avril>를 처음 들었을 때가 그랬다. 지극히 아름답고 우울한 선율에 마음이 갔다. 가사를 찾아보며, 대학원 입학하고 나면 시간을 내서 프랑스어를 꼭 다시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물론, 후에 통역대학원 다니며 그런 여유는 생기지 않았다.

지금도 샹송, 칸초네, 파두를 비롯한 다양한 비영어권 음악을 찾아 듣지만 라디오 PD의 꿈은 공부 압박감에 짓눌린 나를 잠시 즐겁게 해준 한때의 공상이 되었다. 난 그보다는 직접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현장으로 찾아다니는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

대학에 들어와 어문학과 사회학 수업을 다양하게 찾아 들으며 나 자신의 적성에 대해 조금씩 더 잘 알게 되었고, 나의 진로 계획은 기자, 아니면 통역사로 갈피를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 두 가지 꿈 중 어느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만 남길 줄 알았는데, 어느 한 쪽도 포기하지 못했다. 되돌아보면 두 직업은 말과 글을 써서 양쪽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자의 경우 세상과 독자를 이어주고 통역사는 화자와 청증을 이어준다.

언변과 글재주는 나쁘지 않은 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 두 직업의 전부가 아니다. 늘 너무 뜨겁고 투명하고, 순진한 내가 기자와 통역사라는 두 가지 꿈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건 운이 많이 따랐던 덕이다. 고마운 기회도 많았고, 고마운 멘토와 동료도 많이 만났다.

그런데 두 가지 꿈을 다 이루었지만 두 분야 모두에서 그만큼 환멸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았다.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치고, 마음이 아파야 했다.

게다가 두 갈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격할 거리를 주는 셈이었다. 통역대학원을 휴학하고 신문사에 입사할 당시, 재수 삼수 과정을 거쳐 통역대학원에 어렵게 입학했던 사람들은 내게 “네가 한 번에 쉽게 입학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구나.” 얘기했다. 원래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언론사 시험이 어떤지 공부해볼 겸 입사를 지원했는데 천운이 따라 공채 수습기자로 합격했던 거였다. 매일경제신문 1면에 난 내 이름을 보며, 나도 크게 고뇌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에 휴학을 결심했다. 언젠가는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겠다고 생각했기에 학교를 아예 떠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후, 대학원 공부를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신문사를 관둘 때, 주변 기자들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때도 선택에 이르는 과정은 쓰라렸다. 당시 편집국장은 “기자가 그래도 10년까지는 읽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은 직업이니 흐름을, 때를 놓치지 말라” 조언하셨다. 수공하면서도, 통역 공부의 특성상 기자 생활을 10년 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면 어찌어찌 학위는 딸 수 있겠지만 통역사로 일하기엔 너무 감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잠시 멈춰서 마치지 못한 공부를 하며 실력을 키울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남들은 학교 언론 고시반에서 먹고 자며 고생해서 들어오는데, 넌 돌아갈 곳이 있어서 쉽게 떠나는구나.”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학원을 복학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긴 게 있다. ‘통역사를 하게 되면 십 년을 버텨보자.’

그래서 십 년을 버텼다. 그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건 아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다. 30대는 그렇게 ‘남들 다 하는’ 인생의 큰 행사들로 채워졌다.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때도 ‘일에 곧 복귀할 테니 눈앞의 태스크에 집중하자.’며 마음을 다스렸다. 일이 내게 성취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듯, 엄마 역할도 그랬다. 엄마 노릇에 지칠 땐 통역사 일이, 통역사 일에 지칠 땐 엄마 역할이 위로해 줬다.

그렇게 수면 위로, 아래로 바삐 움직였더니 지칠 틈도 없이 10년이 흘렀다. 이젠 아무도 내게 ‘쉽게 관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통역사는 아니겠지만 그 10년을 버틴 것만으로 성취감을 느낀다.

어쩌면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실제로 내가 사표를 제출한 날 매경 동기 오빠 하나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다. “넌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떠날 수 있는 거야,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그러나 나는 내내 신경 썼다. 내가 싫증 나면, 원하는 만큼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뒀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불안함도 내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관뒀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두 가지 꿈을 다 이뤘다는 것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진다. 헛된 시간이나 방향은 없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다 소중하다.

통역이 끝나고 난 후

어떤 날은 통역이 영화 촬영 같고, 또 어떤 날은 연극 공연 같다.

‘컷!’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얼굴 근육이 와르르 무너질 듯 피로가 느껴진다. 주최 측과 통역 장비 업체 직원들에게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인사를 하려고 남은 기운을 힘껏 쥐어짜낸다. 국제회의의 ‘필름’이 더는 돌아가지 않는 순간까지 에너지를 열심히 쓴 탓에 머리가 멍-하다.

더는 남은 기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에 급속 충전이라도 된 건지 한껏 또렷해진 목소리 톤으로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하며 기운이 펄펄 날 때가 있다. 연극배우가 커튼콜을 받을 때 이런 기분일 것 같다. 한순간에 피로가 풀리고 묘한 각성상태가 되어 집으로 향한다.

‘영화 같은 통역’과 ‘연극 같은 통역’ 두 경우 모두 기분 좋게 일을 마친 날이다. 더 이상 쏟아낼 기운이 없을 때, ‘적어도 내 그릇 안에서는 할 바를 다했구나.’ 만족스럽다.

분명 피곤한 일정이었는데도 일에 몰입하면서 기운이 나고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날도, ‘이 기분을 고이 기억해두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야지.’하며 기분이 좋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고 통역 자체도 피를 말리는 집중력과 돌발 상황에 대한 순발력을 모두 요하지만, 통역이

끝난 후의 오묘한 기분에는 분명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열심히’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밤을 새워가며 통역 준비를 하지 않는다. 정신력, 체력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엔 밤을 새운 다음 날의 통역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제 난 체력이 ‘맛이 갔나봐’,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소연하곤 한다.

직업상, 성격상 말에 예민한 편인데, 소소하게 잘못 말하는 일이 늘어난다.

“그러니 내가 요즘 목구멍이 시궁창이야.”

한참 같이 재미있게 대화하던 남편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아차... 나 또 시궁창이라 했어? 포도청. 내 말은, 포도청.”

이런 경우는 거창하게 체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깜박깜박, 나이가 들며 혀가 무뎠지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또 너무 웃긴 실수 같아서 같이 웃는다. 목구멍이 시궁창이라니.

고마운 것은 떨어지는 체력이 나를 무뎠지게 하는 만큼 대범하게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에 오래 남았을 일, 사람 간의 일이 생겨도 하루 잘 자고 나면 잊힌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나갈 힘을 얻는다.

머리가 더 뽕뽕하던 시절에 공부를 좀 더 바짝 해둘 걸 하는 후회는 있다. 그때보다 체력도 머리도 안 되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동시통역 끝나면 당연한 양 택시에 몸을 싣고 돌아와 낮밤 가리지 않고 푹 잘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사치스러움은 게으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입버릇처럼 “이 모든 걸 루틴routine으로 박아두고파.” 말한다.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연습, 무슨 일, 운동, 독서 딱딱 계획에 맞춰 하던 시절이 사치 그 자체다.

이것저것 호기심 많고, 없는 일도 만들어 바쁘게 지내길 좋아하는 내게, 한 번은 친한 지인이 물었다. “즉흥적인 성격이지요?” 사실은 그 반대다. 모든 걸 계획한다. 5대 영양소 균형 잡힌 식단을 권하듯 일과 육아, 공부와 취미와 독서와 운동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 때로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요즘 책 한 줄을 못 읽었네.’ ‘요즘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이에 반해, 전형적인 공대 출신 남편이 오히려 유연하다. “모든 걸 계획에 맞춰 하려고 하니깐 그게 틀어졌을 때 좌절이 큰 거야. 그냥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의 일부부터 해결해.”

맞는 말이다. 나의 삼십 대만 돌아봐도 그렇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회사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삶은 싫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와 통역사라는 직업을 택했다. 일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 사람들은 ‘넌 어쩐지 외국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적절한 나이에 한국인 회사원과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어쩌면 남들 다 하고 사는 그런 과업으로 딱 찬 삼십대를 보내고 나니, 예측하고 계획하는 게 과연 얼마나 들어맞나 싶다. ‘성격이 자유분방하니깐 보수적인 경상도 집안 남자는 곤란하겠어. 나는 성당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피하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딱 ‘교회 다니는’ ‘경상도 집안’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게, 그리고 결혼해보니 나쁘지도

않은 게 인생인 것 같다. 고단하고 평온한 삶에 어렴풋이 뭘 좀 알 것도 같아지는 그런 나이.

일터에서의 이런 일, 저런 일에도 어느 정도 너그러워졌다. 사실 난 원래부터 너그러운 사람 축이었고 대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조금씩 속으로는 흠집이 나는 일도 많은데, 이제 굵직한 맡은 역할, 엄마이자 통역사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하루하루 버겁고 허우적댄다. 일단 정신이 없으니 대범해진다. 작은 일들은 잊게 된다. 좋음과 싫음 사이의 경계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뚜렷한 게 아니었지 싶다.

기자를 관두고 통역사 일을 10년 하며, 마음속엔 항상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2019년 1월부터 신문에 격주로 글을 신게 되어 너무나 기뻐고, 원고 마감 전에는 통번역 일도 고사苦辭하며 글쓰기에 매달렸다. 그리고 8개월 후, 연재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훌가분하고 기뻐던 거였다. 격주 화요일마다 착잡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게 편안했다. 글을 쓰게 되어 기뻐듯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기쁠 수도 있구나. 글 쓰는 일을 사랑하는 만큼, 글 쓰는 일을 싫어하기도 했나 보다. 책으로 엮을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힘들다, 힘들어...” 엄살떨듯 말하다가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1시 40분, 글을 쓸 소재가 떠올라 잠이 번쩍 깨서는 컴퓨터 앞으로 향하는 삶의 장면들.

이것도 결국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다운로드하는 데에만 한참이 걸리는 방대한 통역 자료를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텍스트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인지라 통역 자료에 그래프가 쏟아져 나오기만 해도 정신이 혼미하다. 그래프가 어떤 의미, 어떤 인사이트insight를 제시하

기 위한 시각화 자료인지를 파악하기가 영문 자료 읽고 배경지식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다.

통역 내용만 어려운 게 아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일하는 게 때로 외롭다. 2019년 12월, 초년생 통역사 시절부터 내게 일을 의뢰한 통번역 에이전시의 친한 직원이 회사를 관두기로 했다는 메일을 보내와 마음이 울적했던 적이 있다. 업무는 주로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오가고 실제로 얼굴을 본 건 몇 번 정도? 하지만 깔끔한 일처리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한 분이기도 했고,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에이전시 일을 관둔다니 섭섭했다. ‘프리랜서 생활이 잘 맞는다 생각해 왔는데 어쩌면 내가 많이 외로운 건 아닐까? 매일같이 같은 동료들과 얼굴 맞대고 일하는 생활이 그리운 걸까?’ 한동안 생각이 많았다.

단 한 번의 좌절도 권태도 없이 한결같이 행복하고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 쓸 수는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로서, 통역사로서 좋을 때 싫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가급적 좋은 쪽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들 다 그렇듯.

글의 앞머리에 영화 촬영 같고 연극 공연 같은 통역 이야기를 꺼냈었다. 그 무엇이든 간에, 통역사는 주연배우가 아니다. ‘그때 통역사 분’이지 이름 기억해 주는 이도 드물다. 이런 조용한 인생을 엮어나가기 위해 웃고 울고 고개를 넘어간다. 이토록 평범한 삶의 매 단계가, 죽도록 힘들어서 난 겸허를 배운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나 힘준하고 이토록 빛나는 거였다니.

내 인생의 점들을 다 이어보고 싶다

초가을, 남해안의 저녁은 아직 따뜻하다. 막 해가 저서 푸르스름하기 시작한 시각의 백화당百和堂, 깨끗한 흰색 한복 차림에 초롱불을 든 이들이 나와 내외 귀빈을 환영했다. 그림 같은 장면이다. 백화당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사의 접견실로 사용된 건물이라는데, 이곳에서 여러모로 기억에 오래 남을 통역 경험을 했다.

국제기구 사람들에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 솔직히 ‘이건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나는야 취미가 아닌 전공으로 한국음악을 공부했었던 한국어-영어 통역사. 국립국악학교에서 거문고 전공으로 3년을 보냈다. 그 시절 한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는 이미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공연을 했을 정도로 유명해진 뮤지션, 대표적인 미인 여배우가 된 가야금 전공 1년 후배 이하늬 등이 있다. 전공 실력이 이들만큼 걸출하지 못했던 나는 일찌감치 일반 인문계고 진학으로 진로를 틀어 다른 길을 걸었다.

그런데 때로는 방해 현상이 발생한다. 그날 경남 통영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위스퍼링을 해야 했는데 잔잔하게 깔린 배경음악이 하필 내가 연주할 줄 아는 곡, 현악 영산회상. 세령산에서 가락덜이를 지나 타령, 군악으로 이어지며 장단이 점점 빨라진다.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

왔던 정악(正樂)(전통음악 중 궁중 음악) 곡으로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이 매력적이다. 바삐 노트테이킹을 해야 하는 손이 자꾸만 허공에 연주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10년쯤 전 어느 디자인 회사에서 국제 디자인 어워드의 통역사 겸 부대변인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국악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경험을 했다. 회사 행사에 초청된 캘리그래피 아티스트가 국악곡을 배경음악 삼아 대형 캘리그래피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역동적인 음악에 걸맞은 역동적인 작품, 자칫 한 획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감, 참석한 모두가 숨을 죽였다. 퍼포먼스는 완벽하게 끝났고 질의응답 순서에 한 외국인이 손을 들고 질문이 나왔다. 지금 배경 음악이 뭔가요?

캘리그래피 아티스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그냥, 곡이 좋아서 갖고 왔어요. 무슨 곡인지는 모릅니다.” 이 역시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투박한 듯 담백하게 한恨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갑득류(韓甲得流) 거문고 산조. 속으로는 백만 번의 갈등을 했다. 이럴 때 통역사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할까? 전체 행사의 한 순서인 축하 공연, 아티스트와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아 친밀감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그를 무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침묵을 지켰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민속 음악의 한 갈래로 발전한 산조 음악에 대해, 그중에서도 격동적인 매력과 현을 이용한 기교, 즉 농현(弄絃)을 마음껏 보여주는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와는 대조적인 매력의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의 멋을 외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이 남았다.

또 한 번은 회의 순차통역을 갔다가 외국인 참석자에게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영-한 통역하는 걸 들으며, 한국어가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며 음악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소한 행복이었다. 네, 한국어는 아름다운 언어 맞아요.

내가 십 대 시절 3년이나 거문고를 전공했던 건, 한국 음악에 대해 거창한 꿈이 있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잠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돌아왔더니 그간 놓친 한국 교육과정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 엄마는 큰 주머니에 담아서 팔던 문제은행 책을 내밀었다. 다른 예체능계 학교와는 달리 악기 실기 시험 없이, 시창·청음 시험과 학과목 시험으로 합격생을 갈랐다.

결과는 학과 시험 성적이야 어떻게든 내었으니 합격. 그것도 2등으로 합격. 당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가야금반 가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악기, 선비의 악기 ‘백악지장百樂之丈’이라는 말이 좋아서 거문고 전공을 택했다.

사실은 음감이 별로여서, 조현(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는 것)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다. 껌을 씹는 왼손, 술대를 잡는 오른손이 너무 아프고. 요즘도 애초에 배우기 쉬운 악기가 아니어서 해금, 가야금에 비해 대중화가 어렵고 인기가 없다는 말이 있다.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와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악기의 음을 맞추어야 하는데 거문고 여섯 줄을 조현할 때면 음이 다른 건 알겠으나 ‘낮추오리까, 높이오리까?’ 영 어려웠다. 그러니 하기가

싫었다. 전공수업이 많이 들어있는 날이 고역이었다. 십 대 시절의 나는 '좀 평범한 학교'에 가겠다는 뜻을 굳혔다. 전공 수업에 비해 학과 성적이 괜찮으니 국악이론이나 작곡으로 전공을 바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떻겠냐고 선생님들이 권유했지만 그때 다, 싫었다.

그런데 기자 생활을 관두고 십 년 만에 다시 글을 쓰게 되며, 수십 년 만에 다시 악기를 잡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내가 걸어온 길을 이루었던 그 점들을 다 이어보고 싶었다.

스티브 잡스가 2006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 연설의 주제인 connecting the dots(인생의 점을 잇는다는 것)처럼,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은 없으며 그 모든 발자취 하나하나가 모여 나 자신을 이룬다는 걸 믿게 되었다.

사실 그전까지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다. 거문고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만 벗어나고 싶던 그 시절에 차라리 공부에 집중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신문사에서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며, 처음 겪는 진짜 세상에 상처받던 그 시절 대신 통역대학원 공부를 쪽 이어서 했더라면 더 나은 통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게 주는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에 잡히던 악기의 느낌이 점점 가물가물한 게 아쉽기도 했다. 서둘러 전공자가 쓰던 중고 거문고를 구입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악기를 무릎에 앉히고, 조현하면서 줄을 다스린다. 함께 마음도 다스린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재능이 부족한 것 아닐까 지레 겁을 먹었던 십 대 시절의 나를 보듬어준다.

악기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너그러웠다. 며칠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는다. 그런데 며칠 쉬었다 다시 악기를 꺼내도, 연주가 한결 부드러웠다. 중요한 건, 그저 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재미있다는 것.

무서웠던 선생님, 위축되던 기억.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 시작해보니 기억처럼 극단적으로 고통스럽지가 않다. 사람들은 흔히 '추억보정'이라 해서 과거의 일은 미화해서 기억하게 된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과거에 대해 왜곡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무엇도 대수롭지 않게, 편안하게 40대를 열어야지. 손가락에 다시 굳은살을 만들며 결심한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통역도 마찬가지다. 불안하고 더 잘하고 싶었던 날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즐거움과 꾸준함을 가려버리는 때가 있다. 거문고를 다시 시작하며, 일에서도 바로 이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힘을 빼는 편이 더 우아하다. 불쑥불쑥 욕심이 솟아나는 걸 다스리고, 본질 그 자체를 즐기려 한다.

내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다. 중학교 시절 1학년 1학기 국악이론 선생님의 꿈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나의 꿈으로 소중히 품기로 했다. 황혜영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작은 체구에 하얀 얼굴, 조용하고 당찬 분이였다. 선생님은 그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에 국악을 소개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했다.

긴 세월을 돌아 국악을 전공한 적 있는 한영 통역사가 된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다양한 일을 시도해온 내 인생의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려 노력하며, 나름의 교훈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다.

통역으로 세상을 구할 것도 아니지만

“통역사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으실 건가요?”

내가 일을 워낙 좋아하고, 또 그걸 티를 냈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이라니 어쩐지 엄청 비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싶어 간지럽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지금 하는 일이 천직인가’를 묻는 게 질문의 의도일 것이다.

아니, 당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는 할까? 윤회輪廻를 확신할 수 없다. 이것저것 관심사도 많은데 다시 태어나서 이 일을 굳이 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항상 내 답은 ‘그건 다시 태어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다.

“나 없으면 우리 병원이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나의 시어머니는 내과병원 수간호사 일을 육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다. “어머님, 이젠 일 그만두고 좀 쉬셔도 괜찮잖아요.” 하면 항상 저렇게 대답하신다. 평생을 ‘워킹맘’이었던 건 아니고, 당신 자식들이 중학생 됐을 무렵 ‘살림에 보탬이나 되어볼까’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종합병원에서 몇 년 일을 하다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개인 병원을 개업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자리를 옮겨 젊은 나이부터 수간호사로 거의 20년을 일하셨다니,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런 그녀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일하는 내과를 다니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 영안실이 있는 종합병원에 조문을 다녀오는 것. 피곤하시진 않을까? 새벽에 출근해서 정오가 좀 지나면 오전 근무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일과를 반복하면서 하루 업무를 마친 후에도 또 주변 사람들, 환자들을 챙기는 일.

어떠한 대가도 없다. 굳이 대가가 따른다면, 병원 원장 선생님의 신뢰? 그리고 어머님 당신의 뿌듯함 정도다. 시어머니의 일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 같다. 굼직한 영웅담이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찾아가서 배웅하는 따뜻함에서 배운다. 천직은 어떤 땐 거창한 사명감을 가진 자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정성껏 빚고 쌓아올리는 평범한 이들에게서 발현됨을.

어째서인지 이걸 마음에 새길 때면 매번 겨울날, 별이 떠있는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어머님 생각을 했다. 추운 날씨에 안락한 잠자리에서 몸을 억지로 일으키기를 오래도록 하고 있는 모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면도 아니고, 그 연세쯤 되셨으니 이제 힘들어하실 만도 한데, 내가 그리는 장면은 늘 유쾌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간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는 많이 다른, 정감 가는 모습.

으리으리한 사명감 대신 묵묵함과 담대함, 배짱으로 걸어오신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신 아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과학고 2학년 때 카이스트 조기입학 시험에 낙방했다는 결과가 전해진 바로 그날은 어머님이 과학고 기숙사 저녁 배식 당번을 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을 다스리며 학교 식당에 도착했더니, 그날 당번인 다른 엄마들이 당황하는 눈빛으로 맞아주더라.

입시에 떨어진 아이의 엄마들은 ‘면이 서지 않아서’ 또는 ‘너무 속상해서’ 급식 당번을 나오지 않고, 다른 당번 엄마들도 그걸 눈감아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였다. “동훈이 어머니, 그런데 동훈이는 카이스트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한 엄마가 묻자, 시어머니는 경남 사투리가 살짝 묻어나는 말투로 대답했다고 한다. “나 오늘 당번인데 와(왜)요?”

자기 속상함은 홀로 다독이고 맡은 일을 하러 나온 먼 옛날의 어머니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 후 남편은 과학고 3학년까지 마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들의 실패에 일희일비—喜—悲하지 않는 그녀의 성품은 독심, 묵묵함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본질이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어머니이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본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재미있게 들었던 이 이야기는 내게 책임감과 담담한, 그리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세상 이치에 대해 되새기게 해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런 성품이 간호사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가 오늘은 환자한테 주사 놓는데 말이야, 주삿바늘이 안 들어가서 후배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일하며 실수한 이야기, 까칠한 환자나 보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꺼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겁다. 일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철저하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금방 훌훌 털고 힘차게 일터로 돌아가는 분인 걸 알기에.

예전에 어느 글에선가 ‘성공하는 야구선수들의 특징’이, 패배한 경기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라고 읽었다. 망각이 빠르면 슬럼프도 짧다고 한다.

바로 이게 시어머니의 간호사 룡련의 비결 아닐까. 천직이 무엇인지, 프로페셔널함이 무엇인지를 시어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녀의 통역사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통역사로서 빛나는 재능도, 통역으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꿈같은 것도 없다. 근성으로(만) 버티는 노력파라기엔 또 어중간하다. 관심분야도 많고, 즐거워야 발동이 걸린다. 하기 싫은 일을 이 악물고 해내는 성취감보다는 행복한 일에 집중한다.

타고난 것도 아니고 노력파라기엔 부족한 이 어중간함을 장점으로 내걸기로 했다. 내게 들어오는 통역 건에 근성보다는 애정을 갖고, 소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웠듯, 즐거운 길은 오래 걸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나는 보석을 좋아한다. 윤이 반질반질, 현란하게 빛을 쏘아대도록 연마한 보석이 좋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한 원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취향이 그렇다. 날것 그대로보다는 정교하게 다듬어서 반짝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좋아한다. 같은 맥락에서 타이 실크도 좋아한다.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고 화려한. 나의 말과 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석이 빛이 나려면, 많이 깎아야 한다. 영어로 multi-faceted 라는 표현이 있다. 깎아서 세공한 보석의 한 면面을 패싯facet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다면적인’이라는 뜻이다. 반짝이는 보석만 다면적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다재다능하거나 다양한 매력이 있으면 ‘multi-faceted’라 한다.

보석이 빛이 나려면 많이 깎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원석이 단단한 돌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도(마찰에 견디는 굳기, 표면의 마모나 가공에 대한 저항도)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다른 보석보다 반짝이고, 값이 훨씬 더 나간다.

하나의 직업을 택해 그 길을 계속 걸으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람이 연마되고, 실력과 인품이 영그는 법이다. 그런데 험한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며, 성장하려면 결국 그런 일로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보석을 통해 배운다.

특별하면서 보편적인 삶을 지향한다. 개성 있지만 상식적인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는 때로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일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좌절이 첩첩 겹치는 때 특히 그렇다. 특별할 것 없는 일, 보편적이라기엔 험한 일, 개성도 상식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

그러나 다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초라한 나 자신을 일터로 던진다. 타고난 재능 없는 나지만 그래도 이 일에 ‘나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믿음, 하루하루를 밝게 채워가는 꾸준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앞으로도 통역사로서 나의 길에 놓인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그런 일로 꺾이지 않겠다. 화려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고 떠들기보다는 묵묵하게 걸어가기로 한다. 안으로는 피가 철철 흐를지라도. 의연하게 웃고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천직은 탄생한다.

TIP



복장이 고민될 때

살짝 좁은 나의 어깨를 보완해 줄 것 같은, 그리고 한껏 드레스업한 느낌도 주는 동그란 퍼프소매의 ‘리틀 블랙 드레스

’, 이른바 ‘검정 원피스’ 목이 충분히 파였으니 스카프나 목걸이를 착용하면 예쁘겠구나. 종아리 가운데까지 오는 긴 길이니까 회의 장소에 앉아서 통역할 때도 신경 쓰이지 않겠어. 그래, 나의 새 통역 전투복이 되어다오!

황홀한 표정이 되어 신용카드를 꺼내드는데, 시종일관 시큰둥한 표정이던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한다. “이거 갖고 있는 옷 아니야?” 그럴 만도 하다. #ObsessedWithLBD. 한국어로는 LBD중독 정도가 자연스러울까? ‘#검정이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SNS에서 자주 쓰는 내 고유의 해시태그다.

하트넥, 브이넥, 보트넥, 스퀘어넥, 퍼프소매, 7부 소매, 긴소매, 민소매... 벌써 몇 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산다. 대부분의 자리에 무난하게 어울리고, 신경을 제법 쓴 듯한 인상을 주는 무적의 아이템. 게다가 스카프나 주얼리로 변화를 주기도 쉽다. 옷장이 온통 새까맣게 되고 나니 컬러를 맞춰 입는 노고 또한 덜었다.

“스티브 잡스에게 검정 폴라티가 있었다면 나한테 LBD 아니겠어?”

누군가 입지도 않을 옷 그만 사라고 말한다면 무척 억울할 것 같다. 소모품처럼 옷이 닳는다. 순차통역을 하는 회의, 손이 날아가도록 전투적인 노트 테이킹에 여러 번 흑사당한 옷은 소매부터 반들반들 닳는다.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옷이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지경으로 낡게 되면 더는 입지 않고 옷장에 보관하는데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함께한 전우가 퇴역하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다. 그래서 일할 때 입을 옷을 장난삼아 전투복이라 부르곤 한다.

자리에 맞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 특히 외교 관련 행사에 배석할 때에는 해당 건의 드레스 코드를 미리 확인한다. 실제로 2018년 7월 폭염의 어느 날, 각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는 드레스 코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over-dressed

가 under-dressed 보다는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재킷까지 갖춰 입고 갔던 적도 있다. 다행히 각국 대사들은 재킷은 착용하되 타이는 매지 않은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났다. 얼추 드레스 코드에 맞춘 셈이었다.

“버버버버버... 바바바바바...”

거울을 보며 입을 푸는 연습을 하고, 머리로는 조금 전까지 읽었던 자료의 내용을 시각화 하여 떠올리며 오늘의 전투에는 무슨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 미리 예상해본다. 전 세계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한 손에 꼽힌다는 지극히 구체적인 분야, 남들은 평생을 바쳐 일하고 공부한 내용을 며칠 새에 머리에 짓이겨 넣었다.

오늘의 부적은 자수정 눈을 빛내는 뱀 머리 모양 펜던트. 일하러 가며 착용하기엔 좀 요란한가 싶지만 온통 까맣고 조용한 옷을 입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다. 솔직히 화장하는 시간이 아깝다. 며칠 전부터 작성해 놓은 용어 정리 엑셀 파일을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마당에. 하지만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도 경기 전에는 직접 화장을 하며 전의를 다진다고 하지 않던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화장을 한다.

내가 뱀 모티프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

미모 자체로만 본다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빼어난 미인이거나 경탄을 자아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화해보면 저항할 수 없는 매력, 존재감이 설득력 있는 말과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산하는 개성에 어우러져 자극적인 데가 있었다. 목소리에도 달콤함이 묻어났다. 여러 현 을 지닌 현악기처럼 현란하게 언어를 바꿔가며 구사했다.

어린 시절 읽었던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온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묘사는 나의 환상을 자극했다. 현악기의 줄을 바꿔가며 연주하듯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과 다른 이들을 대하

는 매력적인 태도. 대학에 진학해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한 부분을 읽으며 감탄했다.

The barge she sat in, like a burnish'd
throne,
Burned on the water: the poop was beaten
gold;
Purple the sails, and so perfumed that
The winds were lovesick with them
그녀가 탄 배는 물 위에서 불타는 빛 왕좌 같았는데
선미는 금박,
뚝은 보라색으로
향수가 진해서
바람이 상사병에 걸렸다.

유혹하고 싶은 사람을 환대하는 자리, 귀한 보라색 염료를 아낌없이 들이부은 뚝으로 장식한 배를 타고 간 그녀의 센스란. 금빛과 보랏빛이 넘실대는,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나 행복했다.

한영 통역사로 일하는 지금도,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는 나는 고작 두 줄뿐인 현악기란 말인가’ 가끔 푸념한다. 동료 중에도 언어에 특별히 재능이 있어 취미 삼아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외국어 그 자체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소통력이 좋은 통역사로 통역 시장에서 자리 잡아 온 케이스다.

통역하러 집을 나설 때면 언어 능력은 여기까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리라, 아낌없이 나의 매력을 보여주고 마음을 얻으리라 다짐하며 머릿속 현악기의 줄을 가다듬는다. 내 마음에 보랏빛 뜻을 달아 준 나의 첫 우상, 클레오파트라라는 소녀 시절은 물론 삼십 대 후반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롤 모델이다.

앞서 나는 개인의 멋보다는 자리의 격에 맞춰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정장 입기’를 추구하기에 옷장이 온통 검다고 썼다. 그래서 스카프나 주얼리를 활용해 그날의 차림새에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다. 나의 롤 모델을 떠올리기 위해, 전투하러 갈 땐 뱀 팔찌와 목걸이를 자주 착용한다.

1963년작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타이틀 롤을 맡은 테일러가 착용했던 뱀 팔찌는 사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시계였다는 일화를 언뜻 떠올리며,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다. 성경에서도 지혜의 열매 선악과를 인간에게 권한 뱀. 보다 더 지혜롭게 오늘의 커뮤니케이션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전투를 함께 수행할 부적을 고르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fun fact . 영어로 ‘부적’을 뜻하는 명사 amulet과 talisman의 차이는 무엇일까? Amulet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부적을 뜻하고 talisman은 반대로 착용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있는 힘을 다 쏟을 오늘의 전투를 위해, 마법 주문을 걸 듯 나만의 부적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브로치 컬렉션을 소개한 책, 《Read My Pins》를 읽은 후부터는 브로치도 즐기게 되었다. 2018년 12월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88년 대선 유세 당시 말했던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 문구를 패러디한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제목의 책에는 마담 올브라이트가 소장한 브로치 컬렉션이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한 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마담 올브라이트는 국무장관으로서 그날 착용한 브로치에 국가적 입장, 외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3색으로 구성된 리본 모양 브로치를 착용했고, 대 시리아 강경책을 표현하기 위해 사자 브로치를 달기도 했으며, 해외에 파병된 미군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미국을 상징하는 브로치를 선택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서 여성성을 감추기보다는 마음껏 드러내고 활용한 센스가 유쾌하다.

명품 브랜드 지방시의 수장이었던 위베르 지방시는 “럭셔리는 모든 디테일에 깃든 것 ”이라 말했다. 내가 바로 명품 통역사고,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명품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와의 약속처럼 지키려 하는데 어느 한곳도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소통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명품은 명품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의미가 퇴색된 감은 있지만 원래 명품은 ‘믿을 수 있는’ ‘시대를 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의 대명사 아니던가.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명품을 찾는 건 결코 아니다. “코발트블루 작품은 가마에서 뜨거운 열을 버티고 나와야만 얻을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색”이라는 도예가 이경옥 선생님의 도자기 브로치도, ‘나의 명품’ 컬렉션에 있다.

유난히 어려운 분야나 각별히 중요한 회의 통역을 갈 때면 청명한 색상에 마음이 정갈해지고, 높은 열을 버틴 코발트블루가 아름답게 어릿어릿 비치는 도자기 브로치를 바라보며 프로로서의 결의를 다진다. ‘깨지지 않고 버틴다, 오늘.’

빈티지 숭에서 구입한 유럽 마스크 모양의 브로치도 즐긴다. 여기에는 내가 직접 의미를 부여했다. 통역 의뢰인의 가면을 쓰고, 그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다.

얼마 전의 일이다. 동시통역을 하러 간 심포지엄에서 오랜만에 만나 인터미션 동안 짝막하게 인사 나누는, 존경하는 회사 대표와의 대화.

“대표님, 언제나처럼 우아하시지만 오늘은 네페르티티

펜던

트 목걸이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집트 다녀오셨었나요?”

“알아봐 줘서 고마워요. 한 20년쯤 전에 이집트 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이렇듯 상대방의 차림새를 살펴서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국제회의의 한영 통역사가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클라이언트를 통역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높게 잡아봐야 전체 업무의 절반 정도 될 것이다.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고객의 출신 국가의 문화에 맞춰 장신구를 고르는 걸 즐긴다. 예를 들어, 이슬람권에서는 녹색이 신성시된다는 걸 알기에 중동에서 온 클라이언트를 통역할 때에는 에메랄드 등의 녹색 보석을 착용한다.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지 정장을 입는다.

십여 년 전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사온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가 프린트된 실크 스카프는 드물게 일본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역할 때 착용한다. 실제로 2014년 이 스카프를 착용한 날 LED포럼에서 통역해드린 청색 LED의 최초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한 달쯤 후 그 해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나와 통역 의뢰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순차통역에 비해 동시통역을 하는 날은 사전 회의를 제외하면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지만, 모국을 나타내는 장신구를 걸친 통역사를 보면 으레 반가워하며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쿵짝이 잘 맞는 통역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을 센스 있게 옷차림에 녹여서 표현해보라. 반대로, 우

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외국인 클라이언트에게 한국 문화를 주제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고, 자긍심을 가지는 동료들도 있다.

몇 년 전, 개도국 사절단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건배사 대신 영어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한 대기업 관계자를 본 적이 있다. 영문 번역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표현이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았다.

그럼 뭐 어쩐가. 그날의 자리는, 그 자체로 명품이 됐다. 진달래꽃을 뜻하는 영어 단어 ‘azalea’라는 단어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특유의 ‘정직한 핑크색’으로 봄을 알리는 그 꽃이 마음속에 흐드러지게 피었다. 김소월 시인의 팬도 아니고 진달래꽃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반한 건배사 대신 시를 읊는 소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매너는 다른 이를 살피고 배려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탄생시킨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는 “You decide what you are.”라고 말한 바 있다. 말을 붙이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만의 색깔과 이미지로 나를 표현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라.

통역사의 일

언어만 옮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서

1판 1쇄 펴낸날 2020년 8월 30일

전자책 펴낸날 2020년 8월 30일

지은이 박소운

책만들이 김승민 책꾸미고 그린이 이민현

펴낸곳 채륜서 펴낸이 서채윤

신고 2011년 9월 5일(제2011-43호)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14, 2층(구의동)

대표전화 1811.1488 팩스 02.6442.9442

E-mail book@chaeryun.com Homepage www.chaeryun.com

인스타그램 @chaeryunbook

전자책 만듦 이타래www.etarae.com

© 박소운. 2020

© 채륜서. 2020. published in Korea

ISBN 979-11-85401-50-8 05810

채륜(인문사회), 채륜서(문학), 띠움(예술)은 함께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과 햇빛이 되어주시면 편하게 설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값 10,080원